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212-10

2009년도 인권어세이 수상집



2009년도 인권에세이 공모사업 개요

1 목 적

청소년들의 생활속에서의 인권에 대한 관심제고를 통해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과 인권감수성 향상에 도모

2 추진경과

-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제2009-20호) : 2009. 6. 15. ~ 10. 11.(5개월)
- 접수일정 : 2009. 9. 1. ~ 10. 11.(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 응모건수 : 총195편(초등부 - 37편, 중등부 - 25편, 고등부 - 133편)

3 심 사

- 심사기준 : 인권지향성, 참신성, 논리성, 작품성에 의한 평가
- 시상내역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표창 및 상금
 - 최우수상(자유상, 초·중·고 통합1편) : 상금 30만원
 - 우수상(평등상, 초·중·고 부문별 시상) : 각 상금 20만원
 - 장려상(평화상, 초·중·고 부문별 시상) : 각 상금 10만원
- 2009년도 인권에세이 최종 수상작 : 총34편
 - 초등부 : 10편(우수4편, 장려6편)
 - 중등부 : 9편(우수3편, 장려6편)
 - 고등부 : 15편(통합최우수1편, 우수3편, 장려11편)

2009년도 인권에세이 수상작

부문	이름	제목	소속	수상내역
초 등 부	송지영	어린 아이들의 강제 노동	경기도 안성 산평 초등학교 6학년	우수상 (평등)
	김영우	외모가 다를 뿐 마음은 똑같은 하나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를 읽고	충주 남산초등학교 6학년	
	조종현	초딩의 인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서울 서원초등학교 5학년	
	오하림	존중 받을 권리	원주 태봉초등학교 6학년	
	박민우	어린이 체육 현장	늘푸른 초등학교 6학년	장려상 (평화)
	설수빈	인권에 대한 내 생각	광주 금구초등학교 6학년	
	원민재	너와 나는 같은 친구	원주 태봉초등학교 3학년	
	김혜인	인권문제	인천 서흥초등학교 4학년	
	이해솔	우리는 다 같은 친구	인천 서흥초등학교 5학년	
	홍서연	장애우의 친구 되기	고양 용현초등학교 5학년	
중 등 부	권예은	인권은 꽃이다.	인천 만성중학교 3학년	우수상 (평등)
	김창현	학교에서의 인권	부산 내성중학교 3학년	
	이현민	진심어린 마음의 배려가 진정한 인권 찾아주기가 아닐까요?	수내중학교 1학년	
	김소연	선생님, 저희들의 외침을 들어주세요.	부천 중원중학교 2학년	장려상 (평화)
	김현정	밥을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던가?	고양 신능중학교 2학년	
	선예은	그래서 가족인가 봐요!	인천 진상중학교 3학년	
	이성민	힘없는 자, 아픈 자까지 비추는 인권	대전 관저중학교 2학년	
	문원영	슈퍼 아저씨의 진정한 사랑	예일여자중학교 2학년	
진승혁	장애우와 함께하는 학교생활	서울 등원중학교 1학년		

부문	이름	제목	소속	수상내역
고 등 부	이효진	교과서 밖에서 만난 인권	용인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최우수상 (자유)
	정재원	사이시옷을 읽고	민족사관고등학교 3학년	우수상 (평등)
	최홍록	무지에 갇힌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권리	서울고등학교 1학년	
	박교연	당신의 사적자유권, 이상 有!	용인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양준혁	하늘이 허락하신 참된 사람의 삶을 위해	호평고등학교 3학년	
	홍석환	유엔평화봉사단원으로 뉴욕에 다녀와서 PEACE TALK	태원고등학교 2학년	장려상 (평화)
	최정윤	인권, 현실 그리고 미래	영양여자고등학교 1학년	
	유재룡	소음이 울림이 될 때까지 - 세상을 향해 어퍼컷을 읽고 -	북일고등학교 1학년	
	최성태	학생의 하루	경희고등학교 1학년	
	유채윤	그는 성적소수자이기 전에 청소년이었다.	용인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정소희	바지 허가증	창현고등학교 1학년	
	이주원	“외국인 거주자 인권보호,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용인외국어고등학교 3학년	
	김윤나	발암물질 생수를 통해 바라보는 소비자 인권과 국민 기본권의 현 주소	대전 만년고등학교 1학년	
	성은욱	타인의 아픔을 감싸는 아름다움	구미 금오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신태	사이버 세상 속의 인권	민족사관고등학교 1학년	

인권에세이 심사 총평

○ 초등부의 경우는 ‘인권’의 의미를 알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글이 많았습니다.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그러니까 이게 인권인거죠?” 하며 물어보고 찾아보는 과정이 글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툴고 정리 안 된 모습들이 많았지만 박민우 학생의 “**어린이 체육 현장**” 조종현 학생의 “**초딩의 인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등의 글들에서 보여진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들의 권리, 아동의 권리를 찾으려는 노력들은 대견스러웠습니다. 오하림 학생의 “**존중 받을 권리**”나 홍서현 학생 “**장애우의 친구 되기**” 등의 글들을 읽으면서 친구들이나 주변 이웃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 속에서 인권의 의미를 발견해가는 모습들에는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초등저학년 학생들의 작품이 적었는데 그 중에서 원민재 학생의 “**너와 나는 같은 친구**”는 글은 짧았지만 학교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에 대한 솔직한 자신의 이야기와 생각을 담고 있어서 흐뭇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사회적 약자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참 그들이 불쌍하고 나는 그렇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한다.’ 라는 식의 표현들이 눈에 띄었는데 인권을 위한 실천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준다는 시혜적 입장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위한 나눔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 중등부의 경우는 편수가 적어서 아쉬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학생으로서의 자신들의 위치와 권리를 알아가고 이것을 바탕으로 학교생활 속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해 다루는 글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창현 학생의 “**학교에서의 인권**”은 글의 소재를 떠나서 인권의 의미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자기 성찰이 담겨 있는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글들에서 학생으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이것이 인권문제로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불만을 토로수준에 멈추는 모습도 보여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중등부 에세이에는 여자,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코시안 등의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인권에세이 심사 총평

글들이 많았습니다.

상식 수준으로 이들의 인권문제와 대안을 나열하기보다는 이들과 관련된 자신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전개했습니다.

권예은 학생의 “인권, 인류의 꽃이다.” 김현정 학생의 “밥을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던가?”, 문원영 학생의 “슈퍼아저씨의 진정한 사랑”, 진승혁 학생의 “장애우와 함께하는 학교생활” 등의 글 속에서는 인권의 의미를 남녀 차별에 대한 경험, 장애우와 관련된 경험들, 자원 봉사나 동아리 활동에서 알게 된 외국인 노동자나 코시안 가족들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권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는데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실천하겠다는 모습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 고등부의 경우는 편수도 많았고 소재도 주제도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은 인권은 거창하고 나오는 상관없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문제가 되며 바로 내 생활이 된다는 것을 담고 있는 글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이효진 학생의 “교과서 밖에서 만난 인권”에서도 먼저 자신은 비교적 규범 수용적 태도를 가진 모범생이었고 인권이 추상적이고 현실에서 그다지 와 닿지 않았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인권센터에서의 자원 봉사를 통해서 인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되었고 그 경험을 통해 이제 인권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인다는 내용을 솔직하게 풀어냈습니다.

인권관련 콘텐츠에 대한 감상문이나 학교생활에서의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는 글들에서도 인권은 바로 자신들이 서 있는 이 곳에 있다는 것을 적어냈습니다. 청소년, 학생으로서의 자신들의 위상과 권리를 알아가면서 현실에 대해 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소중하다’고 말하며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에세이들도 많았습니다. 눈에 띄었던 작품으로는 먼저 청소년의 권리를 노동권으로 풀어낸 최홍록 학생의 “무지에 갇힌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있었다. 수업 시간에 정치나 경제를 공부하면서 청소년

인권예세이 심사 총평

년들의 정치참여권이나 노동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현실을 생각했을 때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현실을 알리고 청소년의 권리를 찾겠다는 고민은 훌륭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에 대한 또 다른 작품으로 유채윤 학생의 “그는 성적소수자이기 전에 청소년 이었다”와 성은욱 학생의 “타인의 아픔을 감싸는 아름다움” 등의 글 들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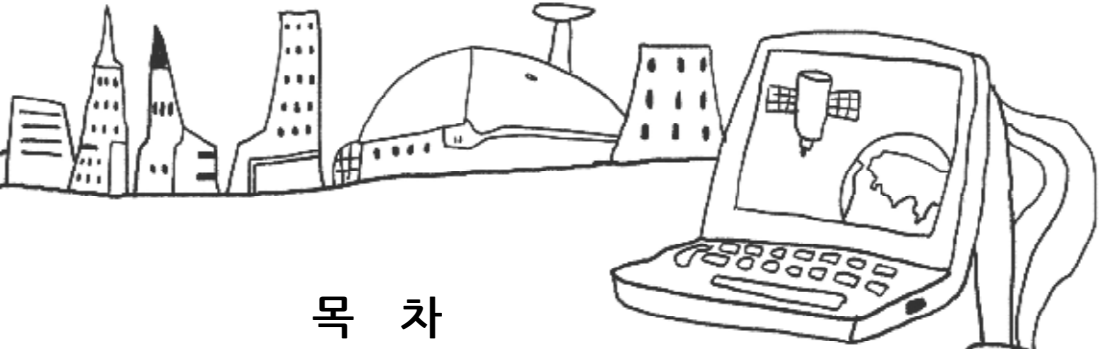
이 글들은 성적 소수자나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난민과 같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소수자에 대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이제는 상식 또는 당위가 되어버린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생각하게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글들 역시 실제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상을 함께하는 이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편견과 차별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내주었고 이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 다함께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세이 속에서 학생들은 인권이 숨쉬는 사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며 말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 실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 주었습니다. 존경스럽다는 말이 저절로 들만큼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었고 인권문제를 바로 ‘자신’의 문제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학생들의 글 속에서 저 또한 내 이웃의 아픔과 그들에 대한 책임을 떠올리게 되었고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다시 꿈꾸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실천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다짐도 새롭게 해보았습니다. 에세이 공모에 참가해준 모든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4 발표 및 시상

- 심사결과 발표 : 2009. 11. 13. (금)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 시상 : 2009. 12. 1.(화) 14:0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
※시상식 미참석자, 상장 개별 전수



목 차

◆ 최우수(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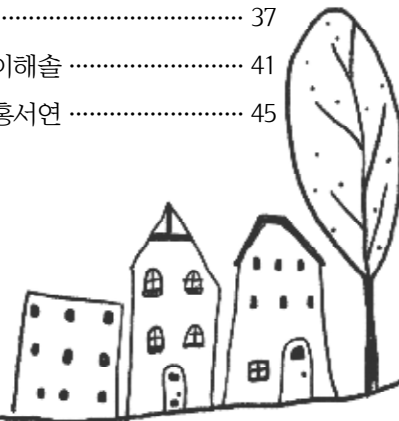
- 교과서 밖에서 만난 인권 / 용인 외국어고등학교 이효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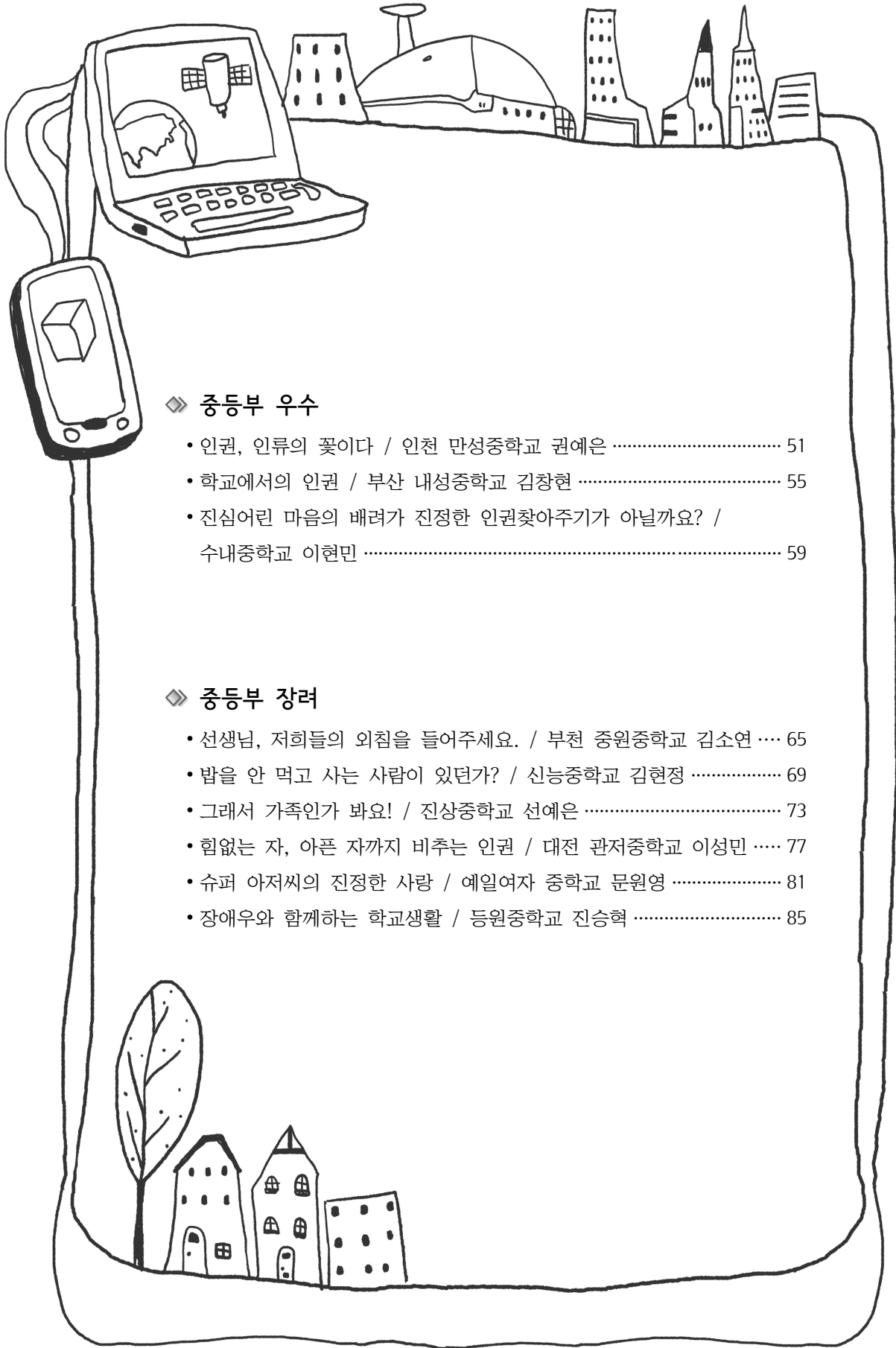
◆ 초등부 우수

- 어린 아이들의 강제 노동 / 경기 산평초등학교 송지영 9
- 외모가 다를 뿐 마음은 똑 같은 하나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를 읽고 / 충주 남산초등학교 김영우 13
- 초딩의 인권 누구에게 있을까??? / 서울 서원초등학교 조종현 16
- 존중 받을 권리 / 원주 태봉초등학교 오하림 20

◆ 초등부 장려

- 어린이 체육현장 / 늘푸른 초등학교 박민우 27
- 인권에 대한 내 생각 / 광주 금구초등학교 설수빈 32
- 너와 나는 같은 친구 / 원주 태봉초등학교 원민재 36
- 인권문제 / 인천 서흥초등학교 김혜인 37
- 우리는 다같은 친구 / 인천 서흥초등학교 이해솔 41
- 장애우의 친구 되기 / 고양 용현초등학교 홍서연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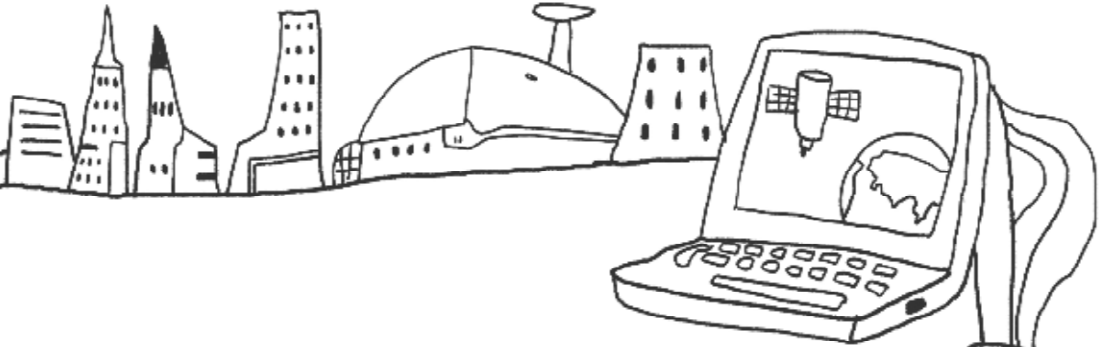


◆ 중등부 우수

- 인권, 인류의 꽃이다 / 인천 만성중학교 권예은 51
- 학교에서의 인권 / 부산 내성중학교 김창현 55
- 진심어린 마음의 배려가 진정한 인권찾아주기가 아닐까요? /
수내중학교 이현민 59

◆ 중등부 장려

- 선생님, 저희들의 외침을 들어주세요. / 부천 중원중학교 김소연 65
- 밥을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던가? / 신능중학교 김현정 69
- 그래서 가족인가 봐요! / 진상중학교 선예은 73
- 힘없는 자, 아픈 자까지 비추는 인권 / 대전 관저중학교 이성민 77
- 슈퍼 아저씨의 진정한 사랑 / 예일여자 중학교 문원영 81
- 장애우와 함께하는 학교생활 / 등원중학교 진승혁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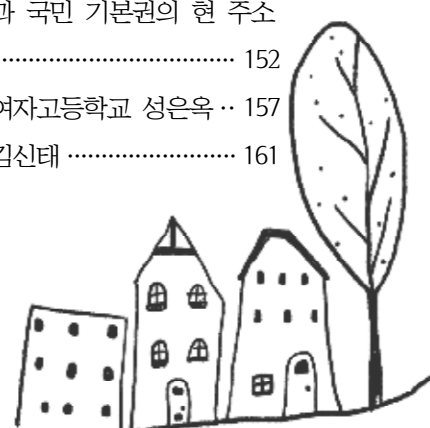


◆ **고등부 우수**

- 사이시옷을 읽고 / 민족사관고등학교 정재원 91
- 무지에 갇힌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권리 / 서울고등학교 최흥록 95
- 당신의 사적 자유권, 이상 有! / 용인 외국어고등학교 박교연 100

◆ **고등부 장려**

- 하늘이 허락하신 참된 사람의 삶을 위해 / 호평고등학교 양준혁 107
- 유엔평화봉사단원으로 뉴욕에 다녀와서 PEACE TALK / 태원고등학교 홍석환 123
- 인권, 현실 그리고 미래 / 영양여자고등학교 최정윤 127
- 소음이 울림이 될 때까지 '세상을 향해 어퍼컷'을 읽고 / 북일고등학교 유재룡 131
- 학생의 하루 / 경희고등학교 최성태 134
- 그는 성적소수자이기 전에 청소년이었다. / 용인 외국어고등학교 유채윤 139
- 바지 허가증 / 창현고등학교 정소희 144
- “외국인 거주자 인권 보호,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용인 외국어고등학교 이주원 148
- 발암물질 생수를 통해 바라보는 소비자 인권과 국민 기본권의 현 주소 / 대전 만년고등학교 김윤나 152
- 타인의 아픔을 감싸는 아름다움 / 구미 금오여자고등학교 성은옥 157
- 사이버 세상 속의 인권 / 민족사관고등학교 김신태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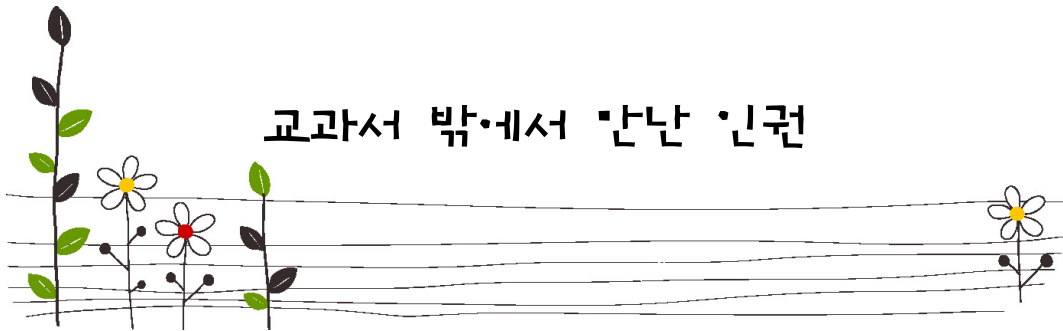


최우수(통합)



• 교과서 밖에서 만난 인권(이효진)





교과서 밖에서 만난 인권

용인 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이효진

그의 이름은 조셉, 정치 박해로 인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고 있는 50대의 라이베리아 출신 목사님. 현재 한국에서 정치적 난민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법률 소송을 제기중인 난민신청자 신분이다.

내가 그의 개인 신상을 모르고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면 그는 아주 낮은 모습의 검은 얼굴의 외국인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여름방학, 나는 그의 법률 소송을 돕기 위해 법원으로 그와 동행했다.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의 만남이었지만 그가 그 나라에서 정의감 넘치고 자애로운 심성을 가진 성직자였음을 짐작하기엔 충분했다.

그는 현재 20대의 딸과 함께 아주 불편하고도 고달픈 이국 생활을 하고 있다. 난민 신분 때문에 직업을 구하기 어려워 지금 수입이 없는 상태다. 외국인 이주민들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다는 난민의 현실적 고단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셈이었다.

법원으로 함께 가는 동안 뉴스에서나 간혹 등장하던 외국인 이주민, 난민, 정치적 박해, 불법 체류 등의 보통명사가 어느새 조셉이라는 고유명사로 바뀌어 내 일상으로 들어왔다. 여태껏 활자로만 접했던 인권의 그 무거운 의

미를 교과서 밖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게 된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비교적 규범 수용적 태도를 가진 모범생 스타일이다. 학교 규칙이나 사회의 권위에 대항하여 부당한 대우나 인격적 모멸감을 받은 적이 별로 없다. 지키라는 복장 규정을 굳이 어겨가며 머리를 기르고 교복 치마의 길이를 줄인 적이 없을 뿐더러, 간혹 폭언과 심한 체벌을 행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어도 그에 협조하지 않은 우리 잘못도 있기에 드러내 놓고 반항을 해 본 기억이 없다.

세상이 유토피아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인권은 개개인이 잘하면 침해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교실에서 마주치는 인권은 그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정도로 생각했고, 교과서에 묘사된 인권은 전 세계가 달성하려고 노력해야 할 그저 추상적인 목표로 받아들였다.

인권에 대한 나의 이렇게 소박한 인식에 변화를 준 계기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교외 봉사로 시작한 난민 인권센터에서의 활동이었다. 때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학생들의 의무 봉사활동은 나름 감수성 예민한 시기에 여러 의미 있는 경험과 사고를 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적어도 내게는 형식이 내용을 만들어 낸 가치 있는 일이었다.

지난 몇 달간 세계 곳곳의 난민 실태에 관한 자료를 번역하고 이곳의 웹사이트를 드나들면서 본 인권유린의 현장은 세상에 존재하는 정치 체제와 종교의 가짓수만큼, 그리고 피부 색깔 만큼이나 다양한 인종문제 등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생전 가 볼 일 없을 것 같은 미얀마, 라이베리아, 파키스탄이

미국, 영국만큼이나 친밀한 나라이름으로 다가왔다. 내 정치적 의사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어디서든 거주할 수 있는, 내게는 당연한 권리가 그들에게겐 목숨 건 절박한 현실이었다.

돌아가려야 갈 곳이 없는 그들의 이름 난민, 그들을 버린 조국에는 오직 박해와 공포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비장한 결심으로 탈출해온 한국에서 그들은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다. 신청자의 겨우 10% 남짓만이 받는다는 난민 인정 수치는 우리의 경제규모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그 나라의 인권실태를 알려면 재소자와 이주 노동자의 현실을 보라는 말이 있듯이 난민에 대한 우리나라의 태도는 우리 인권실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듯하다. 그들을 돕는 난민인권센터가 허름한 건물의 옥탑 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실과 같은 맥락이다.

사실 우리도 정치적 난민을 배출한 역사가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있었다. 끝내 이 땅을 밟지 못하고 돌아가신 세계적 작곡가 윤이상, 고암 이응로 화백이 있었고, 파리에서 20년 난민생활 끝에 돌아온 언론인 홍세화 선생, 그리고 얼마 전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 역시 정치적 망명생활을 한 적이 있다. 그 당시 그들을 받아준 외국의 관대함과 배려가 없었더라면 우리 역사의 큰 손실이었을 것이다.

지구 온난화로 온 지구촌이 같이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글로벌시대가 되어도, 그 어떤 세상의 오지도 찾아간다는 블러드 마니, 다국적 자본은 만연해도, 다국적 인권은 없었다. 인권에는 여전히 철옹성 같은 국적이 존재하고 국경의 밤은 깊기만 하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만큼이나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도 큰 행운

일 수 있겠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그것이 운이라면 행운을 거머쥔 자, 불운을 맞닥뜨린 자를 포용하는 이치는 당연할 것인데 우리 사회의 그들에 대한 냉대와 편견은 여전히 일상적이다.

왜 학교에서 연애하면 퇴학을 당해야하는지, 몸매 노출을 너무 강요하는 요즘 여학생 교복 디자인에는 기업의 어떤 상술이 존재하는지 그 속의 숨은 뜻과 논쟁하는 나의 학교생활은 차라리 선진적이다. 결코 숨길 수없는 삶과 죽음, 굶주림의 문제에 무슨 논쟁이 필요할까?

난민인권센터의 그 어느 분의 말처럼 사람이 먼저 아닌가?

인권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안전하고, 굶주리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삶을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그 누구로부터도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인류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명제라는 강한 인식이 공유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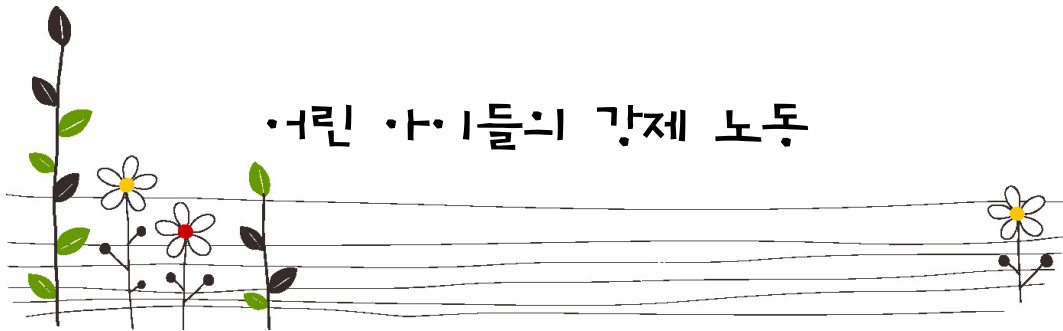
무더웠던 지난여름의 날씨만큼이나 결코 가벼울 수 없었던 이번 방학의 경험으로 앞으로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그 첫 단추는 먹고, 입고, 편히 잠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초 등 부 우 수



- 어린 아이들의 강제 노동(송지영)
- 외모가 다를 뿐 마음은 똑 같은 하나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를 읽고(김영우)
- 초딩의 인권 누구에게 있을까???(조종현)
- 존중 받을 권리(오하림)





어린 아이들의 강제 노동

경기 산평초등학교 6학년 송지영

어느 날, 나는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4'라는 프로그램이었다.

여섯 살 밖에 되지 않는 코피라는 아이가 가나의 카카오 농장에서 일을 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강에서 물을 길어오고, 10미터가 넘는 카카오 나무에 올라가서 열매를 따는 위험한 일이었다. 보고 있는 내가 아슬아슬 했다. 카카오 열매를 딴 후, 손도끼로 열매를 가르고 카카오 씨를 빼낸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앉았다 일어나기 40분'이라는 벌을 받아야 했다. 식사는 하루에 두 번이었다. 밤에는 딱딱한 침대에서 다른 아이들과 뒤엉킨 채 잠이 들었다. 코피의 유일한 즐거움은 같은 농장에서 일하는 열한 살 형과 공부하는 것이었다. 코피는 학교에 다니고 싶어 했다.

코피는 이렇게 궂은일을 하고 밥도 잘 먹지 못했다. 돈이라도 많이 주면 몰라도 돈도 얼마 주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일은 코피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세계적 규모의 단체인 '국제엠네스티'에 따르면 25만 명이 넘는 서아프리카 지역의 아이들이 카카오 농장에서 일한다고 한다. 그렇게나 많은 아이들이 노동을 하면서 고통을 겪

고 있다니 너무 불쌍했다.

이 아이들은 모두 인신 매매꾼이 가난한 부모에게 15달러를 주고 아이들을 사서 대농장에 판다고 한다. 그 곳에서 일하는 아이들은 평생 그 곳에서 일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너무 불쌍했다.

하지만 나는 이 프로그램에서 나온 인권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다. 그래서 엄마께 여쭙어 보았다.

“엄마, 인권이 무슨 뜻이에요?”

“지영이가 여기에서 나온 인권에 대해서 궁금한가 보구나. 인권은 사람이 평등하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란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단다.”

엄마께서 설명해 주시니 대충 인권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래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인권 탄압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다.

우리들이 맛있게 먹는 초콜릿에는 아이들의 노동이 숨어져 있다고 한다. 카카오 재배는 남녀의 역할이 구분된다고 한다. 남자는 긴 장대에 아프리카 전동 칼을 붙여서 카카오 열매를 따는 일을 한다고 한다. 매우 위험한 그 도구는 어른들만 쓰는 게 아니라 10대 어린아이들 까지도 그 도구를 가지고 재배 작업을 한다고 한다. 여자들과 아이들의 역할은 떨어진 카카오 열매를 줍는 것이라고 한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부모 손에 이끌려 카카오 재배 장으로 온다고 한다. 법적으로는 18세 미만의 노동이 금지되어 있지만, 법적인 실상은 다르다고 한다. 초콜릿의 원료를 만드는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하루에 10시간이라고 한다.

카카오 열매를 다 따고 주워서 한 곳에 모으면 모두가 둘러앉아서 카카오 열매에서 씨를 빼낸다. 카카오 씨를 빼낼 때, 씨를 둘러싼 점액에서는 달콤하

면서 고소한 맛이 난다고 하는데 이른 아침에서 저녁까지 카카오를 재배하는 가난한 노동자들은 이 점액으로 허기를 달랜다고 한다. 초콜릿을 만드는 과정 모두 다 노동자의 땀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마을의 아이들은 한 번도 초콜릿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 초콜릿을 만드는 아이들이 초콜릿을 단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다니 정말 불쌍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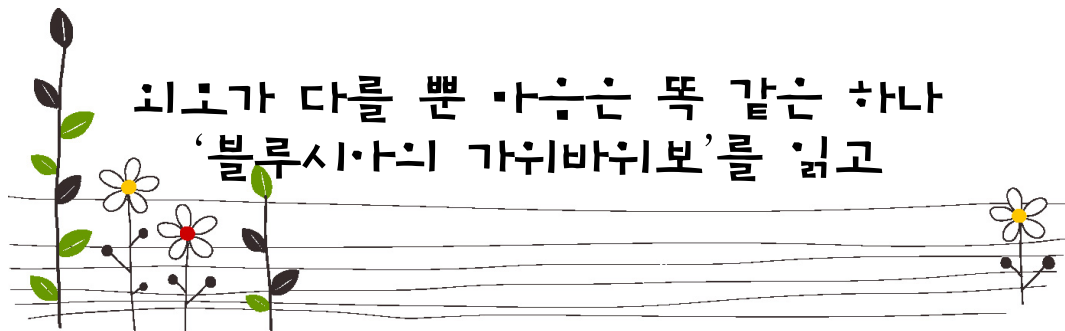
아침 일찍부터 열매를 따기 시작해서 수확이 끝나면 나무 주위의 잡초를 제거하고 비료까지 주어야 한다고 한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을 해야 하는 셈이다. 이렇게까지 일을 하고서도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하루에 고작 3000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들이 그냥 슈퍼에서 사 먹는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일을 해야 한다니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 인권이 있는데도 인권 탄압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니……. 그리고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지도 못하고 일을 한다니 정말 불쌍하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하루 세끼 꼬박꼬박 먹는 우리가 행복한 것 같다. 나는 내가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아이들을 보니 내가 무척 행복한 것 같다.

18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을 강제 노동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그런데 왜 어린 아이들에게 힘들게 노동을 시키는 것일까? 하루에 10시간이나 일을 시키면서 돈을 3000원 밖에 주지 않으니 그 아이들이 너무 억울할 것 같다. 아니,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너무 힘들 것 같다. 내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다. 내가 만약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도 그 아이들처럼 힘들게 카카오 열매를 따고 했겠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리고 밥도 하루에 2끼 밖에 먹지 못하고, 아주 조금, 맛이 없는

음식들 밖에 먹지 못한다는데 어떻게 배고픔을 참을까? 나는 세끼를 다 먹고
도 간식을 먹는데 말이다. 배고픔은 정말 참을 수 없다.

강제 노동이 사라지고, 인권 탄압도 모두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
게 살았으면 좋겠다.



외모가 다를 뿐 마음은 똑 같은 하나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를 읽고

충주 남산초등학교 6학년 김영우

엄마랑 지우랑 오랜만에 마트로 장을 보러 갔다.

장을 보고 우리는 재미있게 책을 보고 있었는데 옆에서 어설픈 한국말이 들렸다.

“이거영 이쁘당.”

책을 보다 말고 고개를 들고 소리가 나는 쪽을 보았다. 피부도 까맣고 눈도 큰 외국 사람들이 보였다. 그 사람들을 보자 얼마 전 읽었던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가 생각났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동화인데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단편이 여러 편 실려 있었는데 그중에 블루시아라는 외국인이 있었다.

블루시아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자바섬에서 우리나라에 돈을 벌러 왔다고 한다. 블루시아는 작은 프레스 공장에 다닌다. 그곳 사장인 한국인은 블루시아와 다른 외국 노동자들을 마치 짐승처럼 취급하며 때린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배우는 말이 “제발 때리지 마세요”라고 한다. 참 마음이 아프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또 처음 공장에 갔을 때 한국 사람이 블루시아를 부를 때 “야 임마.”라고 했다.

그래서 블루시아는 그 말이 사람을 부르는 말인 줄 알고 한국 사람에게 “야 임마.”라고 해 실컷 얻어맞았다. 나는 솔직히 어이가 없었다. 그리고 블루시아가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했을까?

못사는 나라에서 돈 벌러 왔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막 대하는 공장사람에게 너무 화가 났다. 피부색이 달라도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인데 나와 다르게 가진 것이 없다고 짐승취급을 하고 때리기까지 하다니.....

블루시아는 고향에 부인과 딸, 부모님이 계신다. 열심히 돈을 벌어 고향에 가서 작은 가게를 차리려는 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것이다.

그런데 공장 사장이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게다가 일하다 손가락이 세 개나 잘렸다. 블루시아가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거나 앓았는지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블루시아가 그런 나쁜 한국인 말고 좋은 한국인을 만나 돈도 많이 벌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만약 돈을 벌러 외국에 갔을 때 단지 피부색이 다르고 그 나라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는다면 정말 속상할 것 같다. 왜냐하면 처음엔 누구나 그 나라 말을 모르거나 서툰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피부색 때문에 차별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링컨대통령이 노예해방을 한 이후 없어진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인간의 평등권을 무시하고 자기보다 못하다고 차별하는 사람이 있어 좀 마음이 불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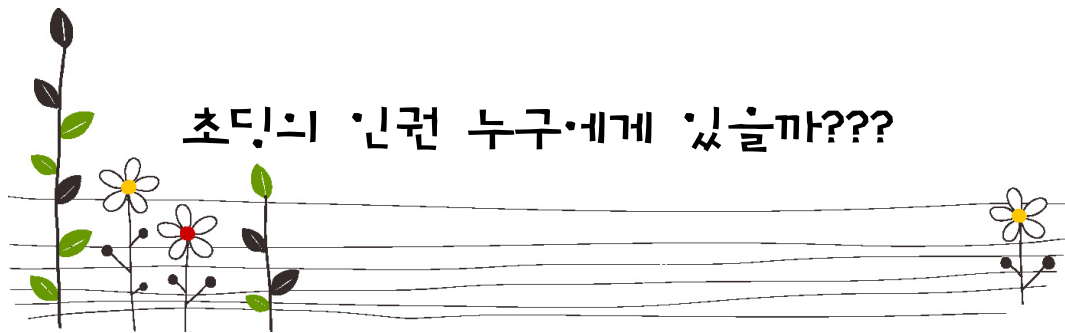
엄마는 그런 것이 편견이라고 하셨다. 우리 학원에도 ‘미스터 제이’라는 이름을 가진 흑인 선생님이 계시다. 학원 아이들도 처음에는 그 흑인 선생님과 말도 잘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고 나니 모두 그 선생님과 웃으며 공부한다. 물론 나도 그 아이들 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그때 피부색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나랑 똑같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 외국 사람들을 보면 편견을 갖지 않고 먼저 웃으며 인사해야겠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와 그들은 피부색이 다를 뿐이지 마음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겠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싶다.

이제는 지구촌이라는 말이 정말 실감나는 시대이다. 내가 사는 충주에도 많은 외국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 사람들이 블루시아처럼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또다시 오고 싶은 코리아가 되었으면 좋겠다.

요즘 불어오는 바람에선 가을 냄새가 가득 담겨져 있다. 밤송이를 터뜨리고 온 바람, 사과를 만지고 온 바람. 이 바람 역시 느낌은 다 똑 같을 것이다. 이런 느낌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느끼는 행복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파란 가을 하늘에 그려 본다.



초딩의 인권 누구에게 있을까???

서울 서원초등학교 5학년 조종현

내가 남자니까 누나는 아빠의 키 175 센티미터와 엄마의 키 160 센티미터를 더한 후 둘로 나눈 수를 기본으로 다방면의 조건으로 예측하면 내가 약 173에서 약180 센티미터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한다. 방과 후 밤 12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나를 볼 때 누난 “어린애답게 맘껏 놀지 못 한다”, “내가 불쌍하다!”고 말한다. 그리곤 내 얼굴 바로 앞에 자기 얼굴을 들이대며 눈을 맞춰준다. 또 종종 “내가 대한민국 청년 표준 키도 안 되는 키 작은 남자가 될 수 있다”고, “빨리 재워야 된다”고 엄마를 위협하기도 한다. 하지만 엄마 별로 꿈쩍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엄마 첫 아이인 누나를 잘 자라라고 밤 9시경이면 불 끄고 재우는 습관을 들였다가 후회했다고 하신다. 누나가 중학교 진학한 후 시험기간에도 밤12시쯤이면 눈가 흰자위가 별절게 충혈 되고 곧 눈꺼풀이 감겨지고 수학여행가서도 밤샘을 못하고 오는 일을 겪으면서 너무 속상했었다고 말하신다. 그래서 내가 할 것 다하느라 밤 늦도록 책상에 기대거나 졸지 않고 버티면 많이 대견해 하신다.

그런 엄마가 2009년 5월쯤.

갑자기 어디서 어린이 현장을 배우고 깨우친 것인지 내게 어린애답게 행복

하게 살 권리를 주시겠다고 하셨다. 이제껏 해 온 것처럼 학교생활 잘하면 학원을 비롯한 나머지 것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학원을 삼분의 일로 줄여주셨다. 오-오-오 이럴 수가!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 엄마가 나를 위해 무엇인가 또 다른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학원을 찾고 준비하시는 것으로 의심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진짜로 바쁘지 않게 지냈다. 그런데 벌써 9월. 만 4개월이 지났다.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7년간 이렇게 스케줄 없이 살아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맘이 어린 이로서의 권리를 맘껏 누리진 것 같지 않다. 내가 놀 시간이 충분해 졌다고 해도 컴퓨터게임(1주일에 3시간), 책읽기나 엄마랑 영화보기 등을 빼면 내 친구들과 함께 논 시간이 적었기 때문이다. 내 친구들이 나처럼 안식년(교회에서 쓰는 말. 저의 엄마의 표현입니다.)을 가지지 못했으니 당연하다.

그렇다면 나 같은 초등학생(요즘 초딩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의 권리는 무엇일까?

집에서 쉬면서 전보다 더 귀염 받고 맛난 것 먹고 아낌과 보살핌 받는 것이 전부일까? 난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나라에 요즘 특성화 중학교까지 몇 개가 생겨서 인지 내가 5학년이니까 이제 다들 중등입시 수험생이라 말한다. 기막혀!! 나는 과학이 너무 좋는데 과학 특성화 중학교는 더 들어가기 어렵다고들 한다. 이럴 수가! 엄마가 내게 권리를 주셔도 내가 놀 수 있다고 학원가야 하는 내 친구를 불러내면 안 되는 어이없는 안식년을 나는 보내고 있다.

내가 과연 어린이답게 어린이의 권리를 누리며 산다고 말 할 수 있을까? 내 친구들 권리도 모두 돌려져야 우리들은 진짜 어린이답게 지낼 거다.

엄마아빠, 어머니아버지,

우리 초딩들의 권리 찾아주세요!!!

우리들의 권리는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아참!

어릴 때 밤새워 공부 못 했던 저의 누나!

미국 유학가서 고등학교 때부터 밤새워 공부했다고 해요. 저의 누나 말로는 건강하게 크면 마음 먹었을 때 할 기운이 생긴다고 해요. 좋은 성적으로 기초의학분야 이학사학위(pharmacology)도 받아 귀국했고 지금은 OO 제약 회사에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저는 작년까진 하버드 의대 들어가고 싶었어요. 지금도 마음 속에는 그런 꿈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없이 공부만 해서 의대가는 것은 뭐 별로 신나지 않을 것 같아요. 친구를 다 잃을거예요. 제가 수면부족때문인지 자꾸 눈 빛에 다크 서클이 생겨 누나도 놀리거든요..저도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과목만 골라 들을 수 없는 건가요? 중학교가면 과목이 13가지 정도 된다고 하던데.....너무 심한거죠.

미국에선 건강을 위한 체육은 필수과목이고, 영어와 수학도 필수지만 나머지 음악, 미술, 사회, 과학은 선택이어서 미술 음악 사회 과학 모두 다 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학생들에게 진로에 맞는 과목 고를 권리를 주시려고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아빠 엄마가 저를 무한질주 시키려고 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어떻게 음악 미술 모두다 재주를 타고 나기 바라느냐고..... 좋아하는 일하면서 돈까지 번다면 그 때는 적게 벌어도 참고 견디게 되어 있다고.....”

시키지 않아도 제가 그림은 찾아서 그리고 이것저것 만드는데 악기연습은 몇 분 만에 끝낼 때는 덧 붙여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소질대로 키워보라고!”

나라에서 계획을 짜시는 분들도 저의 아빠처럼 저희를 위하는 마음으로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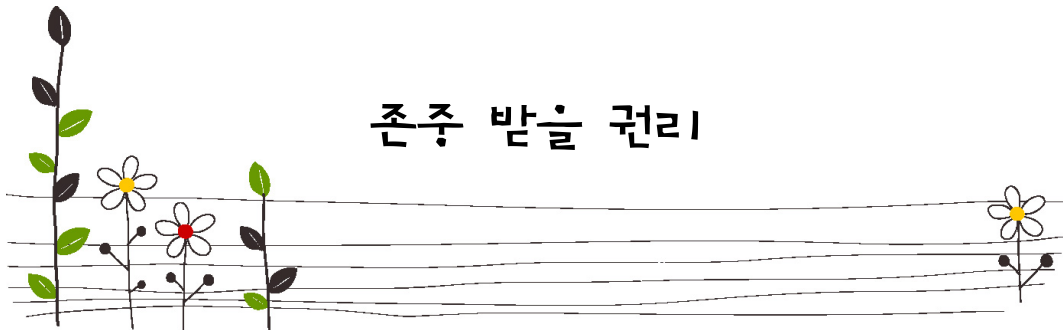
희가 소질대로 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제도를 고치고 바꾸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바꾸려면 오래 걸리겠죠?

저의 권리!

지켜주세요!

찾아주세요!



존중 받을 권리

원주 태봉초등학교 6학년 오하림

6학년이 되어서 알게 된 내 친구 유니는 체육시간을 제일 싫어한다.
체육이 들은 날은 거의 아침부터 울상이다.
다음 주는 뽀틀 운동을 할거라는 예고에 유니는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다.
"그냥 가르쳐 주신대로 힘껏 뛰어 봐!"
이렇게 얘기 해 줬지만 아예 하려 들지 않았다.
드디어 그 체육 시간 먼저 여학생들이 넘었다.
유니 차례가 되었는데 남자 아이들이
" 유니는 못 넘어요. 그냥 뒤로 보내요"
이런 소리가 저기 저기서 나왔다. 선생님께서는
"못하니까 기회도 주지 말라는 얘기냐?"
하시며 야단치셨다.
유니는 그 말씀에 힘을 입었는지 시도를 했고 엉덩이가 닿았지만 넘고 말
았다.
"좋아! 다음엔 조금만 더 점프를 해보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유니는 상기된 얼굴이 되었다.

"거 봐. 되잖아"

내 말에 유니는 눈물까지 글썽 거렸다.

"너 때문에 활동해야 될 것을 많이 못하잖아!"

이런 소리를 늘 듣는다면 체육시간을 무조건 싫어했던 유니.

나는 유니와 같은 입장에 있는 친구들을 알고 있다.

한번 잘 못하는 아이로 낙인이 찍히면 끝까지 그 아이는 못하는 아이가 된다. 그러면 그 아이는 은근히 다른 아이들로부터 멀어지는 걸 보았다.

선생님들은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 애 쓰시지만 선생님이 안 계실 때가 더 문제인 것이다.

"누구는 처음부터 다 잘하니?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하는 것이 다른 거야."

이런 얘기를 듣지만 행동은 그게 아니었다.

자기보다 못하는 게 있을 땐 무시한다든가 할 수 있는 기회도 더 주지 않고 아예 무시해 버리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다.

우리 민주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에게서 인권이라는 게 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당당한 권리가 있는 것인데 단지 약자의 자리에 있다 해서 그것을 무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라는 말을 자주 한다.

내가 싫은 것은 다른 사람도 싫어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하는 짓이 내가 당했을 때를 자주 생각해 봐야한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노인 학대, 아동학대 라는 기사가 나온다.

그 화면을 볼 때마다 우리는 격분하고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벌 줘야한다 흥분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나는 정말 부드럽고 배려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볼 일이다.

노인 학대 아동 학대정도 까지야 아니겠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적은 없는지 그런 것이 커지면 은근히 상대를 깔보는 일이 되는 거 아닐까!

"사실 선생님도 왜 그랬는지 다 알아. 아까 여자아이들이 나한테 말해 줬거든. 너희는 여자고 남자고 체육시간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체육시간에 한 아이 때문에 어떤 활동을 못 하게 되면 아마 그 아이가 싫을 거야. 하지만 만약 그 아이가 너희들과 좀 친한 아이라면 싫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테고. 그런데 너희는 저 아이라서 그렇게 한 거 아니니? 내가 없을 때 우리 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너희가 저 아이에게 했던 행동을 한 번 생각해보렴."

체육 선생님께 말씀을 들으셨는지 선생님께서 말씀을 이어나가셨다.

"너희가 저 애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건 너희 마음이겠지만 문제가 뭐 줄 아니? 너희가 저 아이한테 기회를 주지 않는 다는 거야. 물론 너희가 체육시간에 참여하려는 적극적인 면은 좋았어. 하지만 저 아이가 잘 못해서 연습을 시켜 주시려던 체육선생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너희들은 나누어 주지 않은 거야. 사람들에게는 인권이란 권력이 누구에게나 있어. 한마디로 정상인이 아니라 해도 존중받을 권리는 있다는 거야. 약하든 강하든 가난하든 부자든."

사실 유니는 우리 반에서 알게 모르게 따돌림을 받는 아이였다. 몸집과는 다르게 말을 안하고, 청결하지 않아서 우리 반의 모든 아이들이 그 아이를 싫어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따돌림을 당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그 아이를 많이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그 일을 늘 했기 때문에 그다지 나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니 그건 좀 나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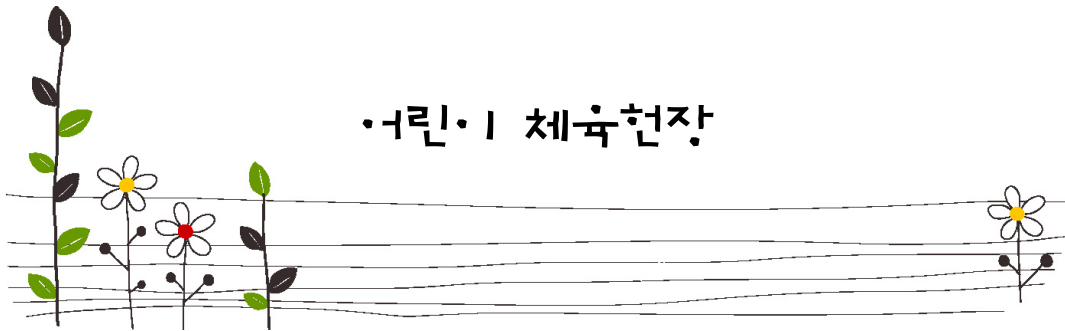
나도 처음에는 그 아이를 티내게 싫어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금방 이해했고 그래서 그 아이가 나와 같이 될 해야

한다면 그 아이에게 기회를 주어서 그 아이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잘 못하면 알려주기도 하면서. 그리고 선생님께서 하신 한 말씀을 잘 기억해두어야겠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정상인이 아니라 해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초 등 부 장 려

- 어린이 체육헌장(박민우)
- 인권에 대한 내 생각(설수빈)
- 너와 나는 같은 친구(원민재)
- 인권문제(김혜인)
- 우리는 다같은 친구(이해솔)
- 장애우의 친구 되기(홍서연)





어린이 체육현장

늘푸른 초등학교 6학년 박민우

어제는 정말 내 기분이 나빴다. 그 이유는 수지체육공원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다. 원래는 옆 동네에 있는(성남시) 분당구에 살지만 일하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서 나는 방학 땐 할머니네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할머니께서 사시는 동네에는 꽤 큰 공원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인라인연습장, 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 연습장 등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몇 일전에 그곳에서 방학에 운동을 하고 싶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리자 어머니께서 수지체육공원에서 운영하는 실내 배드민턴 연습장에 나를 데리고 가셨다.

어머니께서 나와 함께 배드민턴 실내 연습장에 들어가자 놀랍게도 한 코트도 빠짐없이 어른들이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다. 몇몇 여성분과 남성분은 구장 앞에서 방금 배드민턴을 마친 듯, 점심식사 이야기를 하며 떠돌고 있었다. 그런데 코트와 코트 틈 사이, 밖에서 나보다 어려보이는 한 3~4학년쯤 되 보이는 여자아이가 코트도 없이 옆에서 배드민턴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띄었다. 나는 실내 연습장을 유심히 두리번거리며 보고 있는데, 어머니의 언성이 높아지는 게 들렸다.

“어, 그럼 아이들은 어디서 운동을 하죠? 여기는 방학동안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나요?”

“여기는 동호회로 다니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오셔도 힘들고요, 저기 보세요. 저런 어린 애들은 낄 수 없고, 또 옆에 있어도 위험해요. 웬만하면 안 오시는게 좋아요. 그리고 여긴 배우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다 와서 직접 치시는거죠.”

어머니께서 말하시자 이렇게 어떤 동호회의 여성분이 말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문간 옆에서 치고 있는 여자 아이를 가리켰다. 그런데 이런 말은 ‘우리가 다 쓰니까 오지 마세요.’ 라는 말인 것 같았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

그렇게 말한 여성분은 동호회의 한 사람인 듯, 아까 그 문 앞에서 같은 체육복을 입고 떠들고 있던 사람 중 한 명 이었다.

결국 어머니와 나는 실내 연습장을 나오면서 나는 입이 한 움큼 나와 있었다. 어머니께선 내 기분을 알아채곤 “어머, 웃긴다..... 이 공원은 생활 체육 공원 이라면서 왜 성인들끼리만 동호회를 다 차지하고, 자기가 뭘데 다친다고 하면서 아예 오지말래..... 웃기는 사람들이네~ 엄마가 대신 탁구장 등록해 줄게, 지금 탁구장 가자”

하면서 내 아쉬운 기분을 풀어주셨다. 어머니께서는 또 어머니가 예전에 수영장에 가서 수영장을 한 10년씩 다닌 다른 어른들이 어떻게 수영장에 처음가신 어머니께 수영장 한 쪽 레인에서 텃세를 부렸는지 열심히 설명해 주셨다. 그래도 나는 이런 말씀을 듣고도 도저히 화가 풀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원래 생활체육에 대한 의의가 있다. 이런 모든 공원이 예에 해당 된다. 생활체육이란 용어는 1985년을 기점으로 발생한 국민복지 체육의 새로운 개념이다. 즉, 1985년을 전후로 해서 행정 부처에서 복지사회 실현이라는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민 체육진흥 정책 시행의 추진 내용을 개념화한 것이다. 이에는 모두가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 이와 더불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구성함에 있어서 유념해야 할 사항은 모든 계층의 개인에게 평등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적용이 가능하여야 한다는데 이런 것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 같은 불평등한 배드민턴 연습장인 것 같았다. 이런 것이 어린이를 차별하는 것이 아닐까?

인라인 연습장에는 주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곳에는 초보자, 전문가로 강습이 나뉘져 있어서 배우기도 쉽고 훨씬 재밌었고, 어린이를 상대로 한 것이 많아서 좋았다. 그리고 나는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으로 탁구를 일주일에 두 번씩 배우는데, 학원에 가는 시간보다 훨씬 재밌고 기다려진다. 며칠 전에도 어머니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머니께서는 다른 어머니들과 달리 내가 하고 싶은게 있다면 어머니께서 다 시켜주신다.

나는 새로운 운동, 배드민턴을 배우고 싶었지만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이 없었다. 그리고 내가 어른들 사이에서 방해가 된다는 말에 정말 상처 받고, 어린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느꼈다. 이게 왜 내가 화난 이유다.

모두를 위한 운동에서 왜 어린이는 어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밀리는 걸까. 코트 밖과 문간 사이에서 배드민턴을 치던 여자 아이가 자주 생각이 난다.

그러면서 왜 매일 어린이 현장이니 인권현장이 있는 걸까?

물론 지난번에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을 깬 이용대 형처럼 꼭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운동을 해야 하는 건 아닌데, 나는 정말 운동선수는 아니지만, 운동을 좋아한다.

오늘 아침에도 아파트 정원에서 혼자 줄넘기를 했다. 매일 줄넘기하는 것이 방학동안 내 과제중 하나이다. 오전에는 일주일에 두 번 스쿼시를 모 스포츠센터에 가서 배운다. 오후와 저녁에는 다 학원이다. 무슨 시민을 위한 체육공원이 그럴까? 내가 그 쪽 주민이 아닌 것과는 상관없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

나는 그 시민체육공원 배드민턴 연습장에 초보자를 위한 전용 코트, 아니면 생활체육의 의의를 넘어서지 않고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정해진 시간

과 코트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작년에 내가 수영장에 다니기 위해서 모 시 수영장을 알아 봤을 때도 내가 제일 하고 싶었던 시간인 오전 10시 시간에는 아줌마들만 출입이 된다고 했다. 생각해보니 그때도 어머니께서 그 수영장과 전화로 항의를 하셨다. 그 방학 때 다니기 위해서 했던 모 시 여성회관 수영장인데, 그래서 아줌마 회원들 때문인 것 같다며 어머니께서 수영장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항의를 하셨다. 물론 나도 이로 인해 굉장히 화가 났다. 이런 것이 생활 속에 어린이에 대한 차별인 것 같았다.

그래서 나 박민우는 오늘 어린이 체육 현장을 발표한다.

어린이 체육 현장

첫째, 모든 어린이는 즐겁고 행복하게 어른들과 똑같이 모든 운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여기서 어린이는 0세부터 19세에 해당됨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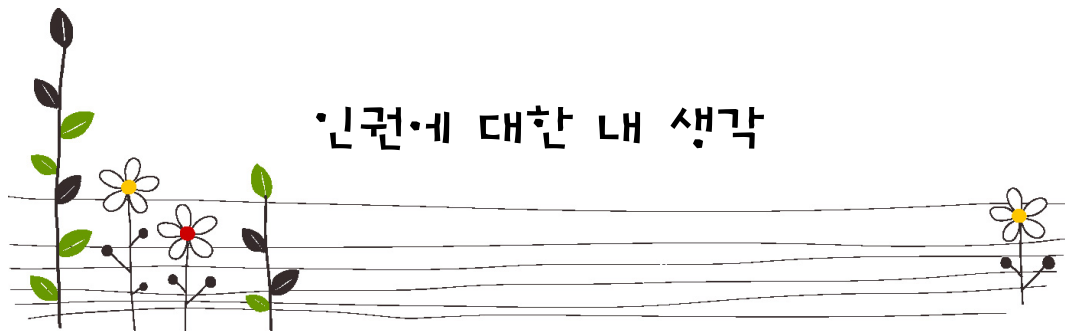
둘째,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과 장소(예를 들어 코트를 사용할 권리)를 명시한다.

셋째, 운동을 잘하던 못하던 그 운동을 전문화 하신 코치 분께 공평하게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넷째, 특히 국립이거나 시립으로 운영하는 공원 및 시설일 경우 위 내용을 필수적으로 지키고,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전용 민원 페이지를 개설해 민원을 신고한다.

다섯째, 운동을 하고 싶지만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운동을 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까 넷째에서 말한 홈페이지를 “신문고”라 하여 어린이들이 소리 낼 수 있게 한다.

여섯째, 이 체육 현장을 지키지 않을 때는 관련 법률/조례/헌법과 이 현장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인권·에 대한 내 생각

광주 금구초등학교 6학년 설수빈

일상생활에서 인권에 대한일은 수도 없이 일어난다. 인권. 인간의 권리,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 같은 것 들. 내 생각 속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나 곳이나 사람은 대부분 노인, 아이, 여자, 군인 등으로 나뉘는 것 같다.

첫째, 노인.

SBS에 긴급출동 SOS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어느날 우연히 보게 된 이야기가 있다. 아버지가 병을 앓고 있다고 집밖에 쇠울타리를 치고 몇 년 동안 그 쇠울타리 안에서 지내게 했다는 것이었다. 인간에 권리 중 '자유'를 박탈당한 예가 아닌가? 노인은 힘이 없다고 해서 인권이 없어야, 없어도 된다는 것인가? 자기가 죽고, 살고는 자신의 선택인데 고려장이라는 풍습은 노인을 죽음마저 선택하지 못하게 했다. 모든 사람이 노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은 아직 많다.

둘째, 아이. 어린이.

이건 나도 겪어보았다. 수없이 많이 식당에 가면 아이까지 포함해서 4명인데 물컵, 물수건은 어른의 수대로만 가져오는 곳이 옛날에는 많았다. 그런것

에 나는 되게 기분 나쁘고 불쾌했다. 요즘에는 그런 곳이 많이 없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인권이 아니라 아예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다. 많은 아이들이 나랑 같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군대.

군대. 남자라면 꼭 한번쯤은 가야하는 곳이다. 그곳도 인권은 찾아 볼 수가 없는 곳 같다. 예전 인분사건만 해도...자유가 없는 그곳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나는 군대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너무 훈련이 혹독하다. 아침마다 상체 탈의를 하고 뛰고 잠도 일찍 깨우고 선임들의 구타나 체벌 등 인권이 보장 되지 않는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야 하지 않는가. 원래 그런 곳이지만, 인권이 좀 지켜지게 했으면 좋겠다.

네 번째, 여자.

무지하게 할말 많다. 왜?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서러워야 하는가? 여자라고 공부 안 시키고 여자라고 왕이 될 수 없고 여자라서 무조건 서방의 뜻을 따라야 하는가, 여자라고 하찮아도 되는가? 옛날 조선시대에는 이랬다. 다른 이유 없다. 여자. 그 이유 단 하나로, 요즘에도 커피심부름 여자에게 시킨다. 여자가 커피 타는 기계인가? 일하러 취직했지 커피 타러 취직했나? 아직까지 여자는 서럽고 또 서러운 존재다. '자유'라는 인권을 박탈당한 옛 여자들. 아직 여자라는 이유로 결혼하면 애 있으니까 승진을 안 시켜주는 회사도 있다한다. 인간의 권리다. 그런데 여자라는 이유로 안 된다는 법은 없다. 사람들의 인식이, 생각이 잘못 된거다. 결국 나쁜 건 사람이다. 귀신보다도 무서운 게 사람이다.

다섯 번째, 학교.

아이의, 청소년의 인권을 뺏는 대표주자 학교다. 학교는 자유와 시간을 빼앗는다. 학생답지 않다고 귀걸이금지, 교복 줄이기 금지, 염색금지, 긴 머리

금지 단지 학생이란 이유만으로 교육청에서 지정하지 않은 고발할 수 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자율학습을 돈까지 받으며 시키고 있다. 학생, 학생, 학생! 이란 이유만으로...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나? 직업인데 왜 선택권이 없나? 원해서 학생 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면 안되는지? 우리는 다~그리고 살았어라구요? 시대 바뀌었어요, 고통을 대물림 하기 싫어요. 학교에서의 자유를 주세요! 인권, 자유를 억압하는 학교. 그런 나라가, 학교가, 세상이 싫다. 우리는 자유가 필요하다.

여섯 번째, 가난.

가난이 죄인가? 죄다. 이 시대에서는 가난하다고 사람 아닌가, 자존심 없는가, 돈 때문에 인권도 침해된다. 특히 돈 없는 거지들이 동냥을 할 때 밥은 안주고 소금뿌리고, 자존심도 버렸것만 인간대우를 안한다. 슬프다. 가난도 포함된 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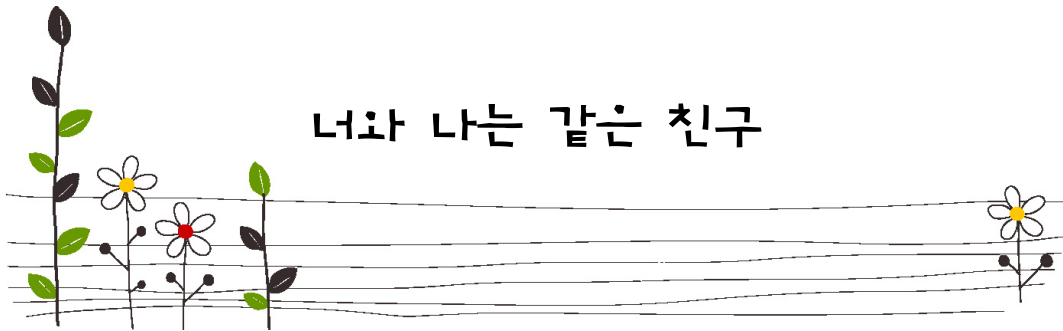
일곱 번째, 계급.

계급. 옛날에도, 지금에도 계속 문제가 된다 생각한다. 조선시대를 보자. 천민을 깔보고 노비를 때리고 노예처럼 부렸다. 그것은 인권을 존중은 무슨 개보다 못한 신세다. 노비는 글 몰라도 되고 맞아도 되고 희롱당해도 된단 말인가. 누가 인권을 마음대로 하는가? 그건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누가 감히 계급을 정하는가? 용도 같은 사람인데 어찌 감히? 계급은 인권을 무너트렸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계급이 있었으니 인권은 옛날엔 존중받지 못하고 하찮게 여겨진 것이다. 그땐 사람에 권리를 생각하는 학자가 없었을까? 있었을거다. 허나 말을 꺼냈다면 인자한 왕이라도 지혜로운 왕이라도 간신들의 모함에 허락지 않을거다. 수십명 아니 수천명일 수도 있을거다.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하고 싶지만 안되는 것을 알기에 가슴에 꼭꼭 눌렀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안쓰러운 뿐이다.

마지막, 외국.

콜럼버스는 현 미국을 찾아냈다. 그는 멋진 탐험가일지 몰라도 원주민들에게 악마 같은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도 좋아하지 않는 위인으로 머리에 박혀있다. 그런데 결국 그 때문에 노예가 생겼다. 흑인들은 노예나 매춘을 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아직 흑인들은 조금씩은 차별 당한다. 그 때문에 인권이, 흑인들의 인권이 땅에 떨어지고 짓밟혔다. 그래서 링컨이 전쟁도 일으켰다. 물론 콜럼버스가 하고 싶어 한일은 아니지만 원망스럽다. 흑인은 노예가 되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았다.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팔리기도 했다. 목화농장에서 일을 고되게하기도 했다. 그들은 인권 따윈 없던거다. 없어지게 만든 건 결국 인간이다. 흑인들에게 한 짓은 정말 치가 떨린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받던 그들이 너무 불쌍하다.

다시 느낀거지만 인간은 정말 무섭다. 앞으로 인권은 일상 속에서 존중받기도 못 받기도 할거다. 앞으로 인권이 짓밟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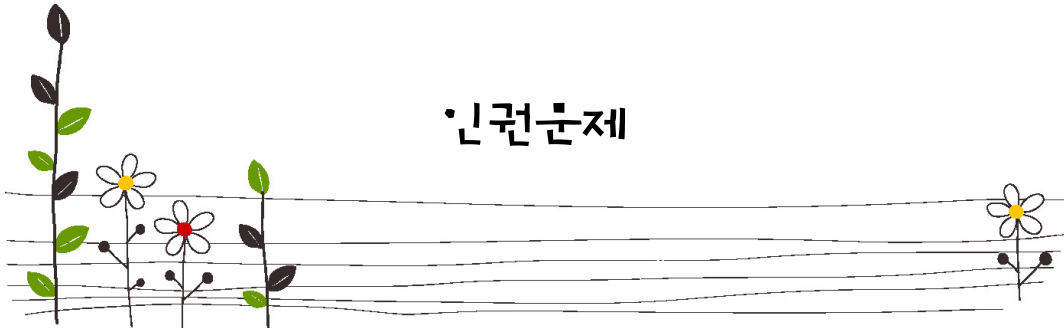


너와 나는 같은 친구

원주 태봉초등학교 3학년 원민재

2학기 반장 선거 때 일어났다. 반장 선거를 했는데 여자가 반장이 되었다. 솔직히 나는 여자가 반장이 된 게 싫었다. 왜냐하면 여자는 힘이 우리보다 약하니까 좀 도움이 안된다. 그래도 반장이니까 반장 말을 따라야 한다. 나는 반장이 여자라도 잘 따르기로 다짐했다. 남자들은 무시하지만 나는 반장을 앞으로 잘 해 줄거다. 나는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반장을 할 수 없다면 너무나 불공평 하기 때문이다. 여자이면서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우리 선생님도 여자지만 공부를 잘 가르쳐 주신다. 어느일이든 남자나 여자가 할 수 있다. 남자는 여자를 도와주고 여자는 남자가 할 수 없는 걸 도와준다. 나는 반장이 힘들때 도와 줄거다. 반장은 내 친구다. 왜냐하면 반장은 우리랑 같은 반 친구이기 때문이다. 같은 반 친구는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나는 여자 친구를 따돌리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놀리지 않는다. 반장과 나는 사이좋은 친구다.

인권문제



인천 서흥초등학교 4학년 김혜인

먼저 인권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인권에 대한 문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첫째, 가족의 인권 문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이 심해지고 아니면 엄마와 아들의 싸움 등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족이 화목해야 되는데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먼저 서로 화해를 하고 가벼운 스킨십을 해야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좋아졌으면 합니다.

둘째, 학교, 학원에서 따돌림, 모욕을 받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 들을 언어폭력, 신체폭력, 아동학대 등이 있습니다. 언어폭력은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하거나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신체폭력은 팔, 머리, 다리로 대리는 것이고 아동학대는 따돌림, 왕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모두들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아동학대를 받고 있는 친구들이 생기면 어른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되지요?

셋째, 장애인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서 더 무시하고, 따돌리고, 때리고……. 우리 주위에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애인을 무시한단 말이죠. 다들 똑같은 사람인데 말입니다.

장애인은 그냥 몸만 불편할 뿐인데 이렇게 장애인들을 무시하면 마음이 옳지 않은 똑같은 장애인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장애인에게 더 친절하게, 편하게, 똑같은 사람처럼 대하여야 합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겠지요?

넷째, 남자 여자 상관 없는 일거리가 많아야 됩니다. 요즘에 버스기사도 d자가 하고, 택시기사도 여자가 하고, 남자가 간호사를 하고…….

옛날보다는 나아졌지만 지금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몰라도 이런 직업에도 남녀 차별 없이 서로 돕는 사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밖에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숙자, 외국인, 노동자, 소년소녀가장 등이 있습니다.

먼저 노숙자는 모두 아시죠?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직업도 없고, 더러운 지하철이나, 길거리 아무 곳에서나 잠을 자고, 식사해결도 잘 못하니 병에 걸리기 쉽고 더럽다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쉽죠.

요즘 민간이나 종교단체에서 숙소도 마련을 하고 무료로 식사도 제공을 하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이런 노숙자들에게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주고 병에 걸렸을 때 제대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노숙자들을 바라볼 때에 차별하지 않고, 상처받을 수 있는 말이나 좋지 않은 시선을 주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어른들이 그러시는데 예전에 이삼십년 전에는 우리 나라에 어른들이 외국에 많이 일을 하러 가셨

다고 합니다. 요즘에 경제 사정이 좋아져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고 있다죠. 대부분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사람들이 일하기 꺼려하는 일들을 한다죠.

그런 사람들 중에는 불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다보니 일하고 돈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일하다가 다쳐도 제대로 치료도 못받는 경우도 많고, 어떤 어른들은 다친 외국인노동자들을 내쫓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런 부당한 대우를 불법 외국인 노동자 뿐 아니라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런 부당을 받는데요. 우리 모두는 그들도 행복할 수 있게 어려움을 도와주거나 인권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소년소녀 가장들의 인권을 생각해 봐요. 우리 주변에는 부모님을 잃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소녀들이 많이 있죠. 이런 소년소녀들을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하는데 이들도 자신들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죠.

이런 노력들은 나라에서 많이 도와주어야 할 것 같아요. 요새는 국가에서 생활비나 의료비를 일정하게 지원해 준다고 하죠. 제 생각에는 소년소녀가장은 일하기 아직 어려서 국가 뿐만이 아니라 이웃들도 많이 도와주어야 할 것 같아요.

참 빼먹었는데 홀로 사시는 노인들의 인권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도 이런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노인들도 나이가 많으셔서 일을 많이 할 수 없죠. 일을 하신다 해도 돈을 많이 버시지는 못해요. 또 아픈 곳도 많으시죠.

이런 분들에게는 나라에서 주는 생활비나 의료비도 중요하지만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서 그 시간에 외롭지 않도록 친구를 해드리거나 목욕, 집안청소 등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할 것 같아요. 또 동

네 주변에 경로당이 있어서 서로 친구도 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취미생활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을 살펴보았는데 인권이라는 건 국가에서 법을 정해놓는 것 보다 더 중요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야 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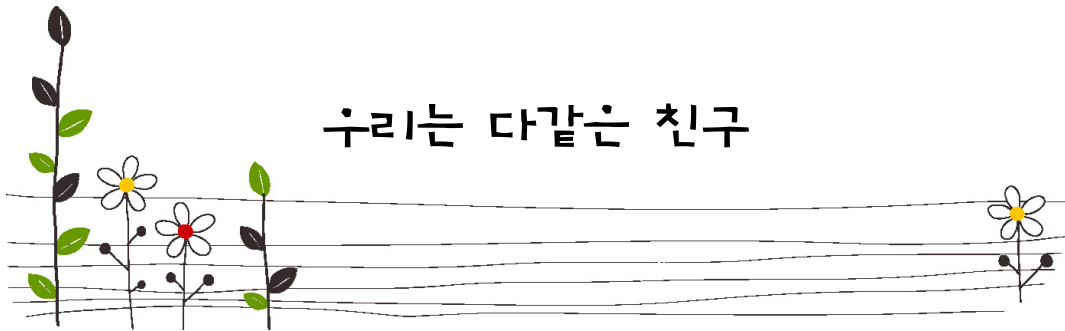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모든 생명은 평등합니다. 누구 생명이 더 소중하고 누구 생명이 덜 소중하진 않죠. 모두 함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둘째, 전쟁이 없어야 합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나라의 모든 시설물이 파괴되고 사람들은 불안하고 행복할 수 없게 됩니다. 일자리도 없어지고 배울 수 있는 학교도 없어지며 살 수 있는 집도 없어집니다. 정말 끔찍하죠. 요즘에도 전쟁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참 부행하죠. 하루 빨리 전쟁이 없는 세상이 되어야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자연은 우리를 참 많이 행복하게 해줍니다. 산에 가서 등산도 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이나 바다에서 더위를 식히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자연이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또 자연을 개발해서 건물을 짓거나 산을 깎아서 골프장을 만들죠. 자연을 이용해서 우리가 잘 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훼손시켜서 결국은 지구 온난화도 생기고 산사태나 홍수, 가뭄 등의 재앙에 결국은 우리가 피해를 입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DL한 노력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로 생각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여야 겠습니다.



인천 서흥초등학교 5학년 이해솔

인권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아직도 인권이란 말이 생소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으로써 당연히 가져야 하는 권리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 나의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되며 내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해치지 않는 이상 나의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나와 피부색이 다른 흑인, 백인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말을 걸어올 때가 있다. 대개 사람들은 겁을 먹거나 질문에 답을 해주지 않고 모른다고만 한다. 상점도 마찬가지이다. 외국인 손님이 들어왔을 때에는 인사도 없고 불친절한 말투와 행동으로 그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게 한다. 학교나 학원처럼 아이들 사이에서도 놀림거리가 된다거나 따돌림을 당하기도 한다. 이처럼 외국인 친구들은 많은 차별을 받고 존중 또한 받지 못하고 있다. 내가 만약 이 외국인 친구들이 되었다면 정말 기분이 나쁠 것이다. 한국인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 갔을 때 우리도 외국인 친구들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또 외국인 친구들이 대단하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인 친구도 평범한 친구들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살색’이라는 말에도 인종차별이 담겨져 있다. 한국 사람에게는 살구색이 살색이 될 것이고, 흑인 친구들에게는 검정색이나 갈색 등이 살색이 될 것이다. 황인 친구들에게는 노란색, 황토색 등이 살색이 되는 것이다. 우리부터라도 먼저 ‘살색’이라는 잘못된 표현을 ‘살구색’이라는 바른 표기법으로 사용하도록 하자.

우리 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있다. 바로 우리학교에 재학 중인 몸이 불편한 장애인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급식을 먹고 오던 때였다. 몸이 불편해 보이는 남자아이 하나를 몇몇 남자아이들이 괴롭히고 있었다. 자신과 다르다고, 이상하다고 차별하거나 미워해서는 안된다. 장애인 친구들은 단지 우리랑 다르게 몸이 조금 불편하고 움직이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지 내가 먼저 다가 가서 말을 걸어주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그 친구들도 내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그 예로는 앞이 잘 보이는 친구의 눈이 되어 주와주기, 걷기 힘든 친구의 다리가 되어 도와주기, 소리가 안들리는 친구들의 귀가 되어 도와주기, 먼저 다가가 말 걸어주기 등등이 있다. 우리 모두 장애인 친구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자.

‘남아 선호 사상’ 지금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남아선호 사상은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 예로는 ‘난 오늘부터 남자다’라는 책에 잘 쓰여 있다. 수지라는 여자아이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다. 남동생은 남자라는 이유로 늘 할머니에게 사랑을 받는다. 하지만 수지는 늘 찬밥신세가 되고 만다. 자신도 사랑을 받고 싶은 수지는 남자가 되기로 결심한다. 머리도 자르고 남자 옷도 입으며 남자다워 지고 싶어 한다. 엄마와 할머니는 수지의 일기장을 우연찮게 보게 되고 일기장에는 수지가 남녀차별 때문에 속상해 했는지 알게 된다. 수지의 마음을 이해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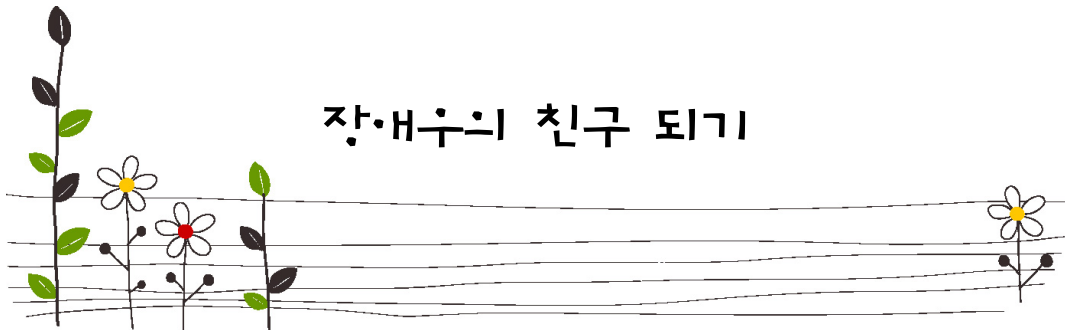
가족들은 수지를 다독여주고 관심을 보여준다. 내가 이 이야기를 읽고 ‘남녀 차별은 가정에서 시작 된다’라는 말에 공감을 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남녀 차별일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여자는 남자가 하는거 하면 안되’ ‘여자는 얌전 해야지’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되’ 등등의 말이 있다. 이런 말들은 주변에서 쉽게 들어볼 수 있다. 나 역시도 이런 말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되돌아본다. 남자와 여자는 겉모습만 다를 뿐 인권까지 다르지 않다.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말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인권은 있다. 우리나라는 요즘 들어 외국인 근로자들과 같이 생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43만 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근로자들이 모두 인권을 보장받고 있다고는 장담하지 못한다. 어떤 근로자는 노동력 착취를 당할 수도 있고 어떤 근로자는 최소임금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런 근로자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어서 일한 만큼 돈을 주고 한국에 와서 일하기 잘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국인 근로자들처럼 대하여 주자.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을 존중하여 주고 인정하여 주면 많은 근로자들이 웃으며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인종차별을 하지 말고 외국인 친구도 평범한 친구들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자. 나의 인권을 존중받는 것처럼 그 친구들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할 권리라 있으므로. ‘살색’이라는 잘못된 표현을 ‘살구색’이라는 올바른 표현으로 바꾸어 쓰자. 우리가 먼저 실현할 때에 인종차별도 점차 없어질 것이다. 몸이 불편한 친구들을 도와주고 이해해주며 존중해주자. 장애인 친구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어야 하므로. 가정에서부터 남자 여자 차별을 하지 말고 똑같이 사랑해주고 대하여 주자. 남자와 여자는 겉모습이 다른 것 뿐, 인권을 존중받아야 할 권리는 같으므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자. 로마

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짜라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국에 왔으면 한국 사람처럼 인권을 존중 받아야 하므로.

서로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여 주고 보호하여 주면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람도 인종차별을 당하는 사람도 남녀차별을 당하는 사람도 없이 행복해 질 것이다. 우리 모두 서로서로를 감싸주고 인권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 되자.



장애우의 친구 되기

고양 용현초등학교 5학년 홍서연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간답게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인권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인권을 잘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장애우들이다. 그들이 우리와 다른 것은 몸의 일부가 불편하거나 유전적으로 뇌에 이상이 있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종종 그들을 구경거리처럼 쳐다보거나 따돌리곤 한다. 장애우들이 인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장애우 문제이다.

일반인이 장애우가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할 수 있는 배려와 세심한 관심,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할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애우들을 이해하기 위해 접할 수 있는 장애우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텔레비전이나 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얼마 전 졸프리드 뢰의 “휠체어 타는 친구”를 읽어 보았다. 이 책은 넬레가 이사를 와 이웃집에 사는 장애우와 친해지면서 장애인들을 이해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주인공 넬레는 장애인 친구의 휠체어를 타 보고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치면서 장애인의 처지를 이해하게 된다. ‘장애우는

우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넬레가 친구들과 뜻을 모아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친구들과 함께 노력하는 장면에서는 몇 가지 느낀 점이 있다. 장애우인 키르스텐은 자신을 잘 도와주는 친구들 덕분에 자신감을 얻게 된다. 이처럼 현실에서도 장애우들은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잘 살수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키르스텐을 일반학교에 다니게 하기 위해 넬레와 아빠 그리고 넬레의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 학교시설들을 바꾸던 과정을 읽으면서 평소 우리들이 얼마나 장애우들에게 소홀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장애우들을 격려하고 위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가짐과 결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게 되었고 같은 반 장애인 친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나 역시 가까운 친구는 아니지만 같은 반 친구로 지체 장애우와 함께 공부하고 있다. 그런데 내 친구들은 모두 멍청하다며 놀리고 더럽다고 멀리하며 따돌리기 일쑤다. 그래서 조금만 박하게 대해도 소리 지르고 자리에서 울며 일어나는 일이 많다. 그때마다 그 친구는 자기가 더럽지 않다는 걸 알리려고 자꾸 울곤 한다. 그리고 매일매일 자신에게 잘해주었던 4학년 친구들을 몹시 그리워한다. 어느 시간에 어느 과목을 하는지 그리고 그 과목에 맞는 책이 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짝인 내가 책을 펴주어야 한다. 친구들이 자주 의자를 차지하기 위해 자리로 오기 때문에 친구들을 말리는 것도 내 몫이다. 어릴 때 몸을 다쳐서 내 지체 장애우 짝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놀림을 받는다. 키르스텐이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던 것 역시 친구들의 놀림과 차별 때문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우리 반 친구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해할 수 있었다.

주위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며 일반인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생각과

시설이 장애우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들인지 알 수 있다. 엘리베이터, 대형 할인마트 등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길에서 장애우들을 위한 시설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엘리베이터 숫자 옆의 점자, 횡단보도 앞의 점자보도는 장애우들을 위한 시설이다.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난 후 지폐에도 점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천 원짜리에는 한개, 오천원권에는 두개, 만원권에는 세개의 점자 표시가 있었다. 시각 장애우들은 그 점들을 만져보고 지폐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우들이 일반인들과 함께 불편 없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은 많이 부족하다.

장애우들을 이해만 해서 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없고 우리에게 뿌듯함도 적다. 장애우들의 처지를 잘 이해하게 되었어도 생활에 변화가 없다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내가 장애우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

가장 먼저 내 주변 장애우들을 잘 도와주어야 한다. 장애인 문제가 사회적 문제라고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장애우 친구를 만나면 청소와 공부를 도와주어야 한다.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으면 장애우 친구 편을 들어서 따돌림을 막아 주어야 한다.

둘째, 장애우용 시설을 대신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백화점이나 공공장소에는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이 있다. 하지만 안에 장애우를 태우고 있지 않은 차가 그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곤 한다. 장애우용 화장실도 마찬가지다. 화장실이 급한데 줄이 너무 길다고 해도 장애우용 화장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장애우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한지 살피고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야 한다.

셋째, 장애우 문제에 대한 관심도 좋지만 지나친 동정심은 피해야한다. 관심을 갖다 보면 쳐다보게 되는 것도 당연한 사람의 습성인데 장애우들은 그 눈길을 창피하고 부끄럽게 여긴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아주 다르다는 생

각을 키워 자신감을 잃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나의 같은 반 장애우 친구도 종종 나에게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 쳐다보아서 창피하다고 말한다. 걸음 걸이가 뒤통뒤통하고 말투가 특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이 매우 싫어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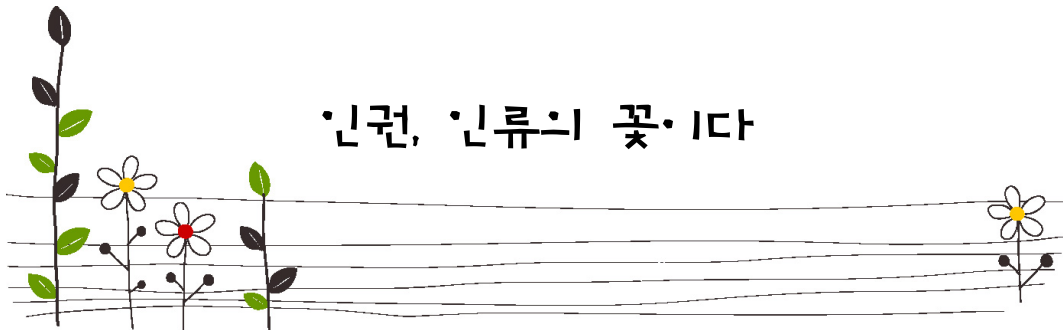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시설은 공공장소를 제외하면 그리 많지 않다. 이것은 사람들이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적게 가졌거나 장애인을 위해 쓰기에는 돈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돈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마 장애인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의문이 생긴다. 장애인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은 길과 공공장소들을 둘러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내가 장애인들의 인권을 잘 생각하려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장애인 문제에 대해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무시하는 마음을 버리며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앞에서 소개한 몇 가지 실천 방법들을 고려해서 행동하면 장애인의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중 등 부 우수



- 인권, 인류의 꽃이다(권예은)
- 학교에서의 인권(김창현)
- 진심어린 마음의 배려가
진정한 인권찾아주기가 아닐까요?(이현민)





인권, 인류의 꽃이다

인천 만성중학교 3학년 권예은

“여보, 이것 좀 버려줘요.”

“아니, 이걸 어떻게 남자가...”

“어때서. 요즘 젊은 남편들은 다 해 준다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면 우리 집 엄마아빠의 대화 모습이다.

그동안 인권이나 남녀차별에 대해 겨우 열여섯 살인 나는 생각해 본 적 없었지만 화장실을 가거나 생리 때가 되면 남자보단 여자로서 조금 번거롭다는 정도는 느낄 수 있었으나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 채 생활하였다. 하지만 인권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나도 여성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여성은 세계노동의 3/2를 담당하며 남성임금의 3/1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남성재산의 100/1에 해당하는 재산을 소유하였다는 것은 오랜 세월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알 수 있는 것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여성도 한 인간으로 누려야 할 인권을 우리사회에 어떻게 확산시키고 정립 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 집의 모습에서 찾는다.

할아버지께서는 ‘안동 권’ 씨이시며 6.25전쟁에 참전하셨고, 유교사상이 확

고하신 분으로 평소에도 매우 엄격하신 분이셨다.

우리 집에는 딸만 있고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빠가 장남이지만 할아버지께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작은 아빠의 막내아들을 우리 집 양자로 호적에 올려놓고 눈을 감겠다고 주장하셨지만 아빠께서는 끝내 할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으셨다.

장남이신 아빠께서 제사를 모신다. 명절이나 제삿날이면 우리 집은 너무 바쁘고 음식을 많이 한다. 하지만 제사를 모실 때에는 고생을 한 딸들인 우리는 뒷전이고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제사를 모시는 남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서글펐다. 그래서 엄마께서 ‘여자의 일생’ 을 즐겨 부르셨나 보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실 무렵 우리들의 손을 꼭 잡으시며

“강 금실 법무부 장관도 여성이고 총리도 여성이다.” 고 하시며

“사랑하는 내 새끼들, 꿈이 뭐고?” 물으셨던 우리 할아버지!

사랑하는 우리들 곁을 떠나셨고 텅 빈 그 자리엔 ‘후회’ 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부모님께서 자영업으로 늘 함께 출퇴근 하신지가 20년이 되셨다. 하지만 아빠께서는 집안일은 전혀 도와주시지 않으신다. 아마도 할아버지를 많이 닮으셨나보다. 그런데 올 여름, 엄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두 달을 입원하셨고 모든 집안일을 아빠께서 하셔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오시던 중에 이웃 아주머니를 만나셨던 모양이다. 그 후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일은 내 차지가 되어버렸다. 그 이유는 두 달 내내 엄마 모습은 보이지 않고 아빠가 음식물 버리는 모습을 보신 아주머니들 사이에서는 부모님이 이혼하신 것으로 생각하신 것이다. 현재는 음식물 처리 기계가 바쁜 나를 대신해 주고 있다.

이처럼 살아 온 여성들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나는 여자도 남자와 똑같은 인권 즉 같은 사람으로서 권리를 인정받고 싶

고 그 인권을 실천하기 위해 고민해 보았다.

남녀차별에 대한 의식전환이다.

여성 스스로 적극적인 자기능력개발에 힘쓰므로 자신감과 책임 있는 자세, 남성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그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평등교육과 여성도 한 인격체로서 보는 노력이 필요하고 여성은 외모와 성적인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1세기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법과 관습의 차별이 엄연히 있다. 그래서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는 필수적이며 활용 방안을 창출해야 한다.

다양한 여성 복지기반 확충이다.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이 자유로워야 하며 특히 미혼모시설과 성매매여성의 사회복지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문화 활동에 지원이 필요하다.

그동안 여자라는 이유로 묻어둔 재능과 능력을 펼치기 위하여 정치참여나 공직에 진출하고 여성의 정신적 건강을 위하여 문화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즉 여성이 건강해야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 사회가 함께 건강하다.

새로운 시대적 정신은 통합과 화합이다. 그동안 유교적 사상으로 가정에서의 여성의 위치는 그저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양육이었다면 지금은 모든 일에 협력과 화합을 필요로 하는 시대로 발전하였다.

‘암탉이 울면 집이 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암탉이 울면 알이 나온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며 남성도 남자라는 이유로 무거운 짐만 생각하지 말고 반쪽의 여성과 더불어 반쪽을 얻음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바로 지구의 반은 남성이고 지구의 반은 여성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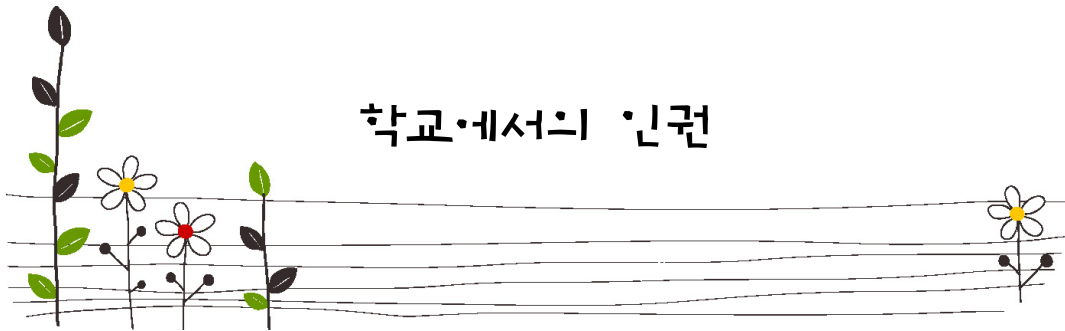
나는 이 글을 쓰면서 여성의 인권만 주장하지 않은지 뒤 돌아 본다. 남성들은 많이 억울할 것 같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동안 누려온 ‘특권’을 빼앗겼

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동안 힘없는 여성의 인권을 바로 힘 있는 남성이 빼앗아 가버린 것 같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아닌 여성과 남성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이 인권의 출발이다. 특히 오늘 날 핵가족에서 남자위주의 문화에서 이 시대에 적합한 가정교육, 사회적 규범도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나도 여성으로서 보다 진취적으로 공부할 것이며 한 인격체로서 적극적인 새로운 인권에 관심을 가진다. 그 교육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남녀 동반자적 생각에서 출발해야 '인권'이란 걸 완성 할 수 있다.

인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지만 분명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인권. 우리가 가꾸어야 할 인류 최고의 꽃이다.



학교에서의 인권

부산 내성중학교 3학년 김창현

미국에서 잠시 살았던 초등학교 때, 미국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해 줄 기회가 있었다. 여러 이야기 중 학교생활과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차별이 있으며 중학생부터 교복을 입고 두발규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친구들은 놀랍다는 표정을 지었었고 선생님은 "아직도 문명화되지 않은 교육이 일어나는 곳들도 많다"라고 하셨다. '문명화되지 않다'라는 말이 '야만'이나 '미개'와 같은 뜻이라는 것을 안 것은 몇 년 뒤였다.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한지 정확히 60년 이 되는 해, 우리학교는 '인권시범학교'로 지정되었다. 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인권 향상에 힘을 쓰라는 취지에서 선정된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시범운영이다. 인권시범학교로 지정된 후 선생님들은 인권과 관련된 수업을 많이 하시고 교칙 전반에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등 많은 변화가 생겼다. 적어도 작년까지는 학교에선 기분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 같았다.

3학년이 된 올해 초, 아침 자습시간에 갑자기 방송이 나오면서 이제까지 늘 등교를 위해 개방하던 뒷문을 폐쇄한다고 했다. 이유는 학교폭력의 예방이었다. 그때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다.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황

당함이 느껴졌고 정말로 이렇게 갑자기 뒷문을 폐쇄할까라는 의구심도 생겼다.

그 다음날 등교하니 정말로 뒷문은 굳게 닫혀있었고 뒷문으로 등교하지 못하도록 선도부원들이 지키고 있었다. 앞문 역시 폭이 2미터가 안 되는 작은 문으로만 들어오게 되어있어, 마치 금속탐지기를 지나 몸수색을 받는 기분을 느껴야 했다.

뒷문이 닫힌 후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학교의 일방적인 결정의 부당성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졌고 담을 넘는 학생들도 늘어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침 등교시간에만 뒷문을 닫았다는 것이다. 결국 아침 교문지도를 위한 것이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학생들은 뒷문이 일방적으로 폐쇄된 것의 부당성을 주장했고, 선생님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학교 측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거나 결국은 다수인 우리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다.

여름에 접어들 무렵, 학교는 학생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결국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설문조사를 한 결과, 뒷문 통학생이 더 많았고 뒷문 폐쇄의 이유를 알고 있는 학생들은 절반에 못 미쳤다. 일부 선생님들께서도 일방적인 뒷문 폐쇄를 못마땅해 하셨다. 결국 토론 날짜가 잡혔고 토론에 참가할 학생들은 나름대로 토론 전에 논의를 거치고 열심히 자료를 준비하였다. 나는 토론 참가자 중 한명으로써, 선생님들과의 토론이 기대되기도 했지만 권위적인 일부 선생님들과 토론이 가능할 지 걱정도 되었다.

드디어 방학을 앞둔 월요일 방과 후에 토론회가 열렸다.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근거로 뒷문을 열 수 없다는 주장들을 펼치셨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처음 뒷문 폐쇄의 이유로 든 학교폭력은 다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등교가 앞문 뒷문에서 다 된다면 아침 교문지도 인력이 부족하여 학생들의 지도가 어렵고, 교통안전의 문제 역시 중요한 이유라고 하셨다.

학생들 측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뒷문 폐쇄가 학생들의 의견도 전혀 듣지 않은 일방적 조치였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뒷문 폐쇄의 이유를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뒷문 폐쇄로 인해 교문지도가 너무 심해져서 많이 불편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인력 부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사실 뒷문을 개방했던 작년에 교문지도는 선생님 두 분께서 앞뒷문을 다 하셨다. 뒷문을 통해 등교하는 학생이 앞문 통학생들보다 많다는 것을 역설하기도 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근거는 뒷문을 폐쇄하자는 선생님들의 측에서 더 많이 나온 것 같다. 그러나 인권시범학교로서 학생의 권리를 더욱 보장받길 기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게 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대해 결국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토론 참가자로서 토론에 아쉬운 점이 많았다. 사실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들께서 토론에 적합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셨고, 학생들을 함께 토론하는 '토론자'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미성숙하고, 가르쳐야만 하는 '학생'으로 보고 훈계하는 마음으로 참가하신 것 같았다.

한 선생님께서 우리학교가 "선생님들이 출근하고 싶은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학생이 등교하고 싶은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우리의 마음과 정말 비슷하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예전에 비해 등교하고 싶지 않은 학교가 되었다. 또한 토론을 함으로써 무언가 꼭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말씀은 토론자 모두에 대한 모욕으로 느껴져 무척 화가 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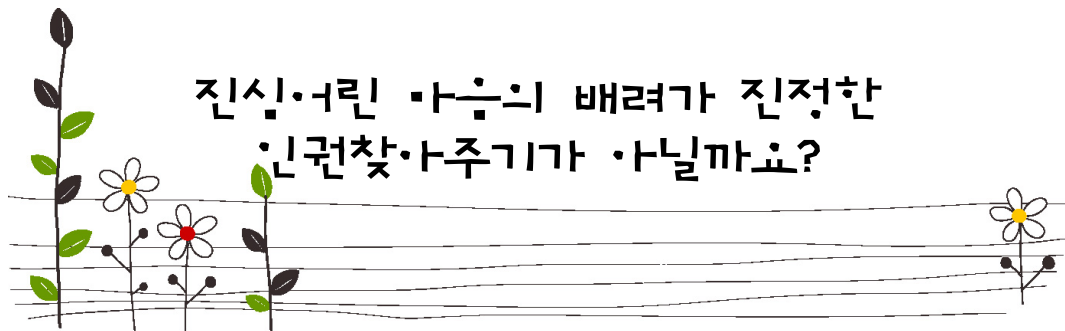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듯이,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따라서 학생이 주체적인 자리에 서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회의 등을 진지하게 진행하면서 학생의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학생회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선생님들이 은근히 주시는 압박 때문에 우

리가 정말 원하는 것에 대한 의견조차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토론 며칠 후 방학을 맞았고 새 학기가 되어 학교에 돌아왔지만, 딱히 달라진 것은 없다. 오히려 동네 주민들의 불편함 호소를 이유로 뒷문 쪽 담장을 더욱 튼튼하고 높게 쌓았다. 평소 뒷문 통제에 대한 불만이 커서 그런지 마치 학교 더욱 감옥처럼 보였다. 이젠 학생들도 지쳤는지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는다.

인권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인간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이며, 그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있다.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무시당하지 않는 권리도 있으며, 구체적으로 학생의 권리인 학생권도 있다. 인권시범학교로 지정이 되면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이 더 잘 지켜질 것이라 기대했다. 그래서인지 일방적으로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한 것이 대해서 실망이 너무나 컸다. 교문의 '인권시범학교' 팻말이 장식용이 아니라 유엔 세계인권선언 30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당당한 '인권시범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렇게 나의 인권의식이 높아진 것도 모두 작년 1년 동안 받았던 학교의 인권교육 덕분이다. 그나마 늦게라도 토론회가 열린 것 역시 우리학교가 시범학교였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실천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 선생님들의 인권의식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고 학생들도 좀 더 자신의 권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할 수 있길 바란다. 나아가 인권시범에 관계없이 학교란 곳이 인권 친화적으로 변하여 학생도, 선생님도 모두 “오고 싶은 학교”가 되길 바라본다.



수내중학교 1학년 이현민

토론대회준비를 위해 오바마 이야기와 완득이라는 책을 접하면서 인권이라는 말을 접하게 되었다. 책을 통해서 다문화 가정이나 장애인, 불법 이주노동자등 주어진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하거나 어려운 많은 이들에게 인권이라는 말은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권에세이를 쓰기로 마음먹고 홈페이지를 보던중 '날아라 펭귄'이라는 영화를 알게되어 친구네 가족과 우리 가족은 다같이 '날아라 펭귄'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었다. 이 영화를 통해 인권이란 너무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바로 나의 문제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내가 자라면서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될 때까지 계속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인권이라는 것을 말이다. 지금까지 인권이라는 말을 거창하고 평범한 사람들과는 별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를 도와주어야 할때 찾아주어야할 권리로만 생각 했던 나를 새롭게 생각에 전환을 가져다준 영화였다. 이영화는 날개를 가지고 있음에도, 날지 못하는 새 '펭귄'이 들어있는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은 영화였다. 새지만 '날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할수 있는 펭귄이 그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있는 통쾌함을 느낄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영화를 보게 되었다. 이 영화에서는 극히

평범한 우리네 일상이 들어있는 한정된 사회가 배경이다. 인력자원만이 나라 경쟁력인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선행과 입시에 찌든 초,중,고 학생들, 일반 사람들과 식습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는 사람, 여자가 담배를 핀다는 것을 색안경을 끼고 비난하는 남자들로부터 곱지않은 시선을 받는 여직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로 자신을 잊고 살았던 할머니,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희생하는 기러기 아빠와 엄마등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의 삶에대해 다시 생각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우리 옆집 이웃들중, 아니면 친척중에, 아님 지금 자신의 모습을 대변하는듯한 보통사람들의 일상모습을 통해 무디어졌던 마음에 자극을 주는 영화였다. 날지 못하는 펭귄은 물 속에 들어가면 어떤 새보다도 빠르게 이동해 다닐수 있듯이 작은 생각의 변화와 이해와 배려를 통해 탈출구를 향해 조금씩 걸어가는 모습을 어렵פות이나마 보여주며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며 영화가 끝나게 된다. 특히 공감이 가는부분은 기러기 아빠의 외로움이었다. 내가 잘 아는 아빠의 선배님중에 현재 기러기 아빠로 지내시는 분이 계시다. 워낙 어렸을때부터 함께 여행 다니던 가족들이라 매우 친숙하다. 최근들어 가끔 아저씨를 만날때면 너무 외로워 보이시고 예전같은 재미있는 개그를 보여주시를 못하신다. 마음이 지쳐 있으니 당연히 유머가 사라진 것이다. 영화보면서 아저씨 생각에 영화속에 기러기 아빠가 우는 장면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거창한 것이 아닌 일상의 삶속에서 접하는 내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의 모습을 다르다는 이유로 나쁘다고 보지 않고 그 입장에서 이해해주며 각 개인을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토론 대회 준비를 하면서 읽었던 ‘버락오바마’ 책을 읽다보면 버락 오바마는 흑인 혼혈로서 어릴 적 살았던 인도네시아와 하와이에서도 그의 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을 포함해 많은 이들로부터 생활전반에 걸쳐 인종차별을 받고 자랐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가 살고 있었던 미국 땅에서는 ‘멜팅 팻’이란

말로 표현될만큼 많은 인종들이 섞여 살고 있기에 버락 오바마가 지나간 인종차별역사 속에서도 미국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일이 일어나기도 한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미국과는 정반대로, 무엇이든지 ‘한민족’을 앞세웠다. 예전 조선시대에는 오죽하면 전쟁 때 잡혀갔다 아기를 낳고 온 사람들을 ‘화냥년’이라 부르며 천대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아니면 그들과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에게 까지도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소설 ‘완득이’에서는 한국인인 아버지와,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어머니 사이에서 나온 코시안(동남아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 혼혈인인 완득이가 이소설의 주인공이다. 완득이의 아버지께서는 키가 작아 장애인 취급을 당하고, 외국에서 결혼을 하러 한국까지 오신 어머니는 다문화가정의 어려움과 이주노동자로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또한 함께 살고 있는 장애인 삼촌은 장애인으로서 사회생활의 여러부문에서 차별을 받고 생활한다. 그리고, 불법체류자이면서 외국인 노동자인 핫산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기 꺼리는 3D업종의 일을하며 많은 불이익을 겪는다. 사회의 소외계층인 장애인아버지를 모신 다문화 가정 완득이는 또한 빈곤에도 시달릴 수밖에 없다. 완득이라는 소설을 통해 사회전반에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모든 계층을 만날 수 있다. 책을 읽는 내내 가슴에 돌을 얹혀놓은 듯 마음이 무겁고 부분 부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 내렸다. 세상은 예전과는 다른속도로 달라지고 있다. 국제결혼이 10%를 넘어 서고 있다고 하고 특히 농촌의 경우 절반이 넘는데도 많다고 한다. 빠른 시일내에 다음세대의 많은수가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게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가끔 도서관이나 수련관등의 공공시설에서 하는 프로그램중에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났다. 하지만 그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조금 아쉬움과 이견 아닌데 하는 생각도 든다.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거나 한국생활에 적응해 나갈수 있

는 기술적인 교육은 그들만이 받아도 되겠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또 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일반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일반사람들이 인식의 변화해서 그들을 평범하게 인정해주고 생활속에 함께 갈수 있어야 많은 문제도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영화에서처럼.....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서 생활할 일반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고 스스로 없어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차별도 해결될거라 생각한다. 그러하기에 작은 부분에서라도 일상생활에서 그들과 거리낌 없이 생활할수 있도록 생각을 바꿀수 있는 교육을 함께 받을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그들이 받아 들이기만을 강요할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도 우리 안에서 받아들여서 함께 자연스럽게 소통할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언젠가 신문사설에서 읽고 신문일기를 썼던 기억이 난다. 한쪽의 우월성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이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절대 공감한다. 또한 절대 피해야 할 행동이 또 있다.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사들이 겉으로만 생색내고 가식적으로 동정심으로 일시적으로 주는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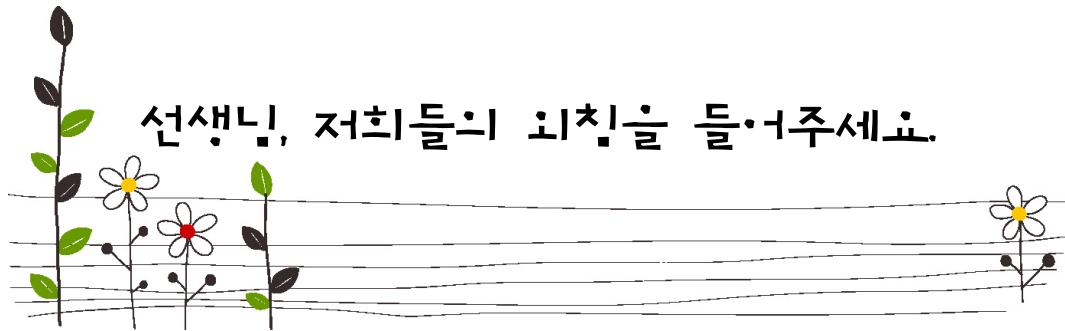
진정한 나의 이웃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날지 못하는 펭귄은 하늘에서는 부족한 소수 하지만 물속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빠른 계층이 된다. 이처럼 다른 환경속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인정하고 배려해준다면 조금더 따뜻한 사회가 되고 나 자신의 권리도 인정 받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중 등 부 장 려



- 선생님, 저희들의 외침을 들어주세요.(김소연)
- 밥을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던가?(김현정)
- 그래서 가족인가 봐요!(선예은)
- 힘없는 자, 아픈 자까지 비추는 인권(이성민)
- 슈퍼 아저씨의 진정한 사랑(문원영)
- 장애우와 함께하는 학교생활(진승혁)





선생님, 저희들의 외침을 들어주세요.

부천 증원중학교 2학년 김소연

“거기! 너, 잠시만 서봐.”

“네?”

“너, 머리가 긴 것 같은데?”

“네? 저 얼마 전에도 잘랐었는데요?”

“아닌 것 같은데? 잘라서 검사 맡으러 와!”

아침에 등교하면 항상 정문에는 학생부선생님과 선도부 몇 명이 어찌 보면 학생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모습으로 서 있곤 한다. 위의 대화와 같이 머리길이가 길거나 머리 및 복장이 단정치 않은 학생을 하나둘씩 단속하여 잡는다. 이렇게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규정을 만들어 학생들로 하여금 머리 및 복장을 바르게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납득할만한 이유의 충분한 설명 없이 강제적으로 학생의 머리를 자르게 하는 것과 옷을 각자가 원하는 대로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학교생활규정을 만들면서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표면적 이유는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는 것인데, 근본적으로는 결국 학교의 명예 때문에 학

생들이 원치 않는 것을 강요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다. 물론 파마나 염색과 같은 정도에서는 학교에서 머리 및 복장에 대해 규범은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머리길이나 심한 경우만 제외하고는 자기 신체에 관한 것들은 자신이 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예전부터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이 파마나 염색을 하는 것에 대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따가운 눈초리를 받음으로써 학교 명예에 손상이 갈 수 있지만, 머리길이의 경우에는 너무 길다고 눈초리를 보내는 경우는 드문데 왜 학교에서 그리 단속하는지 많은 학생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학생은 학생답게 머리를 잘라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무엇이 학생답고 무엇이 학생답지 않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을뿐더러 학생을 잡을 때, ‘너, 너, 그리고 너 일루와’ 이런 식으로 잡아내곤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는 주관적인 기준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정하지 않다. 예를 들어 자신과 친구의 머리길이는 비슷한데 ‘재는 안 걸리고 난 걸렸다’라면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그리고 어떤 학교의 경우 캐릭터 양말을 신었기 때문에, 가방이 너무 화려해서 학생답지 못하기 때문에, 와이셔츠가 교복 밖으로 나왔다거나 머리모양이 단정하지 않다는 너무나 어이없는 이유로 훈계를 한다. 학교는 왜 학생들의 양말, 가방, 머리모양까지 간섭하고 제한을 가하는지 나는 아직도 그 타당성을 모르겠다. ‘긴 머리길이는 학생답지 않고 공부에 방해된다.’라는 학교의 계속된 주장은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 오히려 머리를 자르라고 강요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스트레스며, 또 큰 부담이 되어 반항심을 일으킬 수 있고 그것이 성적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울산 동구청소년지원센터에 따르면 관내 초등 6학년과 중 고교생 1,0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학교문제라고 한다. 가정, 이성친구의 문제도 큰 원인이지만, 학교에서 일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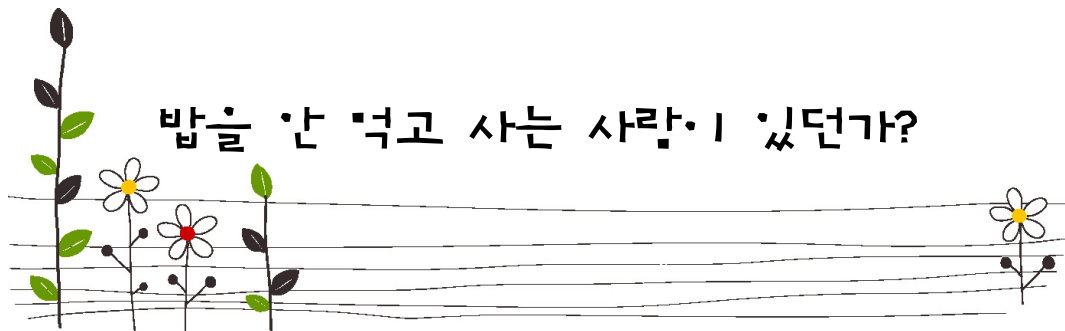
나는 여러 가지의 일들에 비하면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학교문제 중 교사의 차별대우, 학교의 지나친 제재, 두발단속과 성적이 청소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고 밝혀졌다. 또한, 학교에서 두발 불량을 이유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는 설문에는 중학생은 28.8%가, 고등학생은 24.8%가 '있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70% 정도가 소지품, 두발, 복장검사가 교육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에서 가장 먼저 바뀌었으면 하는 것으로 두발자유 허용이 중학생, 고등학생 각각 거의 50%로 조사됐다고 한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아,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인권이 과연 보장받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를 보면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이에 어긋나는 일이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두발단속 및 복장단속 뿐만이 아니다. 불합리한 체벌이 더 심각한 문제이다. 몇 달 전 뉴스에 보도된 사건이다. 어떤 여고의 선생님이 쪽지시험 성적이 나쁜 여학생에게 치마를 벗도록 한 벌칙을 주었다고 한다. 이 사건은 큰 물의를 빚고 전국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분노를 샀다. 세계인권선언 제5조를 보면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명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체벌은 청소년기에 있는 여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모욕적이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느 중학교의 경우 의무적으로 방과 후 활동을 하도록 하여서 자신이 선택한 활동을 들어야 한다고 한다. 방과 후 활동은 학생들의 적성을 끌어내고 학업성적도 끌어올려 주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이지 않고 강제적인 방과 후 활동이 과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방과 후 활동이 없다고 하여도 오랜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이 짧지 않은 시간을 학교에서 더 보내게 된다면 그 스트레스

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학생들이 숙제할 시간도 줄어들뿐더러, 가족과 함께 할 시간마저 줄어들게 될 것이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으로 시행된 것이라곤 하지만, 학생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또 다른 문제도 있다. 방과 후 활동이 사교육 근절을 위해 실행되고 있는데,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학생들의 배우려는 열의가 부족하여 그 효과가 저조하다. 학생들은 결국 학원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학생들이 방과 후 학교를 마치고 바로 학원 수업시간이 시작되다 보니 밥도 챙겨 먹지 못하고 또다시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체력을 학교에서 모두 소진하고 식사도 하지 못하고 듣는 학원 수업이 귀에 들어올 리 있을까?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니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많이 배우지 못하게 된다.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함과 동시에, 방과 후 활동의 본 목적인 사교육 단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방과 후 활동을 선택해서 듣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은 꽤 오래전부터 이슈화되었다. 'M' 사의 유명한 프로그램에서 ‘0교시 폐지’ 캠페인을 추진한 데 더하여 이후 학생들의 인권보장을 지향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일었다. 그러나 아직도 버젓이 학생들의 인권침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아직까지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사회의 풍토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과 학교 그리고 정부가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야만 ‘인권선진국’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불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인권 선진국’으로 불려서,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기를, 대한민국의 학생 중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그려본다.



밥을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던가?

신능중학교 2학년 김현정

우리 주위에는 집이나 돌봐줄 가족이 없어 양로원이나 고아원 등 여러 보호소에 맡겨져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요즘 사회 현상들이 개인 이기주의, 물질 만능 주의 쪽으로 흘러가서 그런 것인가.... 나이 많은 노부모를 양로원에다 맡기거나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장애가 있거나 키우기 어렵게 되면 무조건 고아원에 맡겨 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사실 이런 일은 당사자나 관계자가 아니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현실들이다. 우리나라 안에 이런 보호 시설은 한정 되어 있는데 사람 수는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론, 그 시설들의 사정이 매우 열악해 질 수 밖에 없다. 나라에서 지원 해 줄 수 있는 돈도 한정 되어있으니 그 돈으로 먹고 살아가던 그들의 식탁에는 반찬 가지 수가 줄어들고 밥의 양도 줄고, 편히 잠을 잘 수도 없을 것이 아닌가.

이 정도까지는 누구나 생각해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것을 직접 보게 되었다. 부끄럽지만 학교 내신 성적에 있는 봉사 점수를 채우기 위하여 양로원을 찾아 갔다. 나는 처음 그 곳에 갔을 때 놀람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작은 크기의 깍두기 2알, 소량의 밥, 부서진 고기 두 점, 건더기 없이 국물만 잔뜩 있는 조미료 국.’

이것이 바로 그곳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한 끼 식사였다. 그 때, 마침 내가 부엌일을 맡게 되어 배식을 도와주게 되었다. 아무렇지 않게 깍두기 여섯 알 정도와 고기 적당량을 식판에 담았다. 그랬더니 부엌 관리 아주머니께서 호통을 치시며, “지금 뭐하는 거야! 그렇게 많이 담으면 어떡해!”

라고 하시는데 아니던가. 혹시나 내가 많이 담았나 싶어 식판을 아무리 훑어져라 보아도 내가 담은 양은 결코 많은 양은 아니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 서있자, 내가 들고 있던 도구를 가져가시더니 담았던 식판에서 도로 빼서 분배를 하시는데 아니던가!

‘아! 원래 노인 분들께선 저렇게 조금 드시는구나!’라고 생각했던 나는 대수롭게 넘기고 뒷정리를 하는 중에 부엌으로 식판을 들고 달려오시며 밥을 조금만 더 달라고 애원하시는 할머니를 보게 되었다. 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밥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그 때 아주머니께서 오시더니 말씀하셨다. 그 말은 내게 세상에서 가장 차갑게 들렸다. 남극의 만년빙도 그리 차진 않으리. 너무도 짧고 단호했다. “없어.” 단 이 한마디를 한 뒤 본인 식사를 하려고 부엌 뒤로 들어가 버리셨다. 난 그 때의 그 할머니의 표정을 잊지 못한다. 안쓰러움과 한탄이 밀려왔다. 하지만 나는 어찌 할 도리가 없었기에 아주머니를 따라 부엌 뒤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계속 뒤가 돌아봐지는 이유를 나도 알 수 없었다. 난 부엌 뒤의 식탁을 보고 할머니들께서 드시는 식단을 보고 놀랐을 때보다 백배, 아니 천배, 아니다. 놀라고 말았다. 정말 입이 딱 벌어진다는 말은 이럴 때나 쓰는 것이리라. 노인 30명 정도가 드시는 고기양의 두 배 가량 정도 되는 고기를 겨우 네 명에서 훨씬 많은 가짓수의 반찬과 먹고 있었던 것이었다. 국도 노인들이 드신 국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으니….

자신들 보다 나이가 곱절 정도나 많으신 분들에게 불손하게 대하는 태도며 식사에 있어서 차별된 식단들... 도대체 뭐하러 이런 기관들이 있는지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다. 정말 너무들 한다 싶었다.

거기 계시는 할머니 중 한 분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셨다. “내가 살던 때에는 여자들은 공부를 안 시켰어. 그래도 나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려고 노력했는데도 공부를 못했지. 공부하려고 하니까 전쟁이 터져서 피난이나 가야할 상황이었고... 음... 그때가 아마 딱 너희 만날 때 었을거야. 너희들은 그렇지 않잖아? 공부 안시켜주지도 않고 전쟁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나도 머리 좋다는 말 많이 들었어, 한때는. 나도 공부했으면 지금 여기서 살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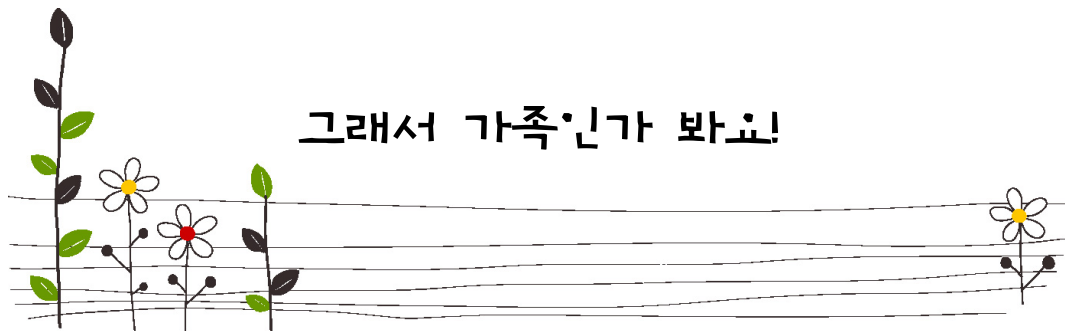
말을 끝까지 잊지 못하셨다. 살아온 세월을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한 할머니의 얼굴에 있는 주름들이 모든 걸 알려주는 듯 했다. 그 닳은 얼굴의 두 눈에는 눈물이 이슬 처럼 매달려 있었다. 눈물을 참 투명했다. 거짓이 없는 그런 눈물이랄까. 진솔해보였다. 가슴이 그냥 아팠다. 이 곳의 관리인들은 알까. 이 곳에 계신 분들.. 이렇게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그저 고마워 가만히 계시지만 힘이 부족하여 그저 참고만 계신다는 걸 알고 있거나 할까. 학교 내신 성적 때문에 봉사를 왔다는게 너무도 부끄러워지는 하루였다. 의문도 생겼다. 봉사는 아무 것도 바라지 않는 그런 바른 마음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인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와서 불손하고 통명스럽게 하고 가는 것은 봉사의 의미가 없다. 과연 학교의 의무봉사는 옳은 것인가.

내가 그 곳에 봉사를 갈때면 거기 계신 어떤 할머니는 눈물 고인 눈빛으로 나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매달리신다. 그럴때면 너무 가슴이 아려오지만 나로선 어쩔 수 없지 않은가. 나도 무언가 해드리고 싶지만 어찌 할 수 없는 답답함과 함께 울컥하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거스를 수 없는 삶의 이치가 있다. 갓난아기로 태어나 늙은 노인이 되어 삶을 마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린아기 일 때가 있고 청소

년 일 때가 있고 어른이 되고 그리고 노인이 된다. 그렇기에, 나쁜 사람이던, 착한 사람이던, 이 과정은 하나같이 같아서 사람은 누구나 평등한 존재임은 거짓이 없다. 겉모습과 그 삶의 내용이 다를 뿐 걸 테두리는 같다는 것이다. 인간의 권리는 평등에서부터 비롯된다. 힘이 세든, 약하든, 나이가 많은 적든 간에 말이다. 우리가 인간임은 변하지 않지 않던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배고픔, 아픔, 기쁨, 슬픔을 느낀다. 밥을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던가? 꼬집어도 아픔을 못느끼는 사람이 있던가? 우리 이 모든 걸 하나의 느낌으로 같은 느낌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양로원의 관리인들도 언젠간 반드시 노인이 됨은 틀림없다. 나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타인의 권리를 먼저 알아준다면 타인도 나의 권리를 알려주어 서로 서로 먼저, 먼저 나아가는 깨끗한 인권 사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 거스를 수 없는 같은 삶의 이치를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래서 가족인가 봐요!

진상중학교 3학년 선예은

중간고사를 며칠 앞두고 방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셔서 뭐라고 중얼중얼하시며 안절부절 못하신다.

늘상 있던 일이라 아무렇지 않는 듯이

“할머니, 뭐 필요하신 것 있으세요? 엄마가 안보여서 그래요? 잠깐만요. 엄마 불러드릴게요”

하며 엄마를 부르러 거실로 나갔는데 엄마는 마늘을 까다말고 한손엔 마늘을 다른 한손엔 위험한 과도를 든 채 꾸벅꾸벅 졸고 계신다.

엄마가 유일하게 보시는 9시 뉴스 하려면 아직 한참이나 남았는데 목을 가누지도 못하고 고개를 늘어뜨린 채 연방 졸고 계시는 엄마를 보니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핑 돌았다.

오늘도 철없는 아기가 되어버린 할머니 곁에서 얼마나 종종걸음을 치며 고단한 하루를 보내셨을지 애써 짐작하고도 남기 때문이다.

할머니가 주무셔야 비로소 엄마의 힘든 하루가 끝이 날 텐데 할머니는 아직도 초롱초롱하시고 엄마만 소금에 폭 절인 배추 잎처럼 사그라져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우리 가족은 조금 특별하다. 치매를 앓고 계시는 할머니랑 같이 살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셨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1년 만에 치매가 생겨 도저히 혼자 사실 수 없게 되자 2년 전부터 우리가족이랑 같이 살게 되었다. 처음에는 증상이 약해서 기억만 조금 오락가락 할 뿐 그런대로 괜찮았었는데 작년부터는 증세가 점점 심해지시더니 급기야 요즘에는 가족도 잘 못 알아보시고 대소변 실수도 잦으시다.

하루에도 몇 번씩 속옷을 적시기 때문에 엄마는 하루 종일 손빨래를 하시느라 요즘은 손목이 시큰거리고 저려서 밤에 잠도 잘 못 이루신다.

손목에 파스를 붙이시는 날이 갈수록 많아져서 걱정이다. 그토록 자식, 손자들을 사랑하시고 유난히 깔끔하셨던 할머니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는지 처음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갑자기 달라진 우리 집 환경이 낯설고 싫어서 솔직히 할머니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다.

어쩌다, 가끔 어쩌다 할머니 정신이 온전히 돌아 올 때면

“에미야, 니가 고생헌다. 내가 어서 죽어야 니가 고생 안 할건데 모진 것이 목숨이라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니 고생시켜서 어쩐다냐.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여”

하시며 눈물을 쏟곤 하신다.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인권동화 ‘방안에 갇힌 곱단 할머니’편을 읽고 우리 집과 너무나 흡사해서 감정이 복 받혀 눈물이 났었다.

동병상련이라더니 그 아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갔다.

누구보다 환자이신 할머니가 가장 힘드시겠지만 그것을 지켜보고 수발을 들어야 하는 남은 가족들의 고통도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노인성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어쩔 수 없이 감금하게 된 아들의 얘기는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아들이 나빠서라기보다는 한계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마지막 수단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직접 모시지 않은 두 딸

들은 어찌다가 한번 씩 들여다보고서는 어머니만 불쌍하고 그렇게 방치하는 오빠가 한없이 밍고 원망스럽겠지만 내 경험에 비추어 보건데 두 동생이 오빠를 더 많이 이해하고 배려했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있다.

오빠 한 사람에게만 그 무거운 짐을 지우려 하지 말고 다른 가족들도 기꺼이 나누어 가지려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할머니 식사를 직접 손가락으로 떠서 먹여드리는데 가끔 엄마가 손가락을 든 채 할머니 입술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을 보곤 한다.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엄마는 할머니 모습을 보며 자신의 미래모습일지도 모른다면 살아계시는 한 최선을 다할 거라고 하신다.

적어도 자식들 앞에서 양심에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으시겠다는 게 평소의 생각이라고 하신다.

그러시면서

‘내가 만약 치매나 큰 병에 걸리거든 집에서 모시려 애쓰지 말고 꼭 요양시설에 보내서 남은 가족이라도 맘 편히 살아라.’

하시는 걸 보면 결국 당신은 최선을 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더 이상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는 뜻일 것이다.

나는 우리 엄마가 할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걸 보며 나도 엄마께, 아니 가족 모두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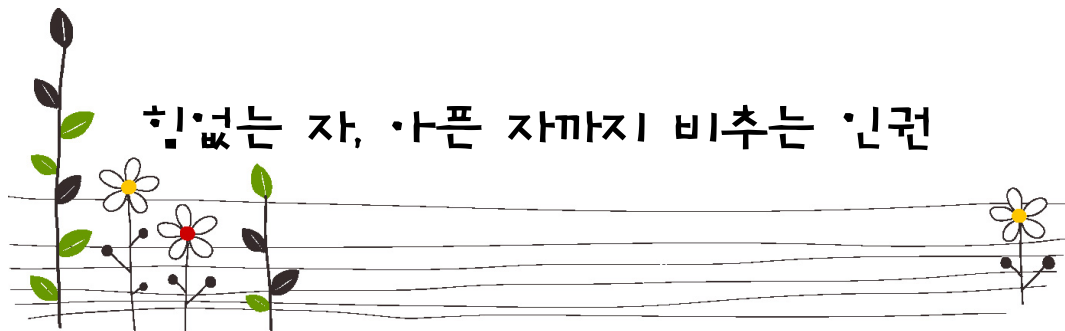
굳이 어려운 인권을 따지지 않더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사람이 라면 누구나 마땅히 존중받고 살아야 할 충분한 가치를 가졌다고 믿기 때문이다. 할머니가 아프시든 안 아프시던 할머니는 언제까지나 소중한 우리 가족 인 것처럼 말이다.

나는 오늘 저녁 공부를 조금 일찍 끝내고 내가 할머니를 모시고 자려고 한다. 오늘밤만이라도 엄마가 할머니 걱정에서 벗어나 잠 한 번 편히 주무시라는 나의 작은 배려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새벽에 일어나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할머니 때문에 늘 수면부족에 시달리시는 엄마에게는 달콤한 잠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엄마, 아프신 할머니 돌보시느라 늘 힘드시죠? 내 엄마라서 정말 고맙고 존경스럽습니다. 엄마의 바람대로 할머니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사랑합니다!



대전 관저중학교 2학년 이성민

‘다르다’와 ‘틀리다’의 차이점에 대해 쓰라는 문제를 받은 적이 있었다. 우리가 평소에 ‘다르다’와 ‘틀리다’를 의식적으로 구분하거나 신경써서 가려가며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잠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었다. ‘다르다’라는 말은 사물의 상태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어떤 두 가지 사물을 판단할 때 상태가 같지 않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틀리다’라는 말은 원칙과 기준에 미달하여 잘못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느 한 쪽은 정상이고 원칙과 기준에 맞지만 다른 한 쪽은 그렇지 않아 잘못 되었다는 말이 된다.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을 생각해보면서 우리 주변에 다르게 보아야 할 대상들을 틀리게 바라보고 우리의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누르고 밀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장애우를 우리와 틀린 존재로 바라보고 대한다면 우리는 정상이며 정답이고 그들은 비정상이며 틀린 답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틀리다’라는 눈으로 장애우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그들을 마치 외계인이나 인간 이하의 존재로 무시하는 태도가 담겨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다르다’라는 생각으로 바라

본다면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고 장애우는 우리와 신체적인 일부분이 조금 다를 뿐 동등한 인격체로 여겨질 것이다. 이렇게 따져보고 나면 ‘다르다’와 ‘틀리다’라는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커다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깨닫게 된다.

인권의 문제 역시 다를 바가 없다. ‘인권’이란 말 그대로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를 말한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보장받으며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당연한 권리조차 ‘다르다’와 ‘틀리다’의 잘못된 적용처럼 차별되고 왜곡되어 축소되거나 짓밟히기도 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난한 이웃, 외국인 노동자, 장애우 등이 그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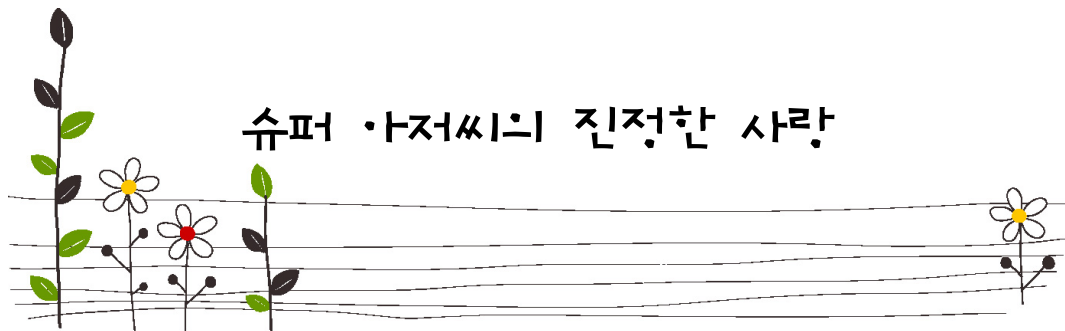
나 역시 평소에는 인권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다. 학생이라는 위치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부분에 속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현재 자신의 해야 할 일이나 이익과 손해, 앞으로의 일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어느 날, 오토다케 히로타다의 ‘오체불만족’이란 책을 읽게 되면서 장애우에 대한 또 다른 시각과 편견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보게 되었다. 저자는 자신이 팔, 다리가 없는 중증 장애인이면서도 자신의 상황에 만족한다고 말하고 있다. 평범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었다. 그러나 그는 장애가 단지 신체적 특성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당당하게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고 권리를 찾아 누리는 그의 모습을 읽으면서 참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그로 인해 가장 크게 달라진 생각은 우리가 무조건 장애우를 동정하며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 또한 장애우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생각과 인간이면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며 지킬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권은 누군가 밥상을 차리듯이 대신 차려주고 보호해주며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가 장애우의 인권을 침해하면 안되는 것처럼 그들 또한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비관하고 비하하며 권리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리잡고 있는 고정관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제도적 모순과 싸워 이겨내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인권을 지금 이대로 포기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더욱 발전될 미래를 위해서 함께 우리 권리를 지키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줄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인권의 문제는 나 자신으로부터 내 주변의 어느 곳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인권문제라 하면 가난한 이웃이나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또는 장애우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한된 인권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가정에서 행해지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또한 인권문제의 현상이요,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시행되는 여러 가지 제도 역시 인권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집단따돌림이나 학교폭력 속에 희생되고 괴로워하는 친구 역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이다. 조금만 주의 깊게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인권이 너무나 힘없이 무너지거나 무방비로 뚫려 있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날, 학교 과제로 읽게 된 ‘십시일반’이라는 책 속에서 나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하게 존재하고, 그러나 너무나 무심하게 묻혀버리는 인권침해의 현장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우리 주변의 가난과 차별에 젖은 소외된 사람들로부터 크게는 인류 전체 속에 남아있는 인종차별까지, 그리고 다수자에 의해 희생되는 소수자의 인권과 나만 옳다는 잘못된 믿음 속에 짓밟히는 다른 사람들의 인권까지 거듭 깨닫고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인도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룩한 대한민국은 힘 있는 몇몇 사람에 의해 지켜지고 세워진 나라가 아니다. 나 자신의 존재와 의미가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존재와 의미도 소중하며 그렇게 모두 일심으로 하나가 되어 힘없는 자, 아픈 자까지 힘을 보태어 지켜온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인권은 하나같이 다 소중하다. 잘 살거나 권력이 있거나, 못 살거나 힘이 없거나 우리는 모두 한 배를 탄 공동체이다. 우리는 나 자신의 인권만 보장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인권은 무시되어도 상관없다고 가볍게 생각해버릴 만큼 그렇게 무가치한 공동체가 아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존엄한 인간이기에 가져야 하는 권리라면, 우리 모두 미래를 향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기에 서로 지켜주어야 하는 권리라면, 지금도 구석구석 평등하게 빛을 나누어주는 태양처럼 차별없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당연한 세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슈퍼 아저씨의 진정한 사랑

예일여자 중학교 2학년 문원영

우리 가족은 작년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이사 오게 되었다. 처음엔 썰렁하던 주변에 하나 둘씩 새로운 상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엄마와 나는 여러 슈퍼 중에서 우연히 작은 슈퍼에서 물건을 사게 되었다. 그 가게에는 머리가 흐트러질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젊은 아저씨와 우리말을 잘 못하는 아줌마가 일하고 있었다. 처음에 엄마와 나는 조금 모자라 보이는 아줌마를 지적 장애인 정도로 생각했었다. 그 이후 우리는 그 슈퍼를 계속 다니면서 그 친절한 아저씨가 외국인 아줌마와 결혼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굶은일은 모두 아저씨가 도맡아 하며 작년의 추운 겨울엔 아저씨의 스웨터를 아줌마에게 입혀주시며 난로 옆에 앉아 카운터에만 있으라고 하시는 그 아저씨가 웬 지 좋아졌다. 외국인 아줌마는 물건을 팔 때마다 “오빠! 이거 얼마예요? 하면서 모든 것을 물어보았고 그때마다 아이에게 글을 가르쳐 주듯이 아저씨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알려주셨다. 우연히 전화통화를 들었을 땐 아저씨가 아저씨의 부모님께 열심히 일해서 빨리 기판을 잡겠다고 말씀하셨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요즈음에 그 슈퍼에 들러보니 그 외국인 아줌마의 배속에는 아기가 자라고 있었고 그 슈퍼에는 물건도 많

아지고 손님도 많아져서 무척 분주해 보였다. 그 외국인 아줌마의 시부모님 들께서도 함께 일하고 계셨다. 외국인 아줌마의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엿보였고 그 주인아저씨는 여전히 흐트러진 머리를 휘날리며 열심히 일하고 계셨다. 아저씨뿐만 아니라 아줌마의 시부모님들께서도 아줌마를 진심으로 위하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다. 우리에게 물론 친절하셨지만 우리에게 친절한 것 보다 그 외국인아줌마를 진심으로 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슈퍼에 대한 신뢰가 더욱 생겨났다. 아마 사랑으로 가득한 그 슈퍼에는 손님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모든 외국인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길에서 많이 보이는 국제결혼의 현수막은 우리 나라사람들이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또한 음식점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들 중엔 대부분 불법체류인 경우가 많아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이런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 대부분은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도 못한 채 쪽방에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단일 민족의 혈통을 교육 받았고 특히 후진국의 외국인들을 은근히 무시하며 경멸하는 습성이 있다. 우리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함부로 욕하고 놀리는 아이들도 있다. 우리가 반대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서럽고 눈물 나겠는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국가 인권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하며 여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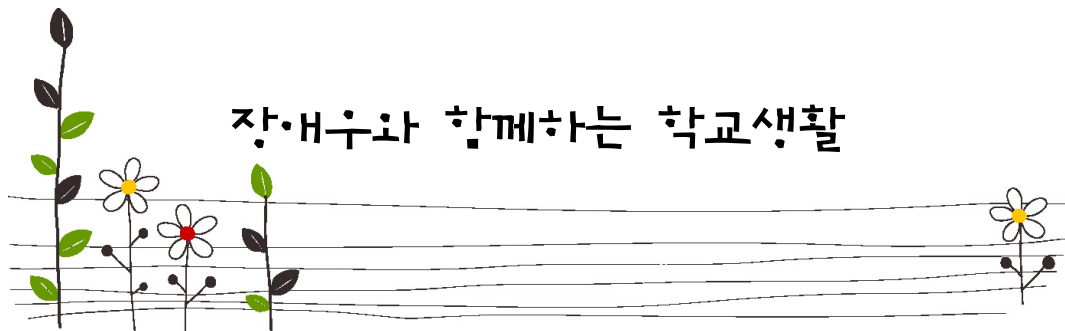
우리는 학교에서나 여러 가지 책 속에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그냥 단순히 교과서적인 말로 듣고 넘겼지만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인 약자들

이 너무도 많다. 어린이, 노인, 여성, 장애인, 노숙자,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경제력과 힘이 없는 사람들은 똑같이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다.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이렇게 힘들고 순진한 약자들은 자신들이 힘 있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며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정부, 시민 단체 등은 인간의 고유한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며 형식적인 제도 실현만을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우리나라는 행동을 보여 줄때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감화되어 약자들을 내 형제 부모와 같이 아껴주고 보호할 것이다. 우리 아빠께서는 “강자 앞에서 강하고 약자 앞에서 약하라”고 말씀하신다. 더 어렸을 때에는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자 앞에서는 자신의 힘과 재력 등을 과시하려고 하고 강자 앞에서는 잘 보이고 싶어 하며 친분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쓴다. 성당에서 신부님께서서는 우리는 똑같은 교우이며 아파트 평수에 따라 교무금의 액수에 따라 하느님의 사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신부님께 목소리 크게 말하는 교우는 진정한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셨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바쁘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앞만 보며 나와 우리 가족만을 생각하며 주위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생활한다. 우리 가족에게 큰일이 닥쳐왔을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이 얼마나 서럽고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게 된다. 인간 처럼 어리석은 동물도 없는 것 같다. 가수 강 원래는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못 쓰게 된 후에야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 모두 예외는 아니다. 어떤 누구도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아야하지만 누구에게나 불행은 다가올 수 있기에 남의 고단한 삶을 내게 닥친 일처럼 함께 나누다면 참된 삶이 될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들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더라도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갖고 사는 사람인 것이다. 그들도 우리와 대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염두하며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어 먼저 나누어 줄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함께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남편만을 믿고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슈퍼 아줌마와 같이 여성들이 정당한 대우와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속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계속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요즘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많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 국적의 동포이기에 차별없이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우리의 낮은 출산율과 힘든 일을 싫어하는 현상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와 살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지금보다 훨씬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보호받을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우리와 동등하게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날도 멀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국적만 대한민국이지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수 없으며, 우리사회는 차별과 편견으로 얼룩지고 말 것이다.

엄마와 차를 타고 매일 그 슈퍼 앞을 지나면서 먼발치에서 아저씨와 아줌마를 바라보며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그려본다. 슈퍼 외국인 아줌마가 우리의 친척도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는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즐겁게 열심히 일하는 부부의 모습 속에서 “아! 이것이 행복이구나” 느끼며 마음도 따뜻해진다. 이 따뜻하고 행복한 슈퍼부부의 사랑이 우리나라 아니 온 세계로 조금씩 전염된다면 전 세계인 모두 한명 한명이 활짝 웃을 수 있을 것이다. 인권 선진국이 되는 길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슈퍼 아저씨처럼 내 가족이라는 작은 단위에서부터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슈퍼 아저씨, 아줌마, 처음처럼 마음 변치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



등원중학교 1학년 진승혁

나는 지금 장애우들이 있는 등원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한 반에 대개 1~2명 정도의 장애우가 있는데. 우리 반에는 명수(가명)와 재석(가명)이가 있다. 둘 다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 둘에 대한 괴롭힘이 어느 정도 있는 모양이다. 심심찮게 장애우들의 책상을 뒤엎거나 의자 같은 데에 풀을 발라 놓는 등 괴롭힘을, 어떻게 보면 장난을 심심찮게 하고 있다. 한번 오늘 그 현장에서 자세히 지켜볼 것이다.

아침 자습시간. 자습시간 이라지만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돼 여유롭게 놀고 있다. 아이들이 명수를 툭툭 치고 있다. 아마도 명수가 무슨 뜻 인지도 모르고 욕을 했을 테지. 나도 저번에 명수가 욕하는 것을 봤는데 그 옆에서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 명수가 아무런 이유 없이 친구들을 툭툭 치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었고 때로는 정말로 참기 힘들 때도 있다. 그래도 나는 나대로 명수와 재석에게 잘 대해주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명수의 그런 행동을 참기 힘든가 보다. 하지만 명수가 욕을 하거나 다른 친구들을 툭툭 치는 이유는 나중에 알았지만 악의적인 것이 아니다. 무슨 뜻인

지도 잘 모르고 하는 행동인 것이다. 특히 욕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명수 앞에서 욕을 많이 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가급적이면 욕을 안 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욕을 얼마나 많이 하면 명수가 욕을 배울까 싶을 때가 있다.

전부터 명수는 수업을 들으러 잘 들어오지 않았다. 마음의 상처가 큰 탓일 것이다. 처음에 우리가 명수를 만났을 때는, 그러니까 입학한지 얼마 안됐을 때는 명수가 정상적인 아이인줄 알았다. 하지만 명수 부모님이 쓰신 글을 보고는 명수가 마음이 조금 불편한 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때부터 우리들 중 몇 명은 명수와 재석을 돕기로 했다. 큰 것이 아니었다. 그냥 마음만 있어도 됐다. 하지만 우리들은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가 쑥스러웠다. 다른 아이들은 괴롭히는데, 마음을 잡고 관심을 가져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애들이 없거나 할 때 조금씩 도와주고 있다. 마음씨 착한 내 친구들도 그렇게 애들이 없을 때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

일단 장애우들을 돕기 위해서는 사회의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 지금까지도 장애인이라는 말은 모욕과 멸시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왜 자기가 장애인을 괴롭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냥 괴롭히는 것이다. 마음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저항도 하지 않고 도망만 다닐 뿐이니까. 재미있으니까. 남들도 괴롭히니까 괴롭히는 것이다. 나와 다르다고 괴롭히는 것은 야만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면서도 말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의 편견이 달라져야 한다. 그래야 다르다고 괴롭히는 일이 없어지고 내가 재석을 도울 때 느꼈던 쑥스러움이 느껴지지 않을 것 아닌가. 나는 단지 다른 아이들에게 준비물을 조금 나눠주는 것처럼 마음을 베푸는 것인데. 아이들의 시선이 가끔씩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당당하게 재석을 돕는 홍철이(가명) 같은 아이들도 있다. 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부럽다. 나도 남들의 시선

을 보지 않고 돕고 싶다. 장애우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어진다면...아니 따뜻한 관심을 가져준다면... 장애우를 돕는 게 축스럽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고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장애우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그런 이상적인 사회는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다.

그리고 16살인 재석에게는 같은 반에 다니는 친동생인 형돈(가명)이 있다. 아마도 형을 도와주기 위해 같은 반에 배정한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형돈의 성격도 좋은 편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가 형인 재석을 괴롭히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재석이형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 장애우들에게도 기댈 벽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오토다케의 오체 불만족을 읽어보면 기댈 벽이 얼마나 중요 한지 알 수 있다. 오토다케의 어머니는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오토다케를 처음 보고 “어머 귀여운 우리아기”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보통 아이들과 똑같이 키우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보통 장애우들에게도 가장 큰 기댈 벽이 뭘까? 역시 가정인 것 같다. 그리고 학교생활과 같은 단체활동에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장애우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비록 일부분의 시간이라도 장애우의 친구가 되어주어야 한다.

명수와 재석 둘 다 정신적으로 불편한데.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은 시 설과 물리치료 등을 통하여 장애를 극복할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예를 들어 자폐아와 같은 사람들은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몸이 불편한 친구를 돕는 일은 쉽겠지만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나 자폐와 같이 정신연령이 낮은 사람을 돕는 일은 매우 어렵다. 신체적 장애우가 아닌 정신적 장애우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인권교육이 있으면 좋겠다 싶다.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마음을 치료할 수만 있다면 비장애인과 같게 된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치료만 할 수 있다면 괴로운 사람들이 더 적어질 텐데 말이다…….

오늘 특별히 장애우들 에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되고 싶은 직업 그러니까 나의 장래희망은 변호사이다. 변호사 라면 힘든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을 많이 봐야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도 볼 것이고 강자도 볼 것이다. 그 중에서 약자의 상징인 장애우를 바라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말하시기를 “학교에 장애우가 있다고 불평하지 말고 좋은 기회로 삼아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라”고 하셨다. 장애우들이 일반 학교에 오는 이유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냥 장애우로서 사회 속에 갇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이다. 그러려고 비장애인들과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것이다. 하지만 그 꿈이 피기도 전에 우리가 그들의 꿈을 짓밟으면 안 된다. 장애우와 우리는 서로 어울려야 한다. 우리나라도 인권위가 설립된 이후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지원책도 많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한 재활 교육이 딱히 없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 예를 들어 오토타케와 같은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은 성공했지만 정신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은 남들이 쉽게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멍청한 비장애인으로 잘못된 대우를 받는 게 아쉽다.

지금 당장 힘들어하는 명수와 재석을 도와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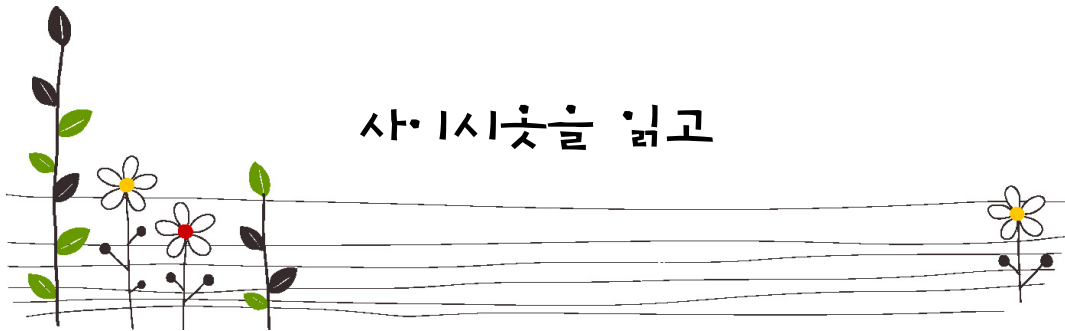
용기를 내서, 다른 친구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고 등 부 우수



- 사이시옷을 읽고(정재원)
- 무지에 갇힌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권리(최홍록)
- 당신의 사적 자유권, 이상 有!(박교연)





사이시옷을 읽고

민족사관고등학교 3학년 정재원

얼마 전 몽골 봉사활동 중에 장애인 단체를 위해 게르(몽골 전통 천막집)를 짓게 되었다. 일 년 내내 복지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여름에 지낼 휴양지를 만드는 활동이었다. 어린 참가자들을 인솔해서 나무를 나르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정원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흐엉... 장애인 친구들이 너무 불쌍해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들 흐뭇하게 웃으셨다. “어이구, 어린애가 참 마음이 예쁘네!” 그러나 나는 사실 조금 씁쓸했다. 어쩌서 장애인이면 무조건 불쌍하지? 우리가 동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들은 과연 기뻐할까? 같은 사람을 위해서 휴가철 집을 짓는 게 그렇게 대단하고 남을 측은하게 여길 일 이었나? 불쌍하고 행복하고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다. 우리는 가끔 의도치 않게 편견과 착각에 사로잡혀 자기 기준대로 결론을 내릴 때가 있다. 정원은 순수하고 착한 아이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와 생활방식과 신체에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쉽게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이시옷>을 읽으면서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았다. 심각한 주제를 너무 가볍고 알게 다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었고, 별로 큰 문제가 아닌데 너무 부풀려 스토리를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었다. 특히 ‘새대가리’는 내가 고등학교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공감할 수 없었다. 우리는 모두 날개가 잘린 새라든지, 부모님이 자녀를 억압하고, 학생들은 결국 사회 구조와 어른들의 압박을 받으며 꿈을 펼치지 못한다는 어두운 내용의 이야기였다. 얼핏 보면 마냥 쉽게 살려는 한 학생의 불만토로 같았다. 당연히 사회에서 앞서나가려면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남들보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부모님은 무작정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과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전략을 전수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새대가리’는 소재를 지나치게 비극적으로 다루었지만, 결정권이 없고 꿈이 없는 대한민국 학생들의 현실을 잘 표현하였다. 벌써 10대 때부터 우리들은 A급, B급, C급 인간으로 분류된다. 씨는 종자부터 알아본다고 하며 선생님들은 우등생들을 우대하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밑상이라 부른다. 나는 해외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쪽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아니면 부모님들은 만족을 못하시며, 어느새 SKY나 In-Seoul과 같은 라벨이 우리이마에 찍혀있다. 학원을 다니고, 시험을 치르고, 수능준비 수시준비를 하느라고 대한민국 학생들이 힘든 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보람을 못 느끼고, 맹목적으로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기계적으로 생활하는 것, 그리고 점수 차이에 따라 인간취급을 못 받기도 한다는 현실은 큰 문제다.

‘새대가리’처럼 소재를 최대한 살린 신선한 이야기가 있는 반면, ‘그는’과 같이 스토리라인이 빈약하고 심심한 만화도 있었다. 동성애자라는 사회적 소수자를 다루는 에피소드였는데, 결론은 고작 ‘동성애자 A군은 우리와 다를 게 없으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 중 한명이다,’ 이었다. 그런데 시시하다고 생각을 한 순간, 바로 나의 그릇된 시선을 자각했다. 나는 도대체 뭘 더 바랐던 걸까. 만일 동성애자 차별에 관한 기나긴 이야기가 나왔다면 오히려 나의 편견에 얼룩진 기대치를 충족시켰을 것 같다. 동성을 사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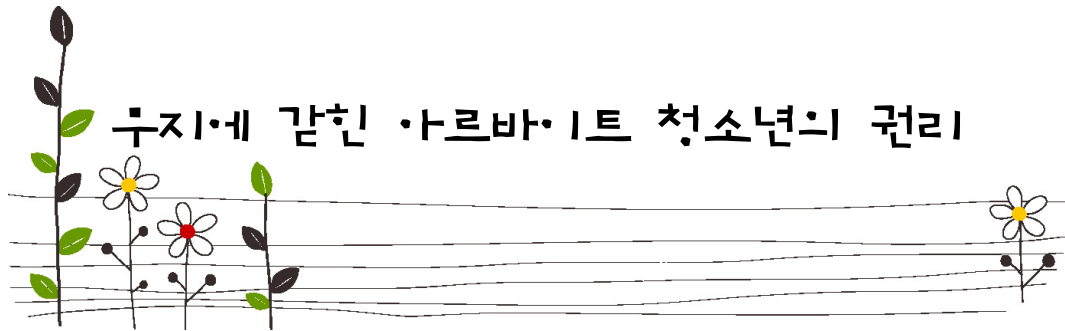
는 것 외엔 하나도 다른 게 없는 사람들이지만 사실 홍석천이나 하리수가 겪었을 법한 충격적인 일화나 비운의 주인공에 대한 풍부한 에피소드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 전 동성애자들과 생활을 하고 그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는 선배를 만났다. “정말 대단한 일 하시네요, 너무 신기하네요,”라고 감탄하는 나를 선배는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곤 그걸 왜 대단하고 신기하다고 생각 하나고 반문하셨다. 그때에도 나의 내제된 차별의식에 무척 놀랐던 기억이 난다. 작가들이 단순히 독자의 흥미를 위한 비극을 안 써서 다행이다. 덕분에 ‘그는’의 짧고도 명료한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되었다. 차별뿐만 아니라 차이조차 우리가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일 지도 모른다.

<사이시옷>에서 다룬 우리사회의 차별의식과 차별행위를 읽으며 책임전가에 대한 생각을 했다. 비혼모가 겪는 수치심이나 군내의 가혹행위는 누구의 탓일까? ‘축복’을 읽으며 처음에는 산모가 된 나보다 어린 등장인물과 훌쩍 떠나버린 남자에게 분개했다. 왜 책임도 못질 행동을 하고는 슬퍼할까, 그 남자는 정말 벼락이라도 맞았으면 좋겠다, 등등 생각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 여자아이가 비난을 받으며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비밀리에 아이를 낳아야 했다는 사실이다. 비혼모의, 그녀의 부모님의, 그리고 남자친구의 탓도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는 생부모에게서 버려졌고 소녀는 그 나이에 무방비로 홀로 출산을 했다. 다시 한 번 이야기를 읽으면서 작가는 도대체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일지 생각해보았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아픔을 숨기고 사는 이들이 많다. 그리고 사회의 수군거림과 책망의 눈길이 마땅히 ‘축복’일 수도 있는 생명의 탄생을 ‘수치’와 ‘불행’으로 만들기도 한다.

읽으면서 ‘축복’보다도 사회문제의 책임전가를 고민했던 작품은 ‘창’이었다. 군복무중 열심청년 병장 정철민은 자기생각만 하는 이병 홍영수를 교육시키고 구타를 한다. 그러나 홍영수는 미약한 자살 시도를 하여 정철민을 심각한

곤경에 빠뜨린다. 어쩌면 관점이 병장 위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지만, 읽은 후 나는 ‘군내 가혹행위’란 말이 잘 안 와 닿았다. 병장 정철민은 이기적인 이병 홍영수에게 벌을 줘도 될 것 같았고, 그것을 이용해 복수 아닌 복수를 한 이병이 비겁해 보였다. 이야기는 정철민과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쓰였다. 허나 언제부터 우리는 구타를 정당화시켰을까? 그 누구에게 권력을 이용한 폭력을 행사해도 되는 것일까? 당연히 아니다. 구타와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이야기의 포인트는 이게 아니다.

병장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벌은 폭력을 휘두른 그가 받았지만, 군내의 구타행위를 감정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우리들이 사실은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들이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엄연한 폭력을 윗사람의 열정과 ‘사랑의 때’로 보는 우리사회가 군내 구타행위를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의 책임을 묻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가해자 또한 어찌 보면 오해와 잘못된 사회의식의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동성애자를 증오하는 사람들이나, 구타를 정당화하는 군인들, 그리고 학생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학업의 성과물로 보는 선생님들 모두 문제의 원인이라기보다는 더 큰 체제의 결과물이다. 편견과 차별의식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모두 큰 틀 안에 갇힌 필연적 존재다. 내제된 잘못된 관념과 차별의식을 인정하는 일이 사람과 사람을 잇는데 필요한 첫 걸음이자 ‘사이시옷’이라 생각한다.



무지에 갇힌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권리

서울고등학교 1학년 최홍록

방학만 되면 친구들은 바빠진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2005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5~24세의 청소년 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이들은 38.1%나 된다고 한다. 2005년 통계가 이러하다면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은 더욱 많아졌을 것이다. 그들은 핸드폰 사용료, 여가생활비용, 또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다.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서든 용돈마련을 위해서든 아르바이트의 유혹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렇게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청소년들이 많아지지만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권리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하다. 법률상으로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여러 가지 보호장치가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4000원이고 하루 최고노동시간은 7시간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최고 40시간 이상은 일할 수가 없다. 또 술이나 담배와 같은 유해환경에서는 일할 수 없고 특별히 노동부의 허가가 없을 경우에는 야간(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에 일도 할 수 없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중 다쳤을 때는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법률에 의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규정하여 지키도록 하고 있지만, 청소년을 고용하는 업주나 해당 청소년들이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고용주들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권리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기는 경우가 빈번하다. 더 큰 문제는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청소년들도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지난 7월 내가 다니고 있는 인권동아리(서울 방배유스센터 소속 '다같이')에서 청소년들의 노동권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위해 서울 방배역과 이수역 주변 상가를 조사한 적이 있다. 우리 인권동아리는 설문지를 돌려 이 지역 사업주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노동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설문조사는 무척 힘들게 진행되었다. 사업주들이 설문지 조서를 꺼려했기 때문이다. 내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 “안녕하세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설문지조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피하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으려 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그나마 설문에 응한 사업주 가운데 청소년의 최저 임금과 노동시간을 제대로 아는 사업주는 10명중 4명도 안되었다는 점이다. 24시간 편의점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문제가 덜 했지만, 아르바이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식당이나 일반상점의 경우 청소년의 노동권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거리에서 실시한 일반시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많은 시민들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최소임금이나 노동시간에 대한 별다른 인식이 없었고 그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점차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늘어나고 있는 시기에 정작 사업주나 일반시민들은 기본적인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더욱 문제인 것은 해당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치킨집에서 배달아르바이트를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귀가 다쳤는데도 그 친구는 자기 돈으로 치료비를 지불했다고 한다. 규정대로라면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아르바이트 중 다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 고용주들이 그러한 법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2000년 한국청소년개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14.7%에 불과하다고 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 절반가량이(51.0%)이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응답자의 43.9%가 “잘 알지 못해서” 작성하기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용주가 싫어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도 5.1% 가량 되었다.

청소년의 권리를 위해 지켜져야 할 이 기본적인 것들이 왜 안 지켜지고 있을까? 설문조사 활동을 통해 깨달았던 점은 고용주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모두 청소년의 노동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설문지 조사를 할 때에도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학생은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반해 많은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생들이 공부나 하지. 왜 아르바이트냐!”란 생각이 강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나 밖에서 청소년의 노동권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고용주를 상대로 하는 교육은 당연히 부족하고 학교에서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권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약 생계형 아르바이트생들이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이 된다. 힘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공부대신 일 자리를 택한 이들이 더 힘든 상황 속에서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치킨배달 아르바이트 친구의 경우에서처럼, 자기가 다친 것에 대해 사업주에게 치료비를 요구하지 않았다. 청소년 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다쳤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만약 그 친구가 청소년 아르바이트도 산재보험 대상이 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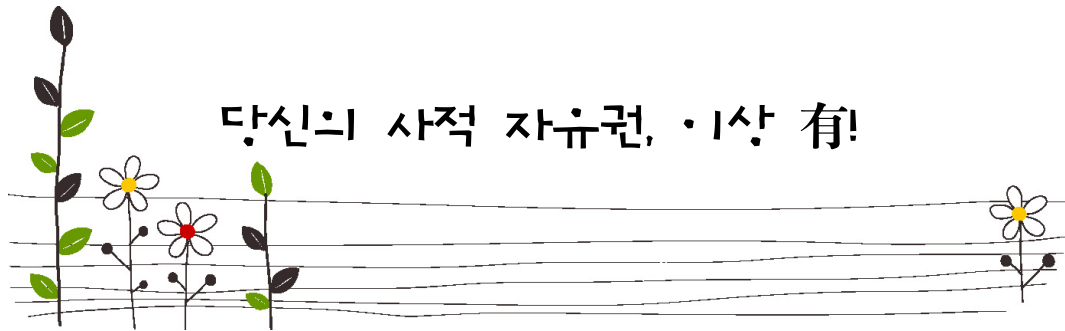
아르바이트생들이 자기 권리를 강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것에는 일자리가 그리 많지 않은 시장의 현실 문제도 있다. 사업주가 부당한 대우를 하였을 때 해당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면 사업주는 “너 말고도 고용할 사람 많다”라면 해고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청소년 노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의 결과에서 보았듯이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잘 알지 못해서 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비율이 43.9%나 되었다. 근로계약서가 가장 기본적인 문서인 데에도 불과하고 무려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필요없다”라고 대답하였다. 청소년 근로계약의 의무와 조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권리는 더욱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연습으로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한다. 서울 YMCA의 조사결과(2000.9)에 의하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 “아르바이트를 안 좋게 보는 시각”(34.9%)을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문제점으로 말하였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청소년의 분명한

자기 권리주장을 어렵게 만들게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문제를 청소년의 권리확보 차원에서 이해하고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1318 알자! 알자” 캠페인을 진행 중인데, 이를 노력을 교육현장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청소년의 인식변화와 함께 고용주들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용주들이 청소년의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권리주장은 갈등과 대립을 양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TV 광고나 드라마를 통해 홍보한다면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한 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

청소년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다. 그들이 청소년시기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존중을 받지 못한다면 과연 그들이 나중에 남을 어떻게 존중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청소년 시기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할 수 있다면 나아가 들어서도 권리와 의무를 소중히 하는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친구들이 생계를 위해, 혹은 용돈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시점에 청소년의 노동권을 올바로 인식시키고 교육시키는 일은 청소년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사적 자유권, · 1사· 有!

용인 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박교연

몇 십분 쯤 멀티미디어실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던 친구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책상에 올려놓았던 필기 노트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내가 멀티미디어실 아 복도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고,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트릴 듯 눈물을 글썽거리던 친구 손을 이끌고 행정실로 향했다. 친구의 간곡한 부탁 끝에 행정실 옆 작은 방에서 직원 아저씨와 함께 CCTV를 돌려보기 시작했다. 직접 CCTV 화면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정말 신기했다. 누구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흐릿할 것이라는 나의 예상과는 달리 CCTV 화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까지도 어렵듯이 보일 정도로 선명했고, 연결된 컴퓨터 모니터로 속도도 마음대로 조절해서 돌려볼 수 있었다. 친구와 열심히 노트를 가져간 사람을 찾고 있던 중 화면 속에서 내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지나갔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나를 지켜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문득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다.

약 20년 전 범죄 퇴치 목적으로 도입된 CCTV는 이제 없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대부분의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시민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녹취

하고 있다. 도입 초기의 저 화소 CCTV로 시작하여, 요즘에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몇 십 배로 화면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얼굴을 인식하여 용의자의 신상 정보와 대조하는 기능까지 구비한 CCTV도 등장하였다. 근 20년 동안 CCTV는 괄목할 만한 기술적 진보를 겪으며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으로 침투하였지만, CCTV가 개인의 인권, 더 자세히는 사적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지는 몇 년 되지 않았다.

CCTV 설치를 옹호하는 많은 사람들은 CCTV 설치가 사회의 공동선을 위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들에게 ‘공익을 위해서라면 희생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는 엄청난 것이다. CCTV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영국이 학교 화장실에서 학교 폭력이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을 고려해 학교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다. 물론 그 발표에 전 세계는 경악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끔찍한 폭행을 당할 불쌍할 중학생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CCTV 설치가 어느 정도는 정당화될 수 있지 않겠냐는 견해를 보인 것이다. 더 나아가 CCTV 설치에 찬동하는 많은 사람들은 CCTV가 ‘사생활 침해의 첨병’이 될 수 있다는 비판에 오히려 이렇게 반문한다. “만약 당신이 범죄자가 아닌 선량한 시민이라면 CCTV 설치로 인해 당신에게 가는 직접적 피해가 있습니까?” 물론, 당신의 집 앞 골목에 CCTV 한 두 대가 설치된다고 해서 당신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하지만 과연 CCTV가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적 자유권이 보장 받고 있다고 안주할 수 있을까?

위의 문제에 대해 고찰해보기 전에 우리는 ‘사적 자유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사생활(Privacy)이라고 부르는 사적 자유권을 ‘내가 원하지 않는 개인 정보의 유출로 인해 입는 피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와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나는 내

주변에서 자신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당당히 개선을 요구하는, 민주 사회의 일원으로서 “깨어 있는” 친구들을 많이 보아왔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대부분의 친구들이 CCTV 설치가 사생활의 침해가 아니냐라는 질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학교의 학생 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게시하게 하는 것이며 모의고사 점수를 학교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사생활의 침해”라며 목에 핏줄을 세우며 열변을 토하지만, 학교 구석구석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자신을 찍고 있는 것이 사생활 침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이다.

참 안타깝고 항상 침해 받고 있음에도 가시적인 피해를 겪기 전에는 침해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쉽게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사적 자유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CCTV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고, 그 사실을 알고 있다하더라도 나에게 직접적 피해가 오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로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CCTV로 수집한 정보의 악용에 대한 소지를 걱정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러한 안일한 태도로는 만일의 사태로부터 우리의 권리를 지켜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사적 자유권과 CCTV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첫 번째 쟁점은, 민주 사회에서 사적 자유권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다. 민주 사회에서 사적 자유는 정보의 교류와 소통 과정에서 마음껏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며, 공권력으로부터 개개인을 보호하는 장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사적 자유권이 우리 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쟁점, 우리는 사적 자유권이 단순히 우리를 금전적, 정신적 피해에서 보호해줄 수 있는 권리가 아닌 능동적 권리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미국 컬럼비아 법과 대학교의 Alan Westin 교수는 그의 저서인 <사생활과 자유>에서

사적 자유권을 “개인, 그룹, 혹은 기관이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의 정보를 남과 어느 정도 나눌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리”라고 정의한 바 있다.¹⁾ 그의 정의를 따른다면 CCTV는 개개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모습을 촬영하므로 사생활의 침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정보의 교류와 소통이 자유로운 민주 사회에서는 정보 교류 상의 참여자가 직접 자신의 정보의 노출 정도를 결정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능동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마지막으로, 사적 자유권에 대한 주체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CCTV에 대한 경각심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공익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올바르게 작동은 하고 있는지, 실제로 범죄 예방 효과는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CCTV 시스템에 대한 경계의 눈초리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에만 CCTV는 공익을 위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21세기 민주 사회에서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하지만 부당한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안일한 태도를 취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낼 수 없다. 여기서 ‘권리’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다. 개개인이 CCTV처럼 사소해 보이는 문제에서로부터 나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 받고 있는지, 나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항상 질문을 던지고 경각심을 늦추지 않는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 사회는 개개인의 권리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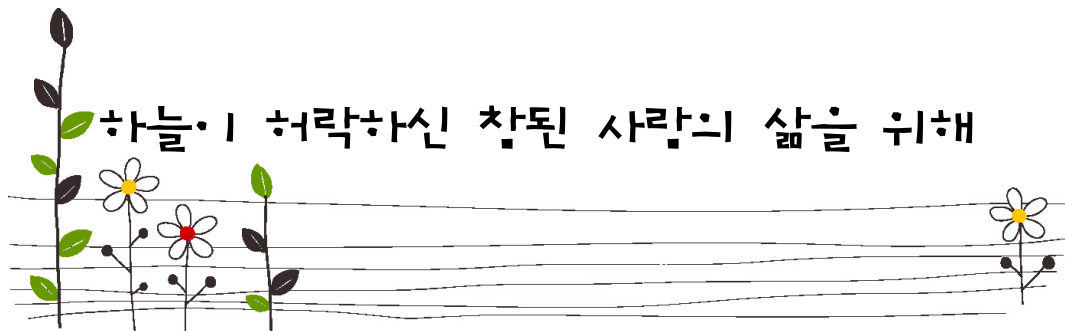
1) Alan Westin, *Privacy and Freedom*, 1962, "the claim of individuals, groups, or institutions to determine for themselves when, how, and to what extent information about them is communicated to others". Westin describes four states of privacy: solitude, intimacy, anonymity, reserve. These states must balance participation against norms"

고 등 부 장 려



- 하늘이 허락하신 참된 사람의 삶을 위해(양준혁)
- 유엔평화봉사단원으로 뉴욕에 다녀와서 PEACE TALK(홍석환)
- 인권, 현실 그리고 미래(최정윤)
- 소음이 울림이 될 때까지 '세상을 향해 어퍼컷'을 읽고(유재룡)
- 학생의 하루(최성태)
- 그는 성적소수자이기 전에 청소년이었다.(유채윤)
- 바지 허가증(정소희)
- “외국인 거주자 인권 보호, 누구를 위한 것인가?”(이주원)
- 발암물질 생수를 통해 바라보는
소비자 인권과 국민 기본권의 현 주소(김윤나)
- 타인의 아픔을 감싸는 아름다움(성은욱)
- 사이버 세상 속의 인권(김신태)





하늘이 허락하신 참된 사람의 삶을 위해

호평고등학교 3학년 양준혁

열 아홉 살.

이제 제 삶은 막 청소년기를 벗어나 자신만의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청년이라기에는 아직도 어리바리하고 소년이라기에는 너무나 노숙한 그런 과도기에 있습니다.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이어서 시간적 여유는 없지만 제 삶을 충분히 관조하고 성찰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정의를 생각하고 지켜내고자 하며 사람됨의 삶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질 수 있는 고귀한 권리, 인권에 대해서도 고민할 시기입니다.

이 사회에서 인권 침해는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납니다. 빈익빈 부익부, 유전무죄 등 사회양극화로 인한 경제적 모순으로 인한 차별의 문제, 학력 위주 사회에서 하층민이나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정, 왕따나 학교폭력 등 가슴 아픈 인권침해의 문제는 경제성장과 세계화에 가려져 더 심각하고 다양해 졌습니다. 어떤 정치적 경제적 이유가 있든 사람이 고귀한 생명체로 태어나 하늘이 주신 그 참된 삶의 목적이 있는데 살아가는데 그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우리 모두의 도덕적 선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류사의 그 어떤 시기보다도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인권에 대한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사회이나 그 이면에는 더욱 더 인간소외의 정신적 문제들이 과생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인만큼 무책임한 타인에 대한 정보들이 확산되기도 하고 그 확실치 않은 정보에 의해 엄청난 정신적 물질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고 전문화된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한편 그에 따르지 못하는 사회보장제도나 육아문제가 저출산문제, 아이 양육의 문제, 이혼과 실직, 교육의 문제, 가정공동체의 붕괴, 개인이 사회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정신적 황폐화의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이 사회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활동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며 중년과 황혼기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경험은 그 사회의 모습을 투사합니다. 개인의 행복은 전체 사회의 건강한 동력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지금까지의 삶 또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경험이자 우리 현대사의 축약된 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전형적인 386 실천적 지식인이었던 제 부모님의 가슴 아픈 삶은 제 삶의 아픔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비전향 양심수로서 6년 동안 0.75평 교도소에서 복역하시면서도 굳건한 신념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신 아버지를 기다리며 어린 아들을 혼자 키워오시면서 스물 일곱에서 서른 다섯까지 가장 재미나고 깨소금 흐르는 가정의 즐거움을 누려야 할 시간을 빼앗기신 우리 어머니. 출옥해서도 민노당에서 활동하시면서 이 사회의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시는 남다른 삶을 사는 아버지 때문에 고독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시는 어머니. 돌 사진을 찍고 바로 체포된 아버지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리신 어머니는 중학교 선생님께서 언제나 교도소에서 면회하는 아빠만을 기억하는 저를 씩씩하고 강하게 키우려고

온갖 헌신과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셨지요. 유년시절 아빠가 없는 시간을 어머니는 백령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 산하의 아름다움을 가슴 한가득 느끼게 해주셨고 온갖 미술전시회, 음악회, 연극 등을 보여주시면서 풍부한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른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원에 다닐 때 피아노, 수영, 미술, 컴퓨터 등을 배웠고 방학 때마다 놀이캠프, 우주항공 캠프, 인권캠프, 생태캠프, 동물원 캠프(10여 차례) 등을 체험하였습니다. 중학교 때는 독립군 캠프와 어머니가 전교조 프로그램에 당첨되어 무료로 9박 10일 동남아 배낭 여행 등을 다녀 오면서 세상이 넓고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어울려서 다양한 방식으로 산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년의 단란한 가정과 행복한 유년기를 빼앗겼다고 생각했던 저는 광풍노도 청소년기에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하기도 전인 92년, 아버지는 집 앞에서 납치, 22일 동안 안기부에서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회사를 다니시던 아버지는 터무니없이 조선노동당 강원도당위원장으로 조작되고 12년을 선고받고 6년동안 복역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6개월에 한번씩 교도소에서 특별면회로 잠깐씩 만날 수 있었던 아버지는 짧은 머리에 푸르스름한 죄수복의 기억으로 밖에 기억되지 않는 현실이 아닌 존재였습니다. 옆에는 언제나 간수와 교도소장이 동석하여 무겁고 우울한 분위기였고 어린 저는 아버지에게 응석 한 번 부릴 수 없어 돌아오기전 가벼운 포옹으로만 슬프게 남아 어머니를 울리는 수수께끼의 어색함이었습니다. 무언 속에서 아버지가 교도소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어머니에게 물을 수 없는 금기의 사항이라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남들이 아빠 이야기를 할 때면 언제나 침울하게 가라앉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고통과 그리움의 통증이 사무쳤습니다. 심지어는 유치원 전에는 남들처럼 “엄마 엄

마”가 아니라 “아빠, 아빠”라고 부르며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조금씩 그 눈물도 슬픔도 나중에는 오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아예 둔화되고 잊혀져 무감각해지도 했지만.

중학교 2학년 때 방송(추적 60분)을 통해 비로소 아버지의 삶의 실체를 알게 된 저는 아버지를 고문하고 가두어 두었던 자들이 여전히 그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에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아버지의 6년을 100억 정도는 보상받아야 한다고 칩 튀기며 주장했습니다. 돈보다 더 의미있는 시간으로 그 시간에 얻은 것도 있었다고 말하는 부모님의 비현실적인 무한한 이해심이 반박할 수는 없었으나 억울하고 참담한 영혼의 피명으로 각인되었습니다. 그 무렵 그 억울한 한 맺힘은 삶의 무의식을 온통 뒤흔들었습니다.

아버지를 고문한 자들보다 더 나은 자가 되어야 해, 그러고도 지금까지 이 사회의 지배세력인 그들에게 천 배, 만 배 갚아주려면 남들보다 더 더 더, 뛰어나야해, 여유같은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나는 특별하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더더 경직되어 갔고 우정도 즐거운 여유도 누릴 수가 없어졌습니다. 언제나 완벽해 지려는 강박관념 속에서 자신을 채찍질하였습니다..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 옳다는 독선과 특별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평범치 않은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이중으로 교차하면서 스스로를 더 더 엄격하게 가두고 위축시켰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남다른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좋은 면도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래서 최고가 되고 싶다는 강박관념이 오히려 저를 위축시킨 것 같습니다. 친구를 사귄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씩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방학 때는 여덟 시간에서 열 시간까지 공부하였습니다. 일등을 해야 해, 꼭 최고가 되어야 해. 첫 번째 성적은 반에서 십 칠등. 열 여섯 단계를 뛰어 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도 그 다음도 그 자리 성적이었습니다. 일 년이 지나고 이 년이 지나고 중학교 마지막 학년까지 아무리 죽어라 공부해도 성적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십 삼등에서 십 팔등까지 거의 제 자리였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시험 때마다 손이 벌벌 떨려서 문제가 잘 안 보이고 답란에 제대로 색칠을 할 수 없고 아는 답도 틀리게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물건도 자주 자주 잃어버리고 짜증과 분노가 작은 일에도 솟구치고. 현실이 불만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영어 성적은 80점대였으나 영어 단어는 외울 수가 없었습니다. ABCD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보였고 영어문장을 읽을 때는 줄이 몹시 헛갈리는 영어 글 읽기의 어려움이 심해졌습니다.

중 3 겨울 방학 때는 영어 단어를 거의 외울 수가 없었습니다. ABCD순서가 뒤죽박죽 되고 줄줄 읽는 혼란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서 병원에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주의력 결핍증이라는 진단이 내려지고 메디페이데이트라는 약을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ADHD예요”, “아니요, 일반적인 ADHD는 아니지요”,

“주의력 결핍증 장애랍니다. 난독증도 아니예요, 이 아이는 단지 불안할 뿐이에요.”

“ 스트레스로 인한 그냥 강박증이지요.”

“이 아이는 더 이상 상담할 내용도 없고 정상이에요, 단지 예민할 뿐이에요.”

의사 마다 다른 증상을 말할 때 어머니와 저는 얼마나 기막힌 충격이었는지. 이리저리 흔들리고 까마득한 절벽의 밑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것만 같은 무게를 알 수 없는 고통. 2년 동안 일주일에 두 번씩 병원에

다니면서 상담도 받고 운동도 하고 약도 처방 받았습니다. 대기실에서 정말 뇌이상으로 저능아처럼 보이는 아이들이나 왕따로 초상집에 온 것처럼 심각하게 그늘진 아이들 사이에 섞여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자면 마치 바보나 정신병자 취급을 받는 제가 너무 싫고 절망적인 기분이었습니다. 뇌기능에 이상이 있으니 운동을 해야한다던 뇌전문 한의원에서는

“이 병신들아, 이 간단한 것도 제대로 못해”

라고 다그치는 치료사들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치료비도 6개월에 육백 만원 거액이었는데 아이들을 치료하는 과정은 그냥 체조활동 1시간이 전부였고 한약도 시중에서 30만원도 채 안되는 홍삼을 네 배 가량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여 한 번 먹게 하였을 뿐입니다. 처음 계약 시에는 삼 개월이면 난독증 증상이 없어진다, 난독증은 뇌기능 이상에서 온 것이다, 삼 개월 후에도 낫지 않으면 나올 때까지 치료한다라고 했는데 육 개월 뒤에도 전혀 차도가 없었고 칠 개월 뒤에는 다시 육 백만원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용도 처음 계약내용과 달랐습니다. 비용도 감당할 수 없었고 차도도 보이지 않기에 양방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 신경과에서는 제 증상이 과잉행동장애라고 했습니다. 과잉행동장애의 난폭하고 산만한 아이들에게 먹인다는 메디페니데이트를 의사는 58mg이나 처방해 주었고 그 약은 먹을 때마다 얼마나 독한지 속도 아프고 온몸이 떨리고 어지럽고 잠도 안 오고 입맛도 떨어져서 거의 밥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증상을 얘기해도 의사는 어떤 부작용도 없을 것이라고 그 약을 꼭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작용이 아니냐고 어머니는 안절부절하였지만 의사가 정말 안전한 약이고 효과가 있으니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집중력을 높일 수 있게 메디페니데이트를 꼭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저녁으로 그 약을 먹는 것을 꼭 확인하려 했습니다만 야간자율학습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약을 챙겨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저는 몰래 그 약을

거의 버렸습니다. 집중력의 효과는 거의 미미했고 온 몸이 아픈 통증과 부작용이 더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과잉행동장애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과잉행동 장애는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산만히 움직이고 난폭한 장난을 서슴치 않고 인간관계에서 사납고 거칠은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증상인데 저는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소심하고 조용한 아이였거든요.

신경과에 다니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상처였습니다. 어딘가 모자라는 아이들이랑 똑같이 취급되는 것도 싫었고 매주 병원에 다니느라 야간자율학습에 정기적으로 빠지는 것도 싫었습니다. 행여나 아이들이 알까봐 친구들과 속 깊은 대화 나누는 것도 꺼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병원에 다닌다면 차라리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어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몰래 약을 버리는 저를 때리고 야단치다가 속상한 어머니도 그 약을 먹어 보았습니다. 약을 먹어본 어머니는 물론 과잉행동장애가 아니니까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삼 일 동안 제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얼굴이 시꺼매지고 온 몸이 떨리고 쭈시고 아파서 일주일이나 일어날 힘도 없이 벌벌 사지가 떨리는 고통에 이렇게 지독한 약을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고 절대 안전하고 편안한 약이라고 하다니 의사에게 치떨리게 분노하셨습니다. 오히려 의사는 펄펄 뛰며 약을 꼭 먹어야 한다고 화를 내었지만 엄마는 용감하고 무모하게 병원을 그만두게 하셨습니다.

“이제 널 믿으마. 네가 바르고 도덕적인 선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는 네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렴.”

“누구든지 다 그래, 정신없는 게 당연하지. 네가 얼마나 힘이 들면 그랬겠니.”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고 구박하던 것도 여기 저기 물건을 준비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주는 것으로 어머니가 관계성을 바꾸었습니다. 어머니는 심리학이나 가족 상담에 대한 책을 수 십 권 도서관에서 빌려다가 읽으셨고 음악치료, 독서치료, 가족 상담 활동에 참여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위로와 평화가 힘이 되었기에 경직되던 안면 근육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저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상업주의에 휘둘린다고 무슨 기념일이든 일상 속에서 냉소적이었다가 그 뒤로는 친구들에게 준다면서 백 개도 넘는 초콜렛이며 과자들을 사서 나누어 주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굳어졌던 생활이 유머와 즐거움으로 유화되어 빛나는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병원에 다녔을 때보다 제 스스로의 정서가 안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안정감 속에서 영어 단어순서도 헷갈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새롭게 성장하고 싶은 스스로에 대한 긍정의 힘으로, 제 마음 속 깊이 숨겨져 있던 아버지를 간첩단 사건으로 몰고 가고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은 우리 사회에 대한 분노도 녹여 버렸습니다. 아직도 우리 가족의 명예는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 사건만이 우리 가족의, 그리고 저의 인생 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ADHD가 아니에요. 영어 난독증도 일시적인 불안이었구요. 정서상태는 밝고 안정되어 있어요. 순수하고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바르고 착한 아이예요.”

부모님과 같은 386세대였던 가족상담 전문 상담소장에게 심리검사를 받은 후에야 저와 어머니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난독증의 시간이 엄마의 자궁수술과 교통사고, 아빠의 정치활동, 평범하지 않은 가정의 위기와 함께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와 아픔의 결과였다는 것

입니다. 가족의 행복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아버지의 모습과 이로 인해 불안정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예민하게 수렴되었다는 것을 깨치게 된 것입니다. 유년 시절 아버지가 교도소에 계셨던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트라우마였던 것입니다. 정의로운 경찰관이 꿈이었던 저는 아버지가 범주자도 아니면서 도대체 어떤 죄를 지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지 어머니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는 것을 속상해 했고 유치원이나 놀이방에서 다른 아이들이 아빠 얘기를 할 때마다 다른 아이들처럼 아버지 얘기를 꺼낼 수 없어 놀림도 많이 받았고 속상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저는 언제나 유약했고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여덟 살 때 아버지가 출옥한 이후에도 남들처럼 아버지와 시간을 보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중학교 때 어머니가 수술과 사고로 세 번이나 병원에 입원한 몇 달 동안 살림과 간호와 학교 공부까지 도맡아 할 즈음 그 사이 아버지가 지방선거에 참여하여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것을 저는 엄청난 불안을 느꼈으면서도 억지로 불평 한 마디 없이 참아내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삶의 힘겨움이 분노와 고통으로 저를 불안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ADHD약을 일 년이나 먹었지만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처방전도 보여주지 않고 직접 약봉지에 넣어준 메디페이테이트의 약 부작용을 적은 주의사항을 아는 약사를 통해 찾아 보셨습니다. 거기에는 놀랍게도 심장마비와 뇌졸중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온갖 끔찍한 부작용 등이 있었고 심지어 다른 전문서적에서 찾아 본 부작용에는 식욕을 억제하고 성장 호르몬을 멈추게 한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약을 먹는 동안 원래 밥을 두 세 그릇씩 비우던 식욕이 거의 반 공기도 채 못 먹는 식욕 부진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1년에 7~8 센치씩 크던 성장이 그 기간에는 1센치도 크지 않았습니다. 제 키는 중1때 158센치, 중2때 164센치, 중3

때 175센치였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때 성장판이 멈추었을 지도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 약을 먹으면서 식욕이 4분의 1로 감소했고 밤에 거의 잠을 잘 못 잤고 그것이 성장에 지장을 주었을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천 만원이 넘게 들어간 오진입니다. 인간의 정신세계는 오묘하므로 감기나 몸살처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ADHD약은 너무나 지독하므로 함부로 처방해서는 안되고 대학병원에서는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약은 먹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부작용을 알았더라면 절대 ADHD든 아니든 그 독한 약을 먹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너무 속상해 하셨습니다. 양심수 가족으로 살아온 6년보다 제가 병원에 다닌 이년 반의 시기가 더 큰 고통의 상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현대산업사회의 경제불안과 인간소외로 어머니와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이 흥분과 주의력 산만, 인간관계형성의 어려움, 난폭함 등으로 ADHD 증후군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2000년대에 들어와 그 이전 10년보다 600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도 거의 비슷하거나 어쩌면 더 많을 지도 모릅니다. 중학교 국어선생님이신 어머니가 요즘 중학생들이 경제불안과 이혼, 가정파탄, 게임중독으로 너무 많은 아이들이 우울하고 산만하고 난폭하여 손댈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십니다. 게임중독에 빠지고 유아기 때부터 모국어보다 영어 교육에 노출된 아이들이 국어는 어렵고 싫어하는 과목이고 글읽기가 거의 안되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다고 고민하십니다. 반에서 거의 반 이상의 아이들이 언어구사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거의 난독증에 가까울 정도로 문법이 틀리거나 어휘력이 서툴습니다. 그 아이들 중 대부분은 ADHD 증상을 보이는데 그나마 ADHD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1%도 되지 않고 그런 아이들은 그나마 부모의 관심을 받는

아이들이나 것입니다. 치료도 물론 잘못된 치료일 수도 있지만.

제 경험을 길게 소개하였습니다만 제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청소년의 인권 문제라고 제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최소한 5년 이상 교도소에서 복역한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정신치료와 상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가정복지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인 사회범죄자에게는 교도소 복역이 가족들에게도 치명적인 정신적 고통이 됩니다.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상담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가끔 가정폭력이나 가정문제를 TV프로에 나와 해결하려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방영되곤 하는데 그것으로 가정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시청자의 입장에서 관음증의 오락프로인양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수준으로 그 프로를 보게 됩니다.

제 아버지의 경우는 시국사건으로 장기복역을 하였으므로 사회범죄자로 사회에 복귀할 수 없는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아니었지만 본인과 가족들은 엄청난 또 다른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진보진영에서는 그냥 그 모든 것을 본인의 신념과 선택으로 영웅시 할 뿐이고 보수적인 사회일반에서는 일반 사회범죄자들보다 더 큰 불만세력으로 적대시할 뿐입니다. 주목받지 못한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는 조사된 적도 없고 인권피해의 영역으로 간주된 적도 없습니다. 단지 불쌍한 역사의 피해자라는 식의 동정식 보도사례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ADHD나 난독증 검사 또는 심리검사와 상담활동이 국가적으로 지원받아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상담 비용은 의료보험비 되지 않아 진료비의 다섯 배가 넘습니다. 사실 약보다 상담활동이 더 중요한데 상담비는 의료보험이 되지 않아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엄두가 안나 갈 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 상담교사가 모든 학교에 상주하여 학생들의 정신적 문제를 바로 의사와 협진받고 상담하여야 합니다.

요즘처럼 교문 밖을 나와 거리를 걷다보면 몇 백 미터 가지 않아도 별의별 병원들이 다 있고 동네마다 약국천지인데 양호교사의 역할은 거의 전문화된 활동이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조금만 감기가 와도 조퇴나 외출을 해서 병원주사를 맞지 양호실에서 겨우 한 가지 종류밖에 없는 종합감기약은 거의 애호하지 않습니다. 뛰다가 넘어져 조금만 아파도 정형외과 가서 X레이 찍지 양호실에서 빨간 소독약 바르고 집에 갈 때까지 참지 않습니다. 양호실도 전문적 의료활동을 하는 공간이 아닌 몸살 난 아이들 잠자는 수면실이나 휴게실 구실밖에 하지 못합니다. 물론 학생들이 잘 알지 못하는 건강관리나 신체 검사 등의 서류를 정리 보관하기도 하겠지요.

요즘 아이들은 신체적 건강보다 정신적 건강이 더 심각합니다. 성적위주의 입시제도 때문에 이혼이나 다문화 가정, 폭력 아버지, 가출한 어머니 등 가족 해체와 가족 변화 때문에 사춘기 정서가 많이 불안정하고 왕따나 우울증, 아니면 야동이나 게임중독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는 학생들이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부 상류계층 지역을 빼고는 한 반에 반 이상의 아이들이 힘겹게 학교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신적 문제는 특히 신경정신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비싼 의료비 때문에 진짜 문제가 있는 중산층 이하의 가정에서는 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부유한 강남지역 학생들은 학습 증진 클리닉, 혹은 두뇌계발 센터 등 전문적 클리닉으로 정신이 이상한 아이들이 가는 곳이 아닌 건강한 정신을 더 편안하게 하는 정신보약이라는 차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문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양극화 현상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최근 명문대 진학의 40% 이상이 상류계층 학생들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마도 중산층 이상은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중산층 이하의 학생들은 경제적인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차원에서도 너무나 무관심의 영역에 놓여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학교 교육에 영어전담교사를 상주케 하고 교과교실 전담제, 학교 평가제 등을 실행하여 선진교육에 힘쓴다고 하나 그것은 외향적 화려함 속에서 오히려 진정으로 필요한 교육은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교실 전담제는 과목시간마다 학생들이 이동수업을 함으로서 교과전문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실의 필요한 교육장비들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의도인데 주요과목 수업시간마다 이동수업을 해야하는 주체인 학생들의 인간관계 형성도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왕따에 친구관계가 서투른 학생들은 이동수업을 하러 다니면서 함께 교실에서 안정적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담임교사는 지금처럼 한 교실 학생들을 전담하고 인격적인 정서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생 관리가 어렵습니다. 거의 이동수업을 해야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적관리나 출석확인 이상의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목고나 자율형 고교, 자립형 사립고 등 특화된 고교 교육은 거의 학교 성적 최상위 5%를 위한 세분화된 교육일 뿐이고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들러리입니다. 오히려 초등학교 때부터 특화된 고교에 진학하려고 더욱더 선행학습을 하고 중학교 때에는 밤 1시, 2시까지 고등학교 선행학습 때문에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고 또 우수한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하여 학교에 오면 이미 다 아는 내용이므로 앞드려 자거나 따른 중요과목 공부를 혼자합니다.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은 더욱더 자존감을 훼손 당하고 자아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이 두 가지를 이 사회복지에서 가장 소외된 학생들의 현실적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한 학기만 학교를 다니면 고교를 졸업하지만 돌아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관심을 받으면서도 가장 인권이 억압되는 곳 중에 하나가 학교이고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기는 여행을 통해 세상이 넓다는 것을 두루 경험하고 문학과 철학과 예술의 사색적 경험을 하면서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 기초 지식을 쌓는, 기쁨과 배움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학교현실은 새로운 지배계층을 재생산해 내고 양극화현상을 더욱 더 극대화하는 모순된 공간입니다. 이 비극적 현실 속에서 우리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수 많은

아까운 청소년들이 저의 과거처럼 시들고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비록 저도 많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제 상처를 극복하고 이제 대학에 진학해서 새로운 인생의 단계로 출발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다닐 적에는 제 학교 생활이 성적도 교육방법도 친구관계도 모두 최악이고 제 삶 전체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스스로를 긍정하려는 노력 속에서 지금은 만족과 긍정의 관점으로 제 삶이 참 가치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은 최상위권은 아니었지만 중학교 때부터 고2 때까지 쭉 선도부 활동을 5년 동안 해 왔고 한별단 단장, 동아리 회장, 학생회 도서부장으로서 다양한 학생활동과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보람있고 의미있는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봉사활동도 선도부활동과 남들이 하지 않는 화장실 청소를 자원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 84시간을 채웠고 지역사회 행사와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때 자원봉사를 하면서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시민의식을 배우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나 <더불어숲>은 어린 시절 책꽂이에 꽂혀 있어서 노상 눈으로 익혀왔던 책이고 사실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중학시절부터 <체게바라 평전>이나 <김산평전><러시아혁명사>같은 책을 탐독하였습니다. 체게바라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역사의 인물입니다. 체 게바라 평전을 읽은 그 날부터 인터넷에서 체 게바라 사진을 찾아 책상에 붙여놓기도 하였습니다.

폭 넓은 여행도 많이 했습니다. 겨울 방학과 고2 겨울방학 때는 스키캠프와 동유럽과 서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일정이기는

했지만 가족없이 저 혼자서 안면이 없는 사람들과 동행한 여행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사하라 사막이나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혼자 여행하고 싶어했는데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으시다가 공부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저를 보고 고등학교 때 입시에 얽매이지 말고 십 대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려면 열정과 야망을 가져야 한다고 여행을 보내 주셨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입시에 시달리는 동안 공부하는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는 것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여행을 통해 저는 타인과 어울리는 법과 넓은 세상에서 정말 배울 것이 많다는 큰 교훈을 얻고 마음의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저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온 것을 이제는 이해합니다. 외동이어서 오히려 형제가 많은 아이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성장했고 병원에 다녔던 그 치명적 경험은 고통스러우나 더 많은 문제를 고민하게 해준 나름대로 의미있는 치료의 시간이었다고 정리합니다. 이제 6년을 갇혀지내고도 아직도 아무 것도 보상받지 못한 아버지의 삶으로부터 상처받은 제 유년기의 트라우마와 건강한 작별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치료의 힘은 치료라는 단어에 행복과 위로를 느낄 수 있는 단계로까지 치료해줍니다.

이제 청년이 되는 열 아홉의 나이부터 저는 스스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편견과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여행만으로 넓은 세상이 아닌 제 삶의 일로써, 학문으로써 넓은 세상에 발 딛으려 합니다. 제 꿈은 열 두 살 어린 시절부터 칠 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군인이 되기를 소망해 왔습니다. 남들은 의무 복무 기간 24개월도 피해가려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심지어는 대한민국 국적마저도 포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직업군인, 가장 위험하고 몸을 던져야만하는 군인의 길을 의연히 가고 싶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는 어디에서든지 분쟁과 소외, 가난과 기아, 기회 불

균등과 불평의 잘못된 정치의 결과로 혼돈과 모순으로 부패합니다. 집단과 사회를 다스리는 정치의 힘은 사람들이 스스로 주인의 되어 다스리는 민주주의의 정치철학에서 비롯되지만 민주주의는 막연한 의식의 힘이 아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이어야 합니다. 그 힘의 기초는 국방력이고 그 힘을 잘 발휘하려면 사회를 잘 알아야 하기에 사회학을 전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알고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이 사회의 진정한 일원으로서 사람들을 지켜내는 역할, 그리고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이자 수호자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분단조국의 가슴아픈 현실 속에서 가장 권위적이고 보수화된 이념으로 퇴락한 군인집단을 진보적인 통일주체로 이끄는 선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꿈은 현실적으로는 어쩌면 평범하지 않고 평탄할 수도 없는 남다른 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자족적인 소시민의 삶보다 더 큰 대의를 위하는 역사와 민족의 영광스러운 삶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가장 진보적인, 자유와 정의의 양심이 살아있는 이 사회의 인권 수호자로서 실천하는 지식인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 기회를 한 번 더 되새기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제 경험과 제 의견이 담긴 인권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한 글이나마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참되게 바로 서는데 작은 힘을 보태고자 소망 담아 보냅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싶은 이 세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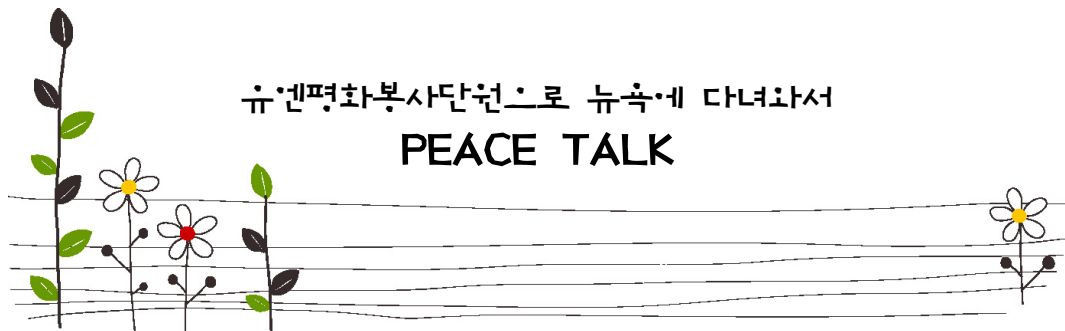
- 그 하늘이 허락하신 참됨을 구현하기 위해

애쓰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특히 이 땅의 청소년들을 위해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의 길목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작은 인권수호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열 아홉 청년 드림.



유엔평화봉사단원으로 뉴욕에 다녀와서

PEACE TALK

태원고등학교 2학년 홍석환

세계인들이 꿈꾸는 평화로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그들은 지구촌 평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그들은 세계평화를 위해 자신의 어떤 재능을 나눠주고 싶어 할까?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청소년 유엔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뉴욕에 다녀온 나는, 세계인들이 생각하는 평화(PEACE)의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었다. 뉴욕은 세계의 인종을 모두 만날 수 있다는 국제도시이다. 실제로 뉴욕에 있는 동안 미국인보다 중국인, 일본인, 프랑스인, 영국인, 러시아인, 멕시코인, 칠레 등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났다.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세계인들이 꿈꾸는 평화로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그 답을 찾아 길거리 리서치에 나섰다.

60여 명으로 구성된 우리 유엔평화봉사단은 “어떤 재주를 지구에 나눠줄 것인가?(Share out Your Talent with the Earth)”라는 큰 주제 아래 유엔본부, 센트럴파크, 뉴욕 시내 등에 각각 흩어져 길거리 평화리서치를 실시했다. 리서치의 주요 내용은 “세계평화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세계평화를 위해 어떤 재주를 나눠주고 싶은가?”였다.

리서치 결과, 세계평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기아(hunger), 질병(disease),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환경공해(environmental pollution), 물 부족(water shortages), 에너지 고갈(energy depletion), 전쟁(war), 종교(religion)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계평화를 위해 나눠주고 싶은 재주로는 요리(cooking), 건강(health), 사랑(love), 나눔(giving), 음악(music), 미소(smile)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리서치 결과가 재미있지 않은가! 세계평화를 방해하는 첫 번째 걸림돌도 먹는 것이고, 세계평화를 가져오는 첫 번째 재주도 먹는 것이라니 말이다. 이렇듯 인류가 꿈꾸는 평화로운 세상은 그렇게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다. 그저 누구나 잘 먹고(cooking) 잘 사는(health), 그런 소박한 세상을 소망한다. 그것이 바로 인권, 즉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출발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둘러보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매일같이 3만 5천 명의 고귀한 생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먹을 것 천지인 것처럼 보이는 이 지구촌에서 2초에 1명꼴로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는가!

인간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음식물은 하루에 고작 2720kcal. 현재 전세계가 공급할 수 있는 곡물의 양은 세계인이 3500kcal씩 나누어도 될 만큼 풍족하다고 한다. 문제는 부익부, 빈익빈이다. 일반적으로 부유한 나라들은 토양도 비옥하고 기후도 온화하다. 반면 가난한 나라들은 땅도 척박하고 기후도 나빠 가난과 질병, 기아로부터 벗어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부유한 나라에도 거지는 있다. 하지만 그들의 굶주림은 적어도 인간의 힘으로 어찌지 못하는 하늘의 재앙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에서 낙오된 결과이다.

왕왕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대외원조가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지원은 순수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나눔'이 아니라 무기수출의 보상 등과 같은 정치적 배경 아래 기브애틀테이크(give-and-take)인 경우가 많다.

이제 지구촌 전체에 순도 100%의 ‘나눔 바이러스’를 퍼뜨려야 할 때이다. 기아 퇴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가족전체가 다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숙제이기 때문이다.

“나에겐 다섯 아이에게 먹일 음식이 없어요. 내가 선택한 길은 두 아이를 살리기 위해 세 아이를 노예로 파는 것이었어요. 만약 다섯 아이를 모두 살리고자 한다면 다섯 아이 모두를 잃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 힘이 남아있는 세 아이를 팔아 어린 두 아이를 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를 견디지 못하고 두 아이가 저 세상으로 떠났어요.”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한 작은 나라, 말라위에 사는 한 여인의 절규이다. 말라위 사람들의 평균 희망 수명은 37살이고, 4분의 1의 아이들이 그들의 5번째 생일을 넘기지 못하며, 5살 이전의 아이들 중 48%는 영양실조라고 한다.

우리 돈 2만원이면 아프리카의 한 가족이 한 달 내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돈이다. 영양과잉으로 비만과 싸우는 배부른 아홉 명이 처절하게 굶어 죽어가는 한 명을 돕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내 비록 저주받은 검은 대륙으로 달려가 가난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 슈바이처가 될 수는 없어도 내 용돈의 일부를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지금 당장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세계평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나는 매달 용돈의 1만원을 절약하여 국제백신연구소(www.ivi.int)에 후원회 기금을 내고 있다. 우리나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백신연구소(IVI)는 주로 개발도상국가 어린이들을 위해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고 도입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국제 연구기관이다. 나의 작은 정성이 모여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고통 받는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값진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밖에도 지구촌 평화를 위해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도 많다. 물 한 방울 아껴 쓰는 것에서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 쓰지 않는 전기 플러그를 뽑는 것,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 내 가족과 친구, 이웃에

게 친절하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등이 모두 지구촌 평화를 불러오는 마법의 주문들이다.

내가 꿈꾸는, 그리고 세계인들이 꿈꾸는 평화로운 세상의 모습을 'PEACE' 라는 철자에 담아보았다.

What is not for PEACE?

P is not for painful.

E is not for Evil.

A is not for Angry.

C is not for Cold.

E is for Earth.

PEACE is not painful, evil, angry and cold earth.

Then what is for PEACE?

P is for Perf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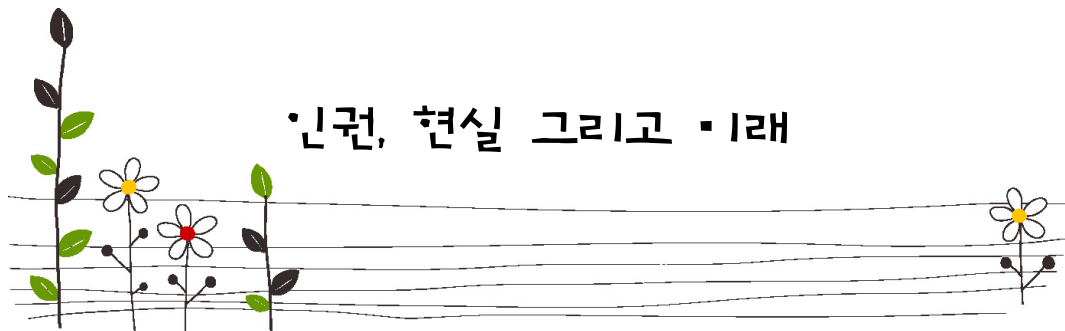
E is for Energetic.

A is for Amazing.

C is for Creative.

E is for Earth.

PEACE is perfect, energetic, amazing and creative earth.



영양여자고등학교 1학년 최정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권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것도 단시간에 얻은 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인권의 필요성을 느끼고 오랜 시간을 올바른 인권을 가지기 위해 투쟁해왔다. 이처럼 과거에 인권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자기가 인권을 누린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인권을 보장받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그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인권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빠질 수 없는 한 인물을 떠올려 본다.

내가 생각해 볼 때 인권을 신장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은 전태일이다. 전태일은 자신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일한 인물이다. 전태일은 17세라는 어린 나이에 평화시장의 의류제조업 회사의 재단사로 입사했다. 그는 그곳에서 봉제공장 속의 나이 어린 소녀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중노동에 박봉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의분을 느꼈다. 그 때부터 그는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바닥으로 떨어져버린 그들의 인권을 끌어올리는 것과 같았다. 그

러나 그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인들은 어떠한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또한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이 있지만 단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무정하고 미래가 없는 사회에서 그는 회의를 느끼고 결국 노동자들의 잃어버린 인권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노동자에게도 인권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생각이 옳음을 증명했다. 우리가에게서 배워야할 점은 자기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전태일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왔지만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만 했지 바꾸려고 하지는 않았다. 우리도 목숨을 바쳐야한다는 소리는 아니다.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현재 우리는 전태일의 노동자의 인권 문제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인권문제에 직면하였다. 바로 ‘흑인 원어민 교사’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덩달아 원어민 교사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어떤 학교에서 흑인 원어민 교사들은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다. 다른 경우도 많겠지만 굳이 예를 들자면, 학생들이 선생님을 보고서도 인사를 하지 않고 피해간다거나 말 거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은 일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인에 대한 무한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그들보다 못한 것이 없는 데도 스스로 움츠러드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반면 흑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백인에 비해 우월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의식의 차이를 학교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소리다. 뭐랄까 흑인 원어민 교사들이 학교에 있으면 학생들이 약간 기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 사람들과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다가가기 힘든 점도 있겠지만 외국인에 대한 차이가 머리 속에 박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흑인을 무시하듯이 백인 또한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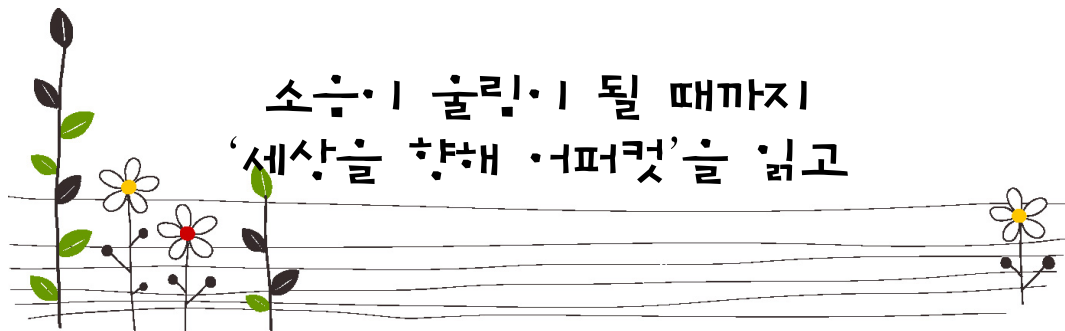
황인종을 무시해 왔다. 지금은 그러한 현상이 덜해졌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않았다. 백인인 그들에게는 유색인종 모두가 자신보다 열등하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인에게는 거의 맹목적인 존경심으로 다가가서 우리를 낮추면서까지 그들에게서 우리 것보다 뛰어난 무언가를 배우려고 한다. 반면 흑인에게는 미개한 문명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에게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처음부터 우리 문화가 그들보다 뛰어나다는 가정 아래 교류를 단절시킨 것이다. 하지만 흑인의 문화에서 우리보다 나은 것은 배워야 하고 때로는 그들의 것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큼이나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 즉, 독특하다기 보다는 슬픈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이와 마찬가지로 백인의 문화에서도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우리나라에 맞지 않거나 우리의 관점에서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역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다간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십상이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외국인인 이방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것과 같다. 그냥 이름표가 아니라 인종에 따라 다른 색깔로 완전하게 구분해버린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것이다. 철저하게 민족사회인 우리나라는 자신과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기피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들만의 이기심 속에서 그러한 외국인들이 희생되는 것이 아닐까?

흑인 원어민 교사의 경우에서 보듯이 능력 면에서는 아무런 차이도 없는 그들이 단지 생김새만 가지고 차별받는다는 것은 사람의 인권을 무시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사회적으로 관심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권은 개선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기 보다는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슬프게도 아직까지도 이러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그것은 전태일과 같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누가 우리사회가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는가? 경제면에서는 선진국일지 몰라도 사람이 살아가는 인권을 포함한 사회면에서는 후진국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인데 말이다. 사회가 생겨난 이유가 사람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인 것처럼 경제가 생겨난 이유도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잘하는 것을 교환하면서 상호 간의 발전을 꿈꾸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인권은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먼저 신경 써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이룩한 인권을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말 인권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생길 때 우리 사회는 제 2의 전성기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기 전에 우리나라를 자랑하지 말아야한다.

내가 우리사회의 전태일이 되기를 바란다. 내가 그와 다른 것은 비정한 사회에 회의를 느끼고 불꽃처럼 짧은 삶을 살다가기 보다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쟁취하는 사람이 되겠다. 나의 생명이 다 할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선진국이 되도록 만들겠다. 전태일은 자신의 능력을 다하지 못했지만 그를 본받으려는 나는 그의 뒷까지 최선을 다하여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나라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 노력의 결실을 맺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소음이 울림이 될 때까지 ‘세상을 향해 어퍼컷’을 읽고

북일고등학교 1학년 유재룡

도서관을 서성이다 한 책이 눈에 띄었다 ‘세상을 향해 어퍼컷-답답하고 억울한 세상에 통과한 한 방을 날린 서른여덟 명의 용감한 사람들’. 곧 바로 이런 물음이 들었다. ‘그들이 용감한 것일까? 아니면 내가 비겁한 것일까?’.

이 물음에 답을 얻기 위하여 책을 빼들었다. 데스크에서 대출을 했다. 인권,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무관심 했던 내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다. 과연 이 책은 내게 그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러나 난 알게 된다. 누구도 답을 해줄 수는 없다. 나 스스로 느껴야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작은 관심에서부터 라는 것을.

이 책은 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에 억울함을 진정한 ‘용감한’ 서른여덟 명의 이야기를 묶어놓은 책이다. 그들의 행동은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이끌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와 같은 일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아마 작지만 소중한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쏟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 변화의 시작은 ‘관심’이었다.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차별과 무관심 속에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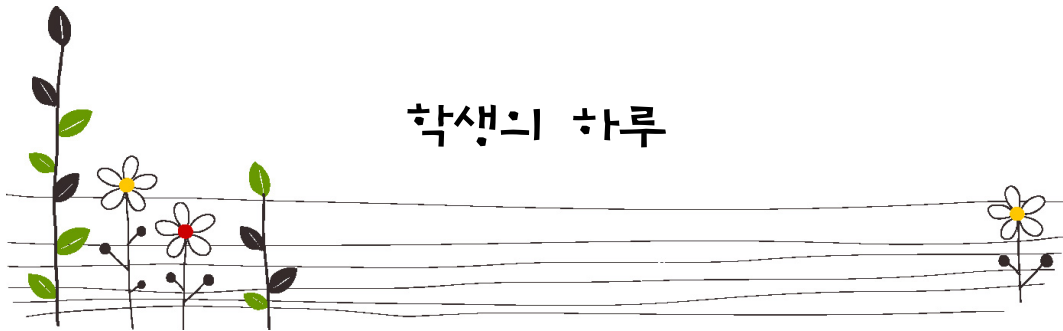
쳐 받아왔다.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두려야하는 당연한 권리에 관심 가져주지 못한 우리도 간접적인 가해자였다. 차별의 장막을 거두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권리에 관심을 가져 주는 것, 그것이 시작이다. 물론 사회전반에 걸친 이 거대한 장막을 거두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진다면 장막은 거두어지고 희망찬 밝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또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권리침해의 피해자는 소수자들만이 아니다. 권리침해가 일상화 되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도 많은 인권침해를 받고 있었다. 나만 해도 그렇다. 교실에서의 인권 찾기 부분을 읽으며 내가 얼마나 나의 권리에 무관심 했는지 느꼈다.

대표적으로 작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도 그렇다. 전국의 학생들이 일어났다. 1987년 대학생들이 주가 되었던 거리에는 중고등학생 주를 이루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 까지 말이다. 언론은 떠들썩했고, 저녁마다 촛불이 거리를 메웠다. 그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우리의 집회 동안에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나만을 위해 책상에 앉아 있었다. 무엇이 나를 일어서지 못하게 했는가? 어른들의 만류? 정보의 부족? 아니다. 나의 내면 속의 무관심 그리고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웬 교육?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다면서?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학교 공부가 아닌 나의 권리에 대한 교육이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교육의 부족. 머릿속은 각종 지식을 교육 받았으나 가슴속 열정을 이끌어낼 교육은 없었다. 아니 그 교육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옳을 것이다. 그런 교육에 대한 관심도 아예 없었으니까. 이렇듯 나는 나의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 보수적이었고 바꾸기보다 적응하려고 했다. 난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보수적 관념이 지배적이었고, 그들을 비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며 흐르는 물에 바위가 닳아 없어지듯 천천히 그리고 조금

씩 굳어있던 나의 마음도 녹아 관습, 보수의 틀을 깨고 흐르기 시작했다. 이제 나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인식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자신의 권리에 관심을 갖는 것의 의의는 크다. 자신의 권리를 분명히 인식할 때 이웃의 권익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나도 언젠가는 그들처럼 사회변화의 중심 세력으로서 권리를 수호하는 인격주체가 될 것이라 믿는다.

끝으로 나에게 이 책은 인권에 대한, 그리고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의 시작이 되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무관심하고 수동적이었는지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말한다. “당장의 나보다 미래의 누군가를 위해!”. 그들의 절규는 소음에서 울림으로 바뀌고 있다. 권리를 지키기 위해, 누리기 위해 오늘도 뛰고 있는 그들!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들! 신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던가? 그러나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창조해야 한다. 그들은 오늘도 우리의 인권을 창조하기 위해 뛰고 있다. 나라고 못할 것이 뭐 있는가? 나는 이제 자신감을 얻었다. 나는 완성된 인격주체로서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권리를 외칠 수 있다. 무관심하고 머뭇거리는 다른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조금만 눈을 돌리고 관심을 가져라. 작은 관심으로도 우리가 그들이 될 수 있다. 작지만 소중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용감한 그들. 용감한 우리가 모여 차별의 장막을 걷어낼 것이다!



학생의 하루

경희고등학교 1학년 최성태

저는 학생입니다. 학교에 다니지요. 그리고 공부를 합니다. 인권과는 상관 없게 보이는, 그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인권과는 상관없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학생들은 인권과 관련이 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은 아침 일찍, 아직은 더 자야하는 나이에 일어 납니다. 학생은 키가 크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잠을 더 자고 싶습니다. 학생의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학생은 학교에 가야만 합니다. 학생은 일어나서 씻고 갑니다. 밥을 먹을 시간은 없습니다. 지각을 하게 된다면 학교에 늦기 때문이지요.

학생은 학교에 도착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흔히 두발검사라고 하는 이유없는 머리검사를 당하게 됩니다. 학생은 남자입니다. 남자는 머리가 짧아야 한다고 합니다. 머리가 다소 긴 학생은 붙잡히게 되고, 벌점을 받게됩니다. 지루한 조회를 마치고, 주린 배를 움켜쥐며 수업을 듣지요. 학생은, 밀려오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게 됩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부릅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학생이 잠을 자서 화를 이기지 못합니다. 학생은 맞게 됩니다. 학

생은 뛰어가야만 합니다. 늦게나간다면, 더 맞기 때문이지요. 학생의 얼굴에는 고통이 역력합니다. 학생은 때를 맞고 비로소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학생은, 갑작스러운 전화가 오는 것을 봅니다. 학생은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받고 싶었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계신다면, 학생의 핸드폰을 빼앗아 압수를 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학생은 늘 왜 선생님이 자기가 돈을 주고 산 핸드폰을 빼앗는지 궁금해 합니다.

점심시간입니다. 학생은 배가 고프지만,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학년이 낮은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늦은 시간에 밥을 먹을 수 있고, 학생증이 없는 학생은 더욱더 늦게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학생은 늦은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 다. 만약 늦게 된다면, 학생은 지각 표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대학에 갈 때 불리해진다는 사실을 학생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은 밥을 빨리 먹습니다.

정규수업이 끝났습니다. 학생은 지치고 피곤한 몸을 누이고 싶지만, 학생에게는 “방과후”라는 또 다른 수업이 있습니다. 학생은 하기 싫지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 않는다면, 선생님께서 학생을 때릴 것이고, 욕보이게 할 것입니다. 학생은, 기분이 나빠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학생은 피곤한 몸을 다시 책상에 앉힙니다.

방과후가 끝나고, 학생은 정말로 피곤합니다. 눈이 뜨이질 않고, 심신이 괴로워지지요. 그렇지만, 학생은 야간“자율”학습을 해야만 합니다. 대입성적이 곧 고등학교의 등급으로 나뉘는 현실 앞에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야자”를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학생이, 야자를 하지 않는다면, 방과후처럼 학생은 맞고 욕보이게 되겠지요. 학생은, 다시 책상 앞에 앉습니다.

학생은 정말정말 집에 가고 싶습니다. 눕고 싶습니다. 하지만, 좋은 대학교는 많은 돈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학생의 부모님의 믿음에 따라 학생은 학원에 갑니다. 그곳에서 많은 숙제를 하고, 많이 맞고, 많은 시간을 앓게 되겠지요.

위에 쓴 글은 대한민국의 학생들과 크게 다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인지라, 학생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는 생활을 한다고 봅니다. 각설하고, 위 학생의 생활은 많은 인권문제를 겪고 있지요. 우선, 잠 잘 권리와 먹을 권리 등 헌법에서 보장되는 인간존엄가치나, 행복추구권을 누리지 못하지요. 학생이 원한다면, 학교를 그만 둘 수 있다고는 하나, 부모님의 동의 없이는 실제로는 쉽지 않은 행동이지요.

다음으로는 신체의 자유를 들 수 있습니다. 학생은 맞을 이유가 합당하지 않고, 맞기 싫은데도 맞는 강제적인 체벌을 당하게 되지요. 이는 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당하는 두 발검사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지품에 관련된 것입니다. 학생은, 자신의 사적인 물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학교가 원한다면 그러한 물품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지요. 그리고, 학생이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는 물품을 선생님들은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어찌 된 것 일까요? 또한, 급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소위 “급식카드” 라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학생은 밥을 마음대로, 원하는 시간에 먹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있더라도 많은 학교에서는 식당이 작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학생들을 밥을 먹이기 위해 빠르게 밥을 먹으라고 “강요”합니다. 천천히, 친구들과 대화하며 먹고 싶은 학생의 건강과 행복따위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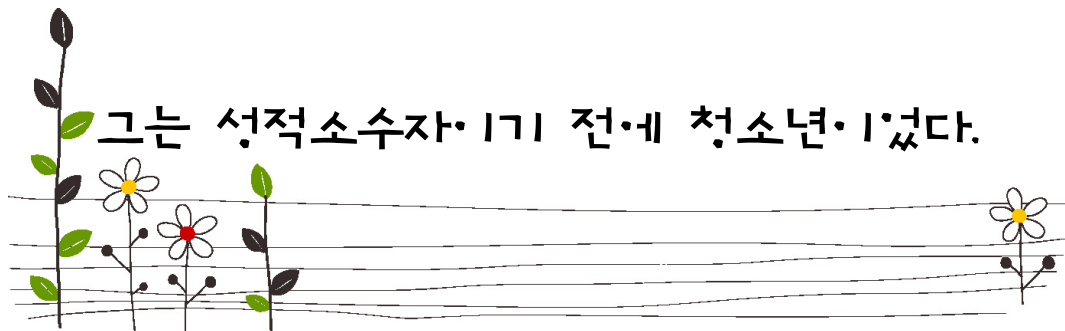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학교 정규수업이 끝난 후입니다. 사실 정규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은 자유롭게 놀 수 있습니다. 거리를 뛰어다니며 체력을 증진시키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학생들은 반 강제적으로 정규수업 후에 학교와 학원에 붙잡히게 됩니다. 학생들은 정말정말 괴롭습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많은 중학생 이상의 학생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권문제에 시달립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알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깝지요. 물론, 알면서도 모른척 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결국 대한민국 학생들은 많은 인권문제를 겪으면서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지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인권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고, 관심을 조금 갖고 난 뒤에도 알면서도 모른척 했지요. 단지 학교에 “반항”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좋지 않게 보일까봐, 그리고 대학에 가는데 불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마음껏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직도 저는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렇게 앉아서 지켜보기만 한다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조금 더 자고, 키가 조금 커지고, 머리를 기르고, 핸드폰을 마음껏 쓰고, 밥을 천천히 먹으며 방과후에는 즐겁게 논다고 인권이 보장되고, 행복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을 책상앞에서 친구들과 경쟁해야만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까요? 복종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단지 “원하는 것”을 위해 공부하기를 강요받고 바쁘게만 살아가는 것 보다, 천천히 조금은 즐기면서, 그리고 쉬엄쉬엄 쉬어가는 것을 원할 겁니다. 아니, 원합니다.

사실,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보자면, 마음이 아프게도 이미 그들은 차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많이 때리고, 성적이 좋은 학생은 거의 때리지 않더라도 토를 달거나 불만을 표시하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머리를 기르고 싶은데도 머리를 잡아도 불만은 표시하지만, 그것이 부당하다고 이야기 하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야자를 강제로 시키면 좋은 학교라는 이상한 생각이 많습니다. 저부터가 그렇고, 저의 주위사람들 모두 그렇습니다. 이미 모두가 차별에 익숙해져있고, 자신의 권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뒷전에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학생들의 작은 목소리가 있어도 쉽게 무시당하기 십상이지요. 저의 작은 생각으로는, 이러한 학생들의 목소리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비단 학생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 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용인 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유채운

캐나다 빅토리아에서 이모님과 함께 생활할 시절, 나는 공립 중학교에 다녔다. 빅토리아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州)의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향토적인 면이 다분히 있고 사람들의 심성이 다정다감하여 웬지 모르게 시골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도시였다. 적당한 풍요와 더불어 조용하고 행복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것이 그곳 사람들의 모토 같았다. 그렇지만 빅토리아의 사람들은 영국 노인들이 많은 여느 토속적인 도시들이 그렇듯이 어딘가 보수적인 군데가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나는 공립학교에 다님으로 인해 개방적이고 자유스러운 아이들을 자주 대면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학교 내에서의 관용과 이해에 대해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그리고 학교 전체의 체제와 분위기에마저 스며든 ‘인권 존중’의 문화가 강하게 느껴지는 곳이었다.

캐나다의 공립학교에서의 ‘인권 존중’이란, 서로의 인격을 인정해주는 것을 뛰어넘어 사생활, 특히 상대방의 개성의 완벽한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타인의 경제적, 신체적, 또는 취향의 특이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그 문제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다. 교

내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여러 관용적 습관 가운데서도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바로 학교가 성적소수자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였다.

그곳의 또래 아이들은 섹슈얼리티에 구분을 두고 사람을 가려 사귀는 짓 따위는 하지 않았다. 이미 상당수의 성적소수자 학생들이 공개적으로 커밍아웃을 한 상태인데다 공공연히 연애를 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이의제기나 혐오감 표현은 금기시되듯 했다. 학교 구성원들에게 ‘호모포비아’라는 것은 무지한 인습에 불과했던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는 꿈꿀 수도 없는 성적소수자들을 위한 성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었다.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교육이 아닌, 성적소수자들을 ‘위한’ 교육 말이다. 아직까지 대한민국 내에서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청소년들을 위한 피임교육’ 따위의 주제는 말을 꺼내기도 어려운 문제인데 반해, 빅토리아의 청소년 성적소수자들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이성애자 청소년들이 누리는 권리를 똑같이 누리고 있었다. 이것이 이들과 내가 귀국한 뒤 만나게 된 한국의 여러 청소년 성적소수자들과 다른 유일한 점이였다.

물론 국내에서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레즈비언 인권연대,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등 수많은 단체들을 통해 당당히 성적소수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진취적인 성적소수자들은 상당 수 존재한다. 그러나 성적소수자의 ‘존재의 인식’부터가 느렸던 대한민국의 성적소수자 권리 운동은 서양 국가에 비해선 아직 어려도 한참 어리다. 퀴어문화축제, 서울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의 줄임말)영화제 등등 많은 이벤트도 개최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것들의 존재조차 까맣게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가 성적소수자들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못한 것이다.

국내의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누구보다 차별받는 성적소수자 집단은 바로 청소년 성적소수자들이다. 이들은 배움의 터가 되어야 할 학교에서 또래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정신적으로 착취당한다. 열악한 사춘

기의 혼란과 방황을 주위의 보살핌으로 견디어 내야 할 시기에 오히려 온갖 정신적 고통, 신체적 고통으로 인해 황폐해 지는 것이다.

내가 국내 청소년 성적소수자들의 인권탄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서진욱이라는 양성애자 친구를 만나고 나서 부터이다. 진욱이와 나는 중학교 때 입시학원에서 우연히 안면을 트게 되었다. 처음 만난 날 우리는 할리우드 유명배우 톰 크루즈가 동성애자라는 당시 유행하던 소문을 주제로 농담을 나눴었다. 대화를 통해 내가 섹슈얼리티 문제에 관해 개방적이라는 것을 눈치 챈 그가 나에게 커밍아웃을 한 것은 일주일 뒤였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초등학교 때 이미 받아들인, 햇수로는 5년 째 양성애자였으며 동네 형과 모종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또한 진욱이는 중학교에 입학한 뒤로부터 정기적으로 서울의 성적소수자 인권센터를 방문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정립이 잘 되어있는' 타입의 양성애자였다. 나는 언젠가 그가 열을 올리며 토로한 사실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

“보통 성적소수자란 달리 청소년 성적소수자는 대부분이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져있지 않은 상태야. 사회, 집, 학교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내면의 갈등으로 자기혐오를 겪는 애들도 많이 봤어. 하루하루를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서 살아가는 애들이라고. 너는 개네들 입장에 서 봤어?”

진욱이는 학생 신분이 대한민국의 청소년 성적소수자들에게 굴레처럼 씌워지는 하나의 억압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방법의 따돌림, 교사의 무관심 또는 차별, 그리고 부모님의 부정.....진욱이는 이런 일들을 이야기해주면서 깊고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는 학교야말로 청소년 성적소수자들의 인권이 짓밟히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듯 진취적이고 당당한 모습만을 보여 왔던 진욱이가 어느 날 학원에 멍투성이가 된 얼굴을 하고 나타나, ‘우리 학교 3반 새끼들한테 맞았어.’ 라고 묵묵하게 말했던 일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용감하기도 하지, 교실에서 커밍아

웃을 시도한 후배를 옹호하다가 그 소문이 퍼져 소위 주먹질 좀 한다는 아이들에게 집단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했다. 안타깝게도 그 반의 남자애 한명이 진욱과 동네 형의 관계를 눈치 채고 있었던 것이다. 아웃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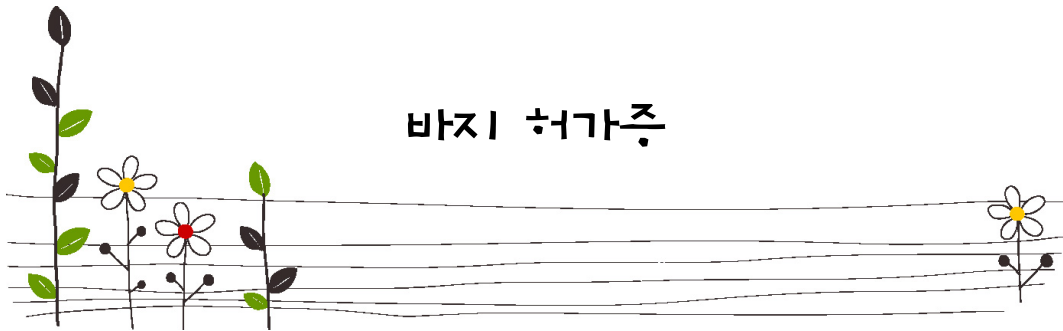
구타사건 뒤 진욱이와 그가 다니던 학교의 학생들과의 대립은 점점 더 심해져서 그 이후로 듣게 된 이야기는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구정물을 머리에 맞았다느니, ‘꺼져. 게이 새끼야’ 라는 소리를 들었다느니, 교무학사부장에게 불려가서 전학을 권유받았다느니 하는 삼류 드라마 같은, 그것이 현실에서 일어나서 더욱 마음이 아렸던 이야기들뿐이다.

그리고 그 해 9월 달, 준비하던 고등학교 입시를 치르지 못한 채로 진욱은 내 눈앞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우리가 만난 지 7개월 만이었다. 혹시 죽지는 않았는지, 자살 미수를 일으켜 정신 병원에 가있지는 않는지, 온갖 걱정을 하고 있던 나에게 마침내 연락이 도착한 때는 겨울방학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그의 부모님이 분개하셨다고 했다. 무지한 학교와 교사들은 진욱이라는 죄 없는 별종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고, 그저 예전에 해오던 것처럼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해 그를 외국으로 떠넘긴 것이었다. ‘캐나다에 있는 작은 아버지 댁에서 지내고 있어.’, 이 놀라운 문장 하나만이 그 암울하고 긴 메일 가운데 나의 기분을 풀어준 유일한 소식이었다. 캐나다에서라면 그는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아직도 믿고 있다.

진욱이와의 만남 이후로도 나는 계속하여 청소년 성적소수자들과 마주쳤으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역겨운 이야기들을 들으며 국내 학교와 사회의 아집과 무지에 대해 개탄하게 되었다. ‘게이’라는 단어가 욕설로 쓰이는 학교에서 이들이 배울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이 가능하긴 한가?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곳에서 청소년 성적소수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자신을 인정하고 드러내려 할수록 즐거운 학창시절은 이들에게 점점 더 멀어져가는 꿈이 될 뿐이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17세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여성, 아동, 빈민층 등의 인권추구 투쟁 역사를 배운다. 그들의 인권은 당연한 것이라고 믿는다. 자신들의 인권도 당연한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적소수자들을 우롱하고 무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일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청소년 성적소수자들도 연약한 사춘기의 소년소녀들일 뿐이라는 것을. 그들에 대한 무지의 극복과 근거 없는 인권 유린의 근절이 우리 사회를 또 다시 한 발자국 나아가게 할 것을. 그리고 그들이 빼앗긴 세상에서 한 인간으로써 아름답게 살아갈 권리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책임을. 진육을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성적소수자이기 전에 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을.



바지 허가증

창현고등학교 1학년 정소희

나는 창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1 여학생이다. 나는 여학생이지만 바지를 입고 학교에 다닌다. 우리학교는 바지를 입고 싶다면 학교 학생부에 가서 정당한 사유와 함께 '바지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나는 중2때 설악산으로 수학여행을 갔다가 돌이 굴러와 내 다리에 상처를 냈다. 그 당시 나는 다쳤던 다른 세명의 학생들보다 외형적으로 더 큰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나는 중학교 내내 바지를 입고 다녔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의 다른 점은 바지를 입을 때 다른 사람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학기 초에는 바지를 입는다는 기쁨에 매달 바지 허가증을 갱신하는 것은 아무런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잘못을 하면 바지허가증을 빼앗김과 동시에 머리를 1센티로 잘라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다. 나는 바지를 입는다는 이유로 내가 무슨 죄인인 것 마냥 허가를 받고 또한 내가 잘못을 하면 바지 허가증을 빼앗긴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치마를 입고 단정하게 다니는 사람은 여자여야 하고 바지를 입고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은 남자여야 한다' 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던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내 바지 허가증을 뺏는다는 이야기를 나에게 했고,

나는 이러한 현실에 화가 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많이 울기도 했다. 게다가 사회의 관습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눈에 띄는 것처럼 나도 학교의 관습에 벗어나니 다른 사람들의 눈에 특이하게 보이거나 보다. 그래서 인지 사람들이 심지어 선생님조차 내가 바지를 입는 이유를 궁금해 한다. 더러는 나의 상처를 보여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이러한 사람들의 사소한 행동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결과 나는 학교가 가기 싫어지고 우울하다. 만일 학교에서 여자들도 자유롭게 바지를 입게 해주었다면, 나는 특이한 아이가 아닌, 단지 바지를 입는 여학생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면 나는 중학교 때처럼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남자는 바지만을 입어야 된다는 것 또한 엄연한 남녀 차별이다. 더 나아가 교복을 변형하여 입는 것이 왜 하면 안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선생님들은 단정하지 않고 학업 분위기를 흐려 놓을 수 있다는 걸 이유로 든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엄청 크고 자신의 몸에 맞지도 않는 교복을 입는 것이 단정하다고는 생각 되지 않는다. 정장을 입고 공부하는 것과 운동복을 입고 공부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큰 효율이 있냐고 물어보면 대답은 가지각색일 것이다. 어떠한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고 색색인데, 왜 우리는 학교에서 똑같은 모양에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또한 나는 왜 남자는 머리가 짧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남자도 여자처럼 단발머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규정상 남자는 스포츠형 머리이고 여자는 단발머리이다. 왜 여자만 머리가 길고 남자는 짧아야 할까? 아마도 일본의 단발령이 계승되었을 것이다. 아니면 박정희 시대의 장발단속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와 단속은 누가 봐도 악습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악습을 따라 행하고 있다. 마치 오래된 전통과 관습처럼 말이다.

이 문제 말고도 우리 학교에는 큰 문제가 있다. 바로 별점제도이다. 만일 내가 잘못을 하면 별점을 주고 상 받을 일을 하면 상점을 주는 제도이다.

마치 착한사람과 나쁜 사람을 나누고 표시해 주는 제도 이다. 만약 네모난 도형 세모난 도형 동그라미 도형 별표 도형 등 여러 가지 도형이 놓여 있을 때, 누군가가 “네모난 도형은 네모나니깐 나쁘고. 세모난 도형은 변이 3개라서 나쁘고 동그라미 도형은 동그니깐 착하고 별표 도형은 너무 그리기 어려우니깐 나쁜 도형이다.”라고 말한다면 아마 무슨 소리냐고 할 것이다. 나쁜 도형과 착한 도형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제일 먼저 기준을 세우고 나서야 그 도형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물며 학생들 또한 같다. 과연 그 나쁜 행동의 기준은 누가 정한 기준 일까? 교장선생님? 이사장님? 학부모님들? 누가 정한 기준이던지 그 기준은 단지 그 사람의 기준이지 전체의 기준은 아니다. 선생님들 말을 잘 따라 주고 공부도 잘하고 규정을 다 지키는 학생을 기준으로 그렇지 않은 학생은 나쁜 학생 잘 지키는 학생은 착한 학생 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 한 것이다. 절대자 즉, 신 외에는 나의 생활을 점수로 매기고 평가할 수 없다. 평등한 관계에 있는 인간이 다른 인간을 평가한다는 것은 이미 평등한 인간관계를 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는 별점 제도를 채택하였고 많은 학생들의 자유는 이미 알집에 압축 된지 오래이다.

본래 학교는 개인의 인격과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 장소이다. 광주 민주화 운동, 610민주항쟁, 419의거 등 우리나라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많은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 우리의 권리를 다시 되찾게 되었다. 아마도 그때의 학생들은 경찰의 고문과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도 그 때 그시절의 학생들처럼 나의 인권이 짓밟히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아야 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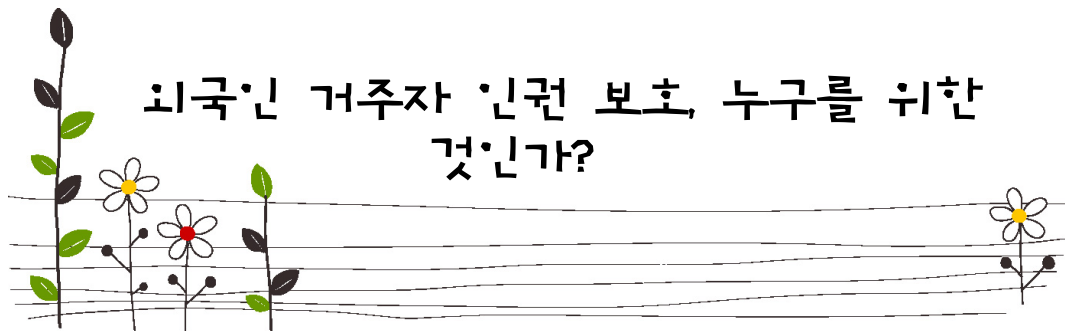
내가 있는 학교는 교도소도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곳이지 억압하는 곳이 아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차별을 느끼게 해주는 곳은 더욱 아니다.

지금의 학교가 그렇지 않다 하여도 나는 우리학교를 조금 더 자유롭게 학생들이 의견을 낼 수 있고 주장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위해 행동할 것이다.

비록, 나에게 벌점과 바지허가증을 빼앗기는 처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신이 나에게 주신 권리가 있기에 나는 두렵지 않다.



외국인 거주자 인권 보호,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용인 외국어고등학교 3학년 이주원

요즘 서울 시내에 나가보면, 삼삼오오 모여 거리를 활개 하는 외국인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학원 밖에서 외국인을 찾아 보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흔히 외국인하면 떠올리는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이들부터 검은 곱슬머리에 커피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까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우리들과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을 뿐, 그 공간 내에서 '공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사실, 나는 길거리에서 외국인들과 마주칠 때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단절된 공간을 만들어 그 속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애석한 것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외국인들을 그 단절된 공간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주범으로 우리들을 지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래에 한 인도인 교수가 버스 안에서 인종 차별적인 모욕을 당한 일로 나라 전체가 시끄러웠다. 버스에서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성공회대 인도인 교수에게, 한 한국인이 더럽다, 냄새난다, 라는 말로 모욕을 주었다가 형법상 모욕 혐의로 기소된 것인데, 이를 계기로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이 공

론화되고 있을 정도로 이 사건은 나라 전체에 외국인 이민자 인권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인종차별금지법이란 위의 예와 같은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로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한국에서는 국회의 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 결과, 외국인들은 인종 차별로 인해 자신들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에도 일반 형법의 모욕죄로 약식 기소를 할 수 있는 정도일 뿐, 따로 처벌을 요구할 기반이 없다. 인종차별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외국인 인권 보호 면에서 크게 뒤쳐져있고, 따라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법 제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들려오고 있다. 반대 측의 주된 주장은 외국인의 인권 보호 문제 보다 먼저 불법체류 외국인의 유입과 폭력 문제부터 해결하여 내국인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인종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국인의 이익을 무시하고 외국인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말하자면 주객전도적인 처사일까? 나는 문득 지난여름의 경험을 떠올리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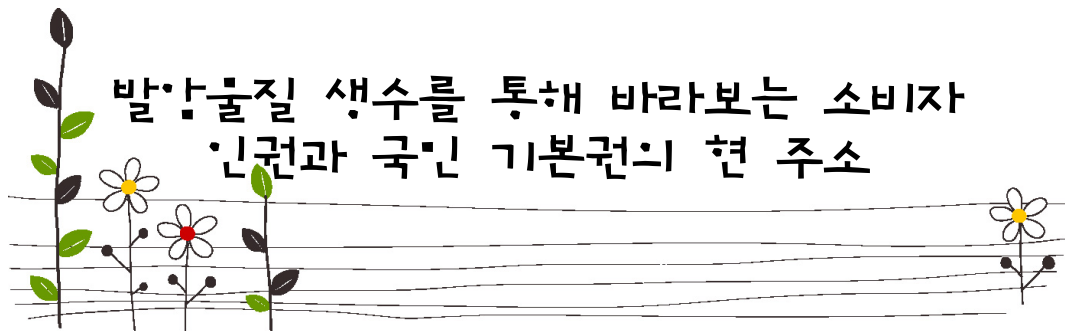
지난 8월경, 나는 친구들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하철에는 여느 때처럼 사람들이 짹짹 들어차 있었는데, 그중에는 검은 피부를 한 아프리카계 남성도 한 명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왠지 모를 불편한 공기가 흘렀고, 그도 그것을 의식한 듯 계속 안절부절 못 하는 기색이었다. 그때, 지하철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대략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한국 남자였는데, 방금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지 얼굴이 벌게져 있었다. 그는 잠시 비틀거리면서 서 있다가 갑자기 우리 쪽으로 걸어와서는 우리와 그 흑인 남성 사이에서 멈춰 섰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쏠렸고, 나는 무언가 불쾌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아니나 다를까, 그 술에 취한 남자는 이내 흑인 남성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애써

못 들은 척 하는 흑인 남성의 뒤에다 대고, 그는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검둥아"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기 시작했고, 몇 정거장을 지나는 내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다. 그 흑인 남자가 계속 참고 있자, 심지어 영어까지 동원해가며, "니그로(negro)"와 같은 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자 그 흑인 남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영어로, "더 이상 가까이 오면 가만두지 않는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모욕을 주던 한국 남자는 주춤하더니 다음 정거장에서 하차했다. 나와 친구들은 같은 한국인으로써 창피함을 땀을 떨며 그 흑인 남자 분께 대신 사과했다.

나의 이 경험과 인도인 교수의 사례를 통해서 나는 크게 세 가지를 깨닫게 되었다. 첫 째는 글의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단절은 외국인을 대하는 내국인들의 인종차별적인 태도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내가 예로 든 두 사례 모두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인종차별적인 모욕을 줌으로써 발생한 감정적인 충돌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감정적인 충돌이 반복되고, 확대되어 단절로 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둘째로, 인종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외국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먼저 단순하게 생각해서, 외국인에 대한 모욕과 인권 침해가 말로 끝나지 않고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해보자. 만약, 그 지하철의 흑인 남자가 으름장을 놓는 것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아 폭력을 행사했다면 어떨까? 만약, 인도인 교수가 이성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대신 칼을 꺼내 찌르는 것으로 보복을 했다면 어떨까? 언어적 폭력이건 신체적인 폭력이건 폭력은 보복을 부르고 그 보복은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법으로 보호가 보장되지 않는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좀 더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인 방법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모욕행위가 지속되고 모욕을 당한 외국인은 자신의 권리를 추구할 아무런 법적 기반을 가지지 못하고 방치된다면 어떻게 될

까? 그렇게 되면 외국인 거주민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되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에 반목의 골이 깊어져 사회적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심한 경
우에는 미국에서 1900년대에 빈번히 일어났던 흑인 폭동과 같은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는 국가나 민족적 이익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까지 위
협하게 될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다분한 것 이다. 따라서 외국인들에게
폭력이 아닌 법이라는 이성적인 도구를 들려주는 인종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당면과제이다.

다행스럽게도, 나의 세 번째 깨달음은 이러한 부정적인 현실에 긍정의 빛
을 비추어 주고 있다. 분명, 그 술 취한 한국 남자가 흑인 남성에게 모욕을
주기 전까지 지하철 안에는 알 수 없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경계
심은 이내 한국 남자에 대한 분노와 같은 민족으로써의 창피함으로 변해갔
다. 만약 지하철 안의 사람들이 정말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다
면 그들은 그 모욕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심지어는 동조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외국인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낮설어하
는 것 뿐 이었다면 모욕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내가 본 것과 같은 불의에 대
한 분노였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나는 한국인들이 그
저 외국인들을 낮설어 하고 있는 것일 뿐, 그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거기서 희망을 찾았다. 분명, 우리는 아직
외국인들과의 공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하지
만 우리들은 외국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함을 어느 정도 자각하고 있고, 언
젠가는 그들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서로 조화롭게 살아갈 준비를 마칠 것이
다. 나는 시간이, 그리고 인종차별에 대항하여 외국인 거주민의 인권을 지키
려는 우리의 노력이 그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



대전 만년고등학교 1학년 김윤나

얼마 전 나는 신문에서 경악스러운 기사를 읽었다. “천연 광천수에서 발암물질 검출…해당업체 비공개, 소비자에게만 피해전가” 내가 읽은 신문의 헤드라인이다. 기사의 내용에 의하면 얼마 전 먹는 샘물에서 잠재적 발암물질인 브롬산염이 검출된 데에 이어 이번에는 천연 광천수에서도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우리가족을 포함하여 전국에 있는 시민들이 매일 매일 마시는 생수에서 그런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기사를 접한 나는 매우 큰 충격에 휩싸였다. 처음에는 “도대체 생수 제조업체에서 얼마나 시설관리를 허술하게 했으면 이런 발암물질이 검출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기업에 대한 분노가 솟구쳤다. 그러나 기사를 계속 읽다 보니 나의 분노의 화살은 기업이 아닌 보건당국과 정부에게로 방향이 옮겨갔다. 왜냐하면, 보건당국이 단순히 생수와 천연 광천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만 발표 할 뿐 해당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려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중 38.3%에서나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는데도 보건당국은 여전히 안일한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국민들이 물마저도 마음 놓고 마시지 못하게 하는 보건당국의 이러한 태도에 분노하는 시민은 비단 나뿐만이 아니었다.

인터넷을 조금 뒤져보니, 벌써 소비자시민모임에서는 관련 업체 공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었고 사회 각계에서 보건당국의 각성을 촉구하는 운동들이 행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운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보건당국.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생필품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것은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렇게 안일한 태도를 고집하는 것일까? 더욱이, 이번 사건이 최근 촛불시위와 관련하여 국제 엠네스티가 ‘한국 언론자유와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라고 발표한 것과 맞물려 한국의 소비자 권리와 건강권마저도 침해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그 사안이 더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인권이 언론의 자유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소비자의 권익, 더 나아가 기본권인 건강권마저 그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렇게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된 사례가 이번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올해 5월에는 미국의 ‘존슨즈 베이비 샴푸’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다이옥신이 검출되었지만 식약청에서 2달간 쉬쉬했던 사실이 밝혀져 시민들의 빈축을 산적이 있었다. 그 제품은 대부분의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제품이어서 어린 자녀를 둔 해당 제품 사용자들의 우려가 컸었다. 또, 작년 멜라민 파동 때에는 보건당국의 늑장 대응으로 여러 곳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 적도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유전자 조작(GMO) 옥수수 수확량이 수입검사서 통과되었을 때 식약청에서 잔류농약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뒤늦게 밝혀져 큰 논란이 일었던 적도 있었다. 그 수입산 GMO 옥수수는 국내에서 빙과와 음료수, 과자 등을 만드는데 쓰이는 전분당으로 사용될 것이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정부와 보건당국에 대해 더 큰 비난의 목소리를 내었었다.

위에 제시된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히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국민의 인권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나라에서 오히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이러한 일들로 인해 침해당하는 인권이 아직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자리 잡히지 못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더욱 안타깝다. 위 사례들과 같은 경우에, 우선 ‘소비자 기본법’에 제시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중 하나인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침해당한다. 이 권리는 흔히 ‘알 권리’ 라고도 불리는 소비자의 권리중 하나로,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그 품질, 성능, 내용, 성분, 가격, 거래조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소비자 기본법 제 4조에는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제품이 잠재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그 제품과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이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생수파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부는 소비자의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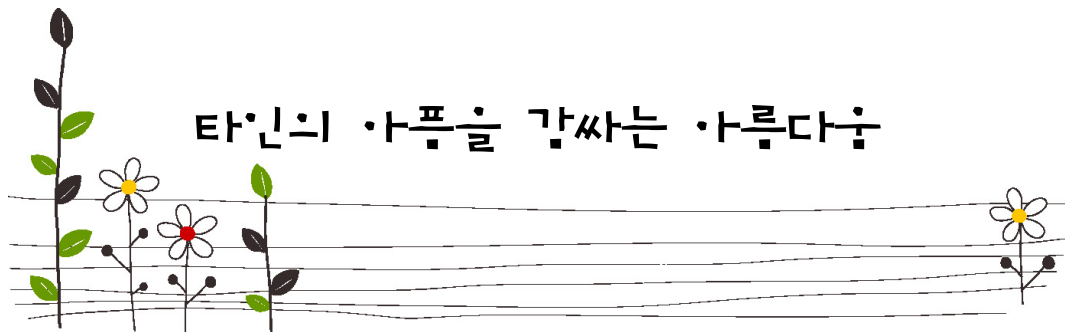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기본권중의 하나인 ‘건강권’ 또한 침해당한다. 건강권은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적 투쟁의 과정에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으로써, 이전에는 건강권이 실정법상의 권리로는 인정되지 않고 선언적 의미만 지니는 것으로 인식되었었다.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의 중요성이 대두됨과 동시에 인권보장을 강조한 문서가 여럿 발표되면서 건강권을 인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경향이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 대표적인 국제 인권규약의 하나인 사회권 규약 제 12조에는 건강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라고 정의되어 있다. UN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하면 건강권의 핵심 요인들 중에는 ‘정보접근성’ 이라는 요인이 있는데, 이는 ‘건강과 관련된 정보와 의견을 찾고, 받고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UN 총회 3차 위원회는 몇 가지 의무사항들을 당사국의 필수적인 의무, 상대적인 우선순위 사항으로 규정하였는데, 이중 상대적인 우선순위에는 ‘지역사회의 주요 건강 문제와 관련한 정보의 접근성과 교육 기회 제공’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그 영향력이 잠재적이던 직접적이던 자신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국가로부터 그것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 우리나라 헌법 제 36조 제 3항에도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조항이 있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10조 제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등 법률상으로도 건강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된 식품이나 생활필수품 관련 상품에 대해서 기업의 이익만 생각하는 보건당국과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셈이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건강권과 소비자의 기본권이 확고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1970년대, 경제성장이라는 명목 하에 대기업 위주의 정치가 전개되면서 상대적으로 국민의 인권은 등한시 되었던 한국 사회의 어두운 모습이 아직도 척결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번 생수파동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 하고 있는 보건당국의 태도는 특히 더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보건당국의 이러한 처신 때문에 후에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 하였을 경우 이번 사건을 선례로 들어 비슷하게 일을 처리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정착되지는 못했지만 국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강권 같은 경우에는, 먼저 좋은 선례가 확립되어서 그 인권이 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보건당국의 이러한 행위가 그 기반형성을 저해하고

있어 더욱 우려된다. 소비자의 권리 또한 아직 소비자 권리 의식이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비춰볼 때,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입지가 더욱 흔들리게 될까봐 매우 염려된다.

기반이 다져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성장만을 쫓아온 결과로 우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맛보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권의 부재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 경제적으로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슷한 위치에 올라 세계 10위권에 드는 쾌거를 이룬 우리나라지만, 아직도 인권 면에서는 후진국 수준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으니 그 부작용이 꽤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 향상으로 인권에 대한 갈증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정치인들의 인권의식은 국민들의 그것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한국사회의 풀리지 않은 숙제, 인권. 누군가에게는 이번 생수과동이 매우 사소한 일이고 하찮은 일로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기억해야한다. 이 ‘사소한’ 일을 고쳐나가는 것에서부터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실현된다는 것을. 아무리 잘 지어진 집이라도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다면 언젠가는 무너지기 마련이다. ‘인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어야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성장하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를 포함하여 자라나는 전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미래에 살게 될 대한민국은 아주 사소한 인권이라도 보장받는, 그러한 사회가 되길 오늘도 간절히 소망한다.



구미 금오여자고등학교 2학년 성은옥

소외되어 그늘진 곳에서는 작은 외면도 한층 거칠어 보이고 한 순간의 무관심도 황포에 가깝다. 한 인간이 처한 환경의 열악함을 저울질하여 너무나 쉽사리 그들을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는 느낌.

그 시작은 외국인 근로자 쉼터에서였다.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 수업 보조를 했던 나의 체험은 유난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도시에 사는 내가 외국인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게 된 계기가 되었다. 동남아 외국인들의 새까만 눈동자가 친근해 질 무렵, 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차별적 대우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되었다. 그들 중 몇 명이 이구동성으로 “사장님 나빠요. 월급.. 안주고 너 집에 가! 그렇게 말했어요.”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나는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치 내가 그들에게 주어야 할 돈이 있는 것처럼 미안하고 창피했다. 그들은 이른바 3D업종에서 휴일도 없이 하루 열 시간 넘게 일을 하면서 낯선 땅 대한민국의 경제적 차별과 차가운 시선을 견디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전 지금의 그들과 같이 고생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렇다면 빈곤 속에서 겪었던 우리의 뼈아픈 서러움을 생각해서라도 그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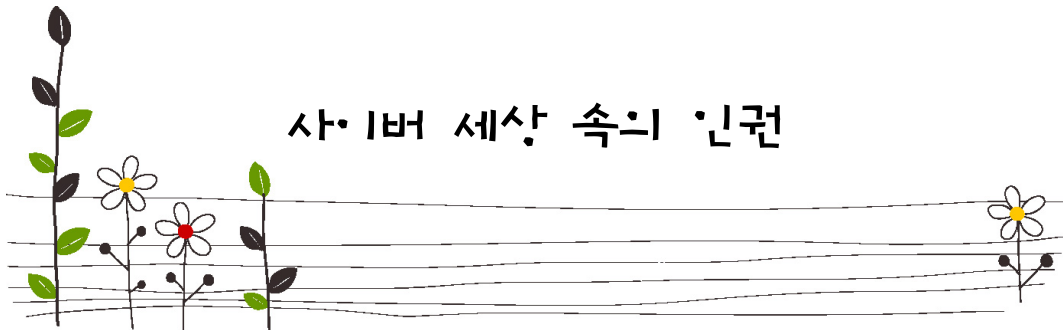
따뜻한 미소를 가진 인정스러운 그들에게 축지 않은 겨울날에도 나는 “춥지요?”라고 인사를 하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볼 뿐이었다. 그러다 정말 추워져 버린 겨울 어느날 변두리에 버려진 후 센터에 머물게 된 스물네 살 ‘홍명 언니’를 만나게 되었다. 의외로 한국말을 잘하는 홍명 언니 덕분에 두 세 번의 한글 수업 뒤에는 무척 친근한 말을 주고받게 되었다. 그녀는 우리나라 농촌 총각에게 시집 온 지 7개월 만에 남편과 헤어져 센터에 오게 되었다. 그 후 두 달여 동안 센터 직원들은 그녀와 함께 최선을 다해 그녀와 남편의 화해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단순하게 말이 통하지 않아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남편을 그녀는 이제 더 평생을 함께 할 반려자가 아니라고 체념했다. 그러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갈증이 날 때 마다 그저 콜라를 조금씩 마시는 것으로 끼니를 대신해 한 달 여 사이에 13Kg이나 체중이 줄게 되었다. 마지막 수업이 있던 날 나는 그녀의 깡마른 손을 잡고 “미안해요...행복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며 울어 버리고 말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센터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베트남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크나 큰 아픔을 혼자서 참아내느라 힘줄이 파랗게 돌아선 그녀의 팔목이 너무나 아파 보여 나라도 사과를 해야 했다. 그것은 그녀의 남편과 내가 같은 나라의 사람이라는 수치심의 발로였다. 그때 내가 느낀 벽은 크고 단단한 무관심의 벽돌로 나와 타인, 자국과 타국 사이에 아주 높게 드리워져 있었다. 빈곤한 경제적 환경으로 시작된 불행은 아직도 유난히 크고 아름다운 그녀의 눈 속에 그렇그렇한 눈물로 고여 있을 것만 같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도 지켜 주지 못했던 가녀린 ‘홍명 언니’의 슬픔도 지난 여름방학 소록도에서 내가 느꼈던 무력함 보다 더 슬프지는 않았다. 소록도는 열악한 역사적 환경으로 인해 평화와 행복, 그리고 평범한 삶의 의지마저 무참하게 빼앗긴 사람들이 외로움 속에 격리되어 있었다.

소록도. 중앙리. 김옥이. 할머니

스타카도로 푹푹 분절되어 아예 슬픔으로 각인된 듯 떠올리는 것조차 세삼 가슴 아프다. 할머니께서는 한센병 환우이셨다. 일제강점기에 한센병을 얻어 소록도에 정착하기까지 그 고난의 여정을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미루어 짐작해 보아도 할머니의 사라진 손가락 보다 더 큰 시련이었을 것이다. 전염성 불치병으로 여겨지던 한센병 환자들을 일제는 병의 유전을 막는다는 이유로 강제불임시술을 해 전대미문의 인권유린을 서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한센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검시라는 명분으로 짓밟고 또다시 검시한 사체를 화장하기 까지 했더니 믿을 수 없는 만행 이었다. 공포로 삶을 지탱해 오신 할머니의 말끝은“그 시절 소록도 사람들은 세 번을 죽었다”며 아직도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역사 속에서 유린당한 소록도 어르신들께 어쩌면 소중한 나의 인권이 빗을 지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러나 나는 작은 말벗으로 할머니와 나흘을 함께 보내 드리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부족했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소록도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줄 때 보다 몇 배나 더 힘들 청소차 보조를 스스로 지원했다. 그것도 모자라 여름 한낮을 온종일 냄새와 땀에 젖어 지내도 더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 듯 또 다른 일을 찾아 허둥대고 있었다. 어쩌다 쓰레기 봉지 사이에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벌레나 구더기를 보고도 ‘악’소리 한번 지르지 못했다. 마치 오래전 봉사를 계획한 사람처럼 피곤함을 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돌아오는 날 할머니께서는 아쉬워 내 손을 꼭 잡으시고 “내가 너 잘되라고 기도할게”라고 눈물을 보이셨다. 나는 할머니의 눈물을 보며 내 마음속에 더 남아 있는 일을 돌아가서도 계속하기로 다짐할 수 밖에 없었다.

소외되어 아픔을 겪고 있는 곳에 우리 모두가 지켜 주어야 할 인권이 있고 내 자신이 지켜내야 할 나만의 인권도 그곳에 있음을 소록도라는 아주 먼 곳에 와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개학 후 또 다시 학교 수업

이 없는 토요일 마다 집에서 가까운 양로원을 찾게 되었다. 비록 “소록도. 중앙리. 김옥이. 할머니.”는 아니지만 씩씩하게 텃밭을 일구며 노년을 지내시는 할아버지가 계시고 치매와 하루 종일 씨름중인 할머니도 계시며, 주말에는 찾아 올 자식들을 기다리며 창가를 서성이는 어른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나에게 양로원이나 외국인 근로자센터의 의미는 소록도를 다녀오기 전과 많이 다르다. 단순히 의무적 봉사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보편적 권리를 눈 뜨게 하고 그것을 온전히 지켜내야 한다는 의지를 키울 수 있는 자양분이 된 것이다. 또한 가슴 속에서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감싸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끄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 양로원에서 실제로 자신이 가진 허기 보다 더 많이 배고프신 어르신들을 자주 보게 된다. 굶주린 시대를 살았던 기억은 노인 평균 식사량을 훨씬 초과하는 허기진 과식으로 남아 있는 것일까? 그러나 굶주림이 반드시 허기로 기억되는 것만은 아니다. 누군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나누고 가난의 아픔을 감싸 준다면 그들은 더 이상 심리적 허기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아직은 작은 힘이지만 먼저 깨닫게 되었으니 당연히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오늘도 나는 삶의 의지만큼 병을 이겨 내시는 양로원의 어르신들을 통해 여생의 행복과 권리를 위해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된다. 타인의 아픔을 감싸는 아름다움! 그것만이 곧 나와 우리 모두의 인권을 오래도록 굳건히 지켜 갈 수 있는 단단하고 순결한 매듭이 되는 것이다.



사이버 세상 속의 인권

민족사관고등학교 1학년 김신태

미국시민자유연합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인권과 관련된 동영상들이 올려져있다. 그 중에 하나가 '2010년에 피자 주문'이라는 제목의 짧은 동영상이다. 동영상은 켈리라는 사람이 피자를 주문하려고 전화를 거는 상황에서 시작된다. 전화를 받은 콜센터 직원의 화면에는 전화를 건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집과 직장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뜨고, 콜센터 직원은 켈리가 이야기 하지도 않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부르며 본인 확인을 한다. 켈리가 더블미트 피자를 주문하려고 하자, 콜센터 직원은 황당하게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켈리! 음, 혈압도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으시네요. 새로 제정된 국민보건 규정에 따라서 보험료 20불을 더 내셔야겠네요." 피자 회사에서는 이미 고객들의 건강 정보뿐만 아니라, 고객의 최근 물품 구매, 신용카드 사용 내역, 여행 이력, 투표 이력, 직장 경력 등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다. 결국 켈리는 처음에 원했던 더블미트 피자 대신에 다이어트에 좋다고 추천하는 야채가 든 샌드위치 세트를 주문하는 것으로 동영상은 끝난다. 이것은 사이버 공간 속에서 개인 정보의 유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영상이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의 정보들을 수

집당하고 있으며, 누가 얼마나 자세히 우리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마치 '시선의 불평등 교환'을 통한 감시체계인 파놉티콘의 인터넷 버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은 개인 정보 유출과 같은 프라이버시 침해 뿐만 아니라, 인권을 해치는 도구로 활용되곤 한다. 사이버 명예 훼손이 그러한 예이다. 예를 들어, 거짓 정보를 인터넷에 배포하여 개인의 인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다. 고 최진실 씨의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연예인들이 이러한 사이버 명예 훼손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는 단지 유명인들이나 연예인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며칠 전, 사이버 스토킹의 급증에 관한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인터넷 쪽지, 이메일, 휴대전화 등으로 특정인에게 글이나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내 괴롭히는 사이버 스토킹 범죄가 4년 동안 3배나 급증했다고 한다. 이 기사에서 소개한 한 사례의 경우를 보면, 인터넷에 돌던 피해자의 학생증 사진을 입수한 후, 개인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것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단순히 개인 정보의 수집을 넘어서, 수집된 정보들을 악의적으로 사용할 때, 일면불식의 타인으로부터 개인이 얼마나 피해를 볼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최근에 발생한 2PM의 재범에 대한 일련의 사건들 또한 사이버 공간과 인권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한다.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 재범의 과거 5년 전 마이스페이스에 썼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글들이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었고, 누리꾼들에 의한 여론몰이로, 재범은 4일 만에 2PM을 탈퇴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인터넷 댓글로 대표되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여론의 쓸림 현상은 때로는 마녀사냥을 연상시키며,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곤 한다. 이외에도 사이버 공간을 통한 인권의 침해는 사이버 범죄, 아이디 도용, 사칭, 초상권 침해 등 다양하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지적 저작권 침해나 바이러스와 해킹 등도 넓은 의미에서 인권 피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이 인권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능을 제공한다. 첫 번째 순기능은 평등권의 강화이다. 인터넷의 특징인 익명성은 손쉬운 의견 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이것은 결국 평등권의 강화로 연결된다. 포털이나 뉴스 서비스 사이트에 올라온 기사나 의견에 대해서 누구나 평등하게 자신의 반론이나 다른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프리드만은 그의 저서 '세상은 평평하다(The World Is Flat)'에서 21세기는 제 3 세대 글로벌화 시대이며, 그 중심에 인터넷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누구나 사이버 공간에서는 평등하며, 능력만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과거보다 더 커졌다. 한 예로 유튜브의 동영상 하나로 일약 스타가 된 임정현 씨가 있다. 그는 뉴질랜드에서 유학 중 대학교 기숙사에서 유튜브에 올린 '캐논' 기타 연주 동영상으로 유명해져서,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언론에까지 소개되었고, 인정받은 기타리스트로 활동하게 되었다. 능력과 실력만 있다면, 지구 상 어디에 살던지, 인터넷은 자신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공평한 관문 역할을 해준다.

또한, 사이버 공간은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킨다. 1인 미디어 도구라고 불리는 블로그, UCC 사이트, 미니홈피 등은 자신의 의견, 생각, 작품 등을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앞서 댓글의 역기능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댓글은 쌍방향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이것은 평등권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향상시켜주는 역할도 한다.

세 번째로 정보 확산 속도의 향상은 인권의 보호에 기여한다. 예를 들어, 2008년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때에 경찰의 과도한 진압 장면이 인터넷 동영상으로 실시간 생중계되었고, 이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인권 침해 동영상의 급속한 전파는 인권 침해를 막는 효과가 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초상권 침해의 문제도

함께 수반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시간적 제약 뿐 아니라, 공간적 제약의 극복을 가능하게 하고, 이것은 소외된 계층의 인권을 강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전쟁 중 이라크 내에서 미국 군인들의 이라크인 포로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는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으면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전쟁 지역, 분쟁 지역, 아프리카 오지 등의 어린이 인권 상황이나 여성 인권 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전세계로 전달되어, 이들 지역에 사는 이들의 인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이야기와 같이, 현실 공간에서는 지킬 박사로 지내다가 사이버 공간에서 갑자기 하이드 씨로 변화는 모습들을 인터넷에서 종종 만나게 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공간인 사이버 공간은 이제 우리의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은 현실의 공간과 별도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며,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이들 공간에 참여하는 개인도 분리된 두 개의 자아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실 공간에서 존중되어야 할 인격과 예절이,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 익명성, 비대면성, 쌍방향성, 복제성, 전파성 등으로 대변되는 사이버 공간은 인권 향상을 위한 유용한 도구임에 틀림없지만, 날카로운 양날의 칼과 같이 인권을 해치는 무서운 무기로 돌변할 수도 있다. 이 유용하고 무서운 도구가 우리들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다. 엔터키를 치기 전에 이 글을 읽을 사람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우리가 된다면, 사이버 세상 속의 하이드 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2009년도 인권에세이 수상집

2009년 12월 인쇄

2009년 12월 발행

발행인 : 현병철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과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10층
(을지로 1가 16번지)

전화 : (02)2125-9737

팩스 : (02)2125-9878

홈페이지 : <http://www.humanrights.go.kr>

사이버인권교육센터 <http://edu.humanrights.go.kr>

인쇄처 : 리드릭(02-2269-1919)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03040
9 788961 141895
ISBN 978-89-6114-189-5